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때 : 2023년 10월 6일(금) 10:00-16:40

○곳 : 한글학회 강당

주최:  한글학회 .  문화체육관광부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차 례•

[기조 발표]

권재일(서울대) : 조선어학회와 『큰사전』 편찬에 담긴 뜻 7

[제1부 주제 발표]

조태린(연세대) : 『큰사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 21

한용운(전 거래말큰사전편찬사업회) : 국어사전의 발자취 37

유춘동(강원대) : 『큰사전』에 수록된 문학 관련 항목과 표제어의 의미 · 65

남길임(경북대) : 『큰사전』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75

[제2부 주제 발표]

강민하(서울대) : 『큰사전』과 『수정증보 국어대사전』(문세영)의 외래어 표기
차이: 영어와 일본어의 자음을 중심으로 95

박동근(대전대) : 국어사전의 의성어·의태어 미시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129

[제3부 연구 발표]

김수영(한신대) : 한국어 ‘ㄴㄹ’ 연쇄의 발음과 그 원리 151

박진희(서울대)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연구 · 163

정지현(고려대) : 초등 학습자의 언어 인식 연구 193

기조 발표

조선어학회와 『큰사전』 편찬에 담긴 깊은 뜻/ 권재일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16:40 / 한글학회 강당

□ 기조 발표

조선어학회와 『큰사전』 편찬에 담긴 깊은 뜻

권재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kwonjil@snu.ac.kr

조선어학회는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길은 오로지 우리 말글을 지키는 데 있다는 뜻을 펼치고자 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해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 표준말을 사정하고,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편찬한 큰사전은 우리말을 지키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문화민족으로 홀연히 서게 한 빛나는 업적이었다.

1.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

1.1. 주시경 선생

주시경 선생(1876~1914)은 국어 연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대표적인 언어학자이다. 그는 나라의 힘과 겨레 정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해 말소리와 문법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는 『국어문법』(1910년)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

인 이론은 국어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잇고 가꾸는 데서 시작하였다. 우리말을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주시경 선생 학문의 바탕이 되었으며, 평생을 일관되게 지닌 태도였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어를 연구한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곳곳하게 지킨 국어 사랑의 실천가였다.

청년 시절 우리말과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주시경 선생은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일에 헐버트 선생과 함께 참여하였다. 주시경 선생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국문판 조필(助筆)로 발탁되어 편집과 제작을 맡았으며,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국어 문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주요 저서에는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 1908년), 『국어문법』(國語文法, 1910년), 『말의 소리』(1914년)가 있다.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어교육자로서의 업적, 국어 운동의 선구자로서 업적 또한 크다. 국어 순화 운동도 주시경 선생이 시작하였으며, 한글 전용이라는 글자 생활의 새로운 운동도 선생이 실천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사에 끼친 공헌과, 한국문화사와 민족투쟁사에 남긴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1.2. 조선어학회의 창립

남북은 광복 이후 그 범위나 방법에 차이는 있었지만 한글 전용이라는 강력한 말글정책을 폈다. 한글을 깨우쳐 문맹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도록 하였다. 남한에서는 최현배, 김윤경, 장지영 선생 등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한글 전용의 말글정책을 세워 아주 짧은 기간에 문맹률을 낮추어갔다. 북한에서도 김두봉, 이극로 선생 등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말글정책의 중심을 잡고 문맹을 퇴치하였다. 이렇게 남북이 문맹을 퇴치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어학회가 전개한 한글 중심의 말글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남한의 최현배, 김윤경, 장지영 선생이나 북한의 김두봉, 이극로 선생이 주시경 선생의 문하생이며, 주시경 선생에 뿌리를 둔,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결국 광복 이후 남북의 말글정책은 주

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 그 정책이 우리 민족을 문맹으로부터 구하였다.

잘 알다시피, 지금의 한글학회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08년에 창립된 ‘국어연구학회’에 닿는다. 이 해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은 김정진 선생을 비롯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를 창립하였다. 기울어가는 국운을 보면서, 겨레 말글의 힘을 믿는 이들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깊었기 때문이었다.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되면서 국어는 일본어를 가리키게 되자, 국어연구학회는 1911년 ‘배달말글문음(朝鮮言文會)’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1912년에는 다시 ‘한글모’로 바꾸었다. 이때 ‘한글’이 우리글의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이 무렵인 1911년에 동래 출신 김두봉 선생과 울산 출신 최현배 선생은 함께 ‘국어연구학회’가 차린 강습소의 제2회 졸업생이었고, 1913년 ‘한글모’의 조선어강습원 고등과 수료생이었다. 1914년 주시경 선생이 돌아가자 김두봉 선생은 주시경 선생을 이어 말본 연구와 교육에 힘쓰다가 1919년 4월 중국으로 망명했고, 최현배 선생은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국어 연구에 더욱 힘을 쏟았다.

그 이후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1921년에 ‘조선어연구회’로 개편하고, 1931년에 ‘조선어학회’로, 1949년에 ‘한글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물론 하는 일에는 시대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달라졌지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교육·보급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에 따른 활동을 끊임없이 해 왔다.

이렇듯 지금의 한글학회는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길은 오로지 우리 말글을 지키는 데 있다는 뜻을 펼치고자 한글날을 만들고(1926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1929년)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고, 이를 위해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1933년), 표준말을 사정하고(1936년),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1년)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한글맞춤법과 표준말은 오늘날 우리 말글 생활의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민족문화에 길이 빛나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



주시경 선생 초상화
(선생의 큰사위인 이종우 화백의 1943년 작품)

2. 우리말 사전 편찬

2.1. 『말모이』 편찬 사업

주시경 선생은 백성들이 ‘법식에 맞게’ 글을 읽고 쓰는 데 참조할 문법과 사전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백성 대부분이 문맹자인 상황에서 이들을 계몽하려면 문법과 사전이 절실히 필요함을 깊이 느꼈다. 이러한 바탕에서 사전 편찬을 시도하였으니, 바로 『말모이』였다.

『말모이』는 1910년대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 선생과 뜻을 같이하는 그의 제자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선생 등의 언어학자가 참여해 편찬된 최초의 현대 우리말 사전의 원고이다. 최남선 선생, 박은식 선생 등이 우리 문화의 선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광문회에서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사상이 사전 편찬의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편찬자들이 사망하고 망명하기도 하여 불행히도 출판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말모이』 원고는 1927년 민족계몽단체인 계명구락부에 인계되었다가 이후 조선어연구회로 넘어가 『조선말큰사전』의 뿌리가 되었다. 『말모이』 원고는 1968년 서울대학교 이병근 선생이 경기도 광주에서 찾아내었다.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이 간직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 24일 등록문화재 제 523호로 등록되었다.

지금 전해 오는 『말모이』 원고는 그 첫째 권으로 보이는 푸른색 원고지에 붓으로 쓴 원고로, 240자 원고지 기준 153쪽이다. ‘알기, 본문, 찾기, 자획 찾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알기’에는 6개 항목의 ‘범례·어법용어·전문용어’의 약호가 수록되어 있고, ‘본문’에는 ‘ㄱ’부터 ‘갈죽’까지의 표제어 및 뜻풀이가 수록되어 있다. ‘찾기’는 표제어의 색인이며, ‘자획 찾기’는 표제어와 본문 한자어의 획수 색인이다. 또한 용언의 어미와 체언의 조사를 포함한 ‘토’를 독립된 품사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용언의 표제어는 체언의 표제어처럼 그 어간만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표제어와 뜻풀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였다.

2.2. 『큰사전』 편찬 사업

1910년부터 시작한 『말모이』 편찬 사업은 주시경 선생의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중단되었다. 그리고 나서 조선어연구회는 이 일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 1929년에 각계 인사 108명이 발기인이 되어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

직하였다. 사전편찬회와 조선어연구회가 사전 편찬의 기초 작업을 위해 어휘 수집, 뜻풀이, 편집, 맞춤법 통일, 표준어 조사·선정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어휘 수집 과정에서는 크게 일반어, 전문어, 특수어(고어, 방언, 은어 등)로 나누어 접근하였는데 이미 나와 있었던 조선총독부 『조선어 사전』, 영국인 게일이 만든 『한영사전』, 개인이 기증한 사전 원고 등을 참고 했는가 하면, 신문·잡지·소설·시집, 고전 언해·역사·지리·관제 등 각 전문 방면의 문헌들에서 널리 조사하여 뽑았으며, 주로 방언은 조선어학회 기관지인 『한글』에 광고를 내어 독자들과 방학 때 시골로 가는 학생들에게 의뢰하여 모았다.

그러나 1942년 10월의 조선어학회 수난의 일로 사전 편찬과 출판은 중단 되고 말았다. 침략전쟁에 광분하고 있었던 1940년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였다. 조선인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고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 조선어학회 선열들은 핍박과 감시를 받아가며 우리 말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어학회의 큰사전 편찬이 막바지에 이른 1930년대 말, 당시는 일제의 전쟁 감행으로 여러 민간 문화단체를 함부로 폐쇄하거나 해산시키는 상황이어서 이런 불안과 위협을 나날이 느끼는 조선어학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떻게 해서라도, 사전 편찬이 끝날 때까지는 필사적인 일념으로 모든 박해와 갖은 치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들로 심신의 고통과 피로로 큰사전 편찬의 손실도 엄청나게 컸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큰사전의 출판 허가를 받기 위하여 1939년 말에 우선 원고 작성이 완료된, 전체의 약 3분의 1쯤을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출원하여, 1940년 3월에 본문을 상당히 고치고 지우는 조건으로 간신히 허가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나마 우선 출판 허가가 나온 원고의 조판이 1942년 봄부터 시작됨에 따라, 이의 교정 작업 또한 바쁘게 병행되었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어휘 초벌 뜻풀이가 끝나게 되어 사전 체제로 원고 편성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던 무렵, ‘조선어학회 수난’의 일이 일어나 큰사전 편찬은 중단되고 말았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이하여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1942년에 홍원으로 함흥으로 잡혀갔던 학회 회원들이 서울로 돌아왔다. 그런데 사전 원고는 함흥으로 서울로 두루 찾아보았으나,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 수 없었다. 일제가

패전하여 물러갈 때 각종 중요 문서를 불사르고 가면서 사전 원고도 함께 태워 없앤 것으로 짐작하였다. 이를 조선어학회뿐 아니라, 온 민족이 다 같이 걱정하고 한탄하였다. 그래서 각 방면의 인사들은 원고를 수색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하였다.

그러던 중 9월 8일에 그토록 찾던 『큰사전』 원고가 예상하지 못했던 서울역에 있는 조선운송주식회사 창고 속에서 발견되어 나왔다. 이는 함흥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증빙 자료로 서울의 상급법원으로 이송했던 것이 일제 말기 광복 초기 경황없는 속에서 그대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 원고 봉치는 2012년 12월 ‘등록문화재’ 제524-1호로 등록되었으며, 2020년 12월에는 그 가운데 여덟 책은 대한민국 ‘보물’ 제2086호로 승격되었다. 현재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개인 등이 간직하고 있다.

2.3. 『큰사전』 원고가 겪은 수난

9월 8일은 한글학회로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 조선어학회 수난으로 압수되어 행방을 알 길 없던 『큰사전』 원고봉치가 서울역 조선운송주식회사 창고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날이다. 1945년 9월 8일이다. 1945년 당시 신문에 따라서는 10월 2일 또는 10월 3일에 찾았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함흥 법원에서 1심 판결 후 피고인들이 불복하여 서울의 상급법원에 항소하자 그 증빙 자료로 이송 중에 광복이 되자 미처 법원으로 배달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큰사전』 ‘원고’ 표지와 내용, 그리고 『큰사전』 표지와 본문

그런데 『큰사전』 원고는 6.25 때 또다시 수난을 겪었다. 첫 번째는 6.25 당시이다. 6.25 직후 을지로에 있던 한글학회 사무실은 바로 인민군이 접수하였다. 이때 최현배 선생과 유제한 선생이 밤에 인민군 몰래 들어가서 『큰사전』 원고를 가져 나왔다. 이를 최현배 선생 댁 마당에 묻어 두고 두 분 다 피난을 떠났다. 몇 달이 지나 서울이 수복되어 마당을 파서 이 원고를 온전히 꺼냈다. 그리고 나서 만약을 대비하여 한 벌을 더 베껴 두니 원고는 두 벌이 된 셈이다. 두 번째는 1.4 후퇴 때다. 사전 편찬이 1.4 후퇴로 또 중단되자 새로 베긴 원고는 최현배 선생이 부산으로 가져가고 원본은 유제한 선생이 천안 고향집으로 가져갔다. 최현배 선생이 부산으로 가져간 원고는 동래 금정산 아래 장전리의 추호영 선생 댁에 보관하였다. 『큰사전』 원고뿐만 아니라 한글학회 도서 2천여 권도 그 댁에 함께 보관하였다. 그 뒤 다시 서울을 수복하자 『큰사전』 원고는 각기 부산과 천안에서 서울로 되가져와 사전 편찬을 계속하였다.

3. 『큰사전』 편찬에 담긴 깊은 뜻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잃었던 『큰사전』 원고를 손에 든 사전 편찬원들은 설레는 심정을 가다듬고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46년에 원고 정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을유문화사와 우호적인 출판 계약도 맺었다. 이에 따라 전체 분량의 약 6분의 1쯤을 탈고하여, 조판과 교정, 인쇄까지 끝내어 드디어 1947년 한글날인 10월 9일에 『조선말큰사전』 첫째 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뒤이어 둘째 권(1949.5.5.), 셋째 권(1950.6.1.)을 내고 6.25를 겪었다. 전쟁으로 여러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그 이후 넷째 권(1957.6.30.), 다섯째 권(1957.8.30.)을 내고, 마침내 1957년 한글날인 10월 9일에 여섯째 권을 성공적으로 펴내어 『큰사전』 완간을 이루었다. 이는 우리 민족문화사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첫째 권과 둘째 권은 ‘조선어학회 지은’ 『조선말큰사전』이었고, 학회 이름을 한글학회로 바꾼 이후인 셋째 권부터는 ‘한글학회 지은’ 『큰사전』이었다.

『조선말큰사전』 머리말에서 밝힌 다음 내용은 큰사전 편찬에 담긴 깊은 뜻이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고귀한 말씀이다.

“말은 사람의 특징이요, 겨레의 보람이요, 문화의 표상이다. 조선말은, 우리 겨레가 반만 년 역사적 생활에서 문화 활동의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곧 우리 겨레가 가진 정신적 및 물질적

재산의 총 목록이라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말을 떠나서는, 하루 한 때라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제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 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 아니라,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 이 수치를 씻고자, 우리 문화 향상의 밑천을 장만하고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선말 사전 편찬 사업의 새로운 결의로써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창립하였다. (중간 줄임) 이제 이 책이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의 이로운 연장이 되며, 또 그 창조된 문화재를 거두어들여, 앞으로 자꾸 충실히 가는 보배로운 곳집이 되기를 바라 마지아니한다.”

이제 이러한 『큰사전』에 담긴 깊은 뜻을 몇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조재수 2021, 박형익 2017, 한용운 2017, 권재일 2017 등 참조).

3.1. 종합사전으로서의 모습을 최초로 갖추었다

『큰사전』은 글자 그대로 우리말을 집대성한 최초의 큰사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제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 아니라,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 이 사전을 펴냈으니, 이제 그 수치를 씻고 우리 문화 향상의 밑천을 장만한 것이다. 그래서 『큰사전』은 민족문화사에서 길이 빛나는 것이다.

『큰사전』을 출판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말, 우리말 어휘의 온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말인 어휘뿐만 아니라 방언, 지명, 전문용어 등도 올림말로 올렸으니, 단순한 어휘사전에 그치지 않고 백과사전의 특징도 함께 지녀 종합사전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래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과 일상 의사소통에서 지식의 전달·습득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 창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2. 우리말의 어문규범을 정하는 데 기여하였다

『큰사전』은 올림말의 수에서뿐만 아니라 편찬 방법이나 기술 방법은 기존의 언어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이었다. 사전을 만들기 전에 맞춤법을 만들고 표준어를 사정하고,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는 등, 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사전 편찬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사전

편찬 방법은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점이다.

이렇듯 『큰사전』 편찬을 계기로 우리말 어문규범을 제정할 수 있었다. 『큰사전』 편찬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세 가지 규범은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전 편찬을 계기로 이러한 어문규범이 제정되어, 당시의 우리말 표기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었고, 또한 광복 직후 큰 혼란 없이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육할 수 있었고, 한글로 공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었다.

3.3. 다음 시기 사전 편찬의 바탕이 되었다

『큰사전』 이후에 발행된 사전들은 모두 직접·간접 『큰사전』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한글학회는 『큰사전』 편찬의 전통과 경험을 물론, 기술한 내용도 그대로 이어받아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여러 종류의 사전을 발행하였다. 중사전, 소사전, 새한글사전, 쉬운말사전, 우리말큰사전, 우리말토박이말사전 등을 이어서 발간하여 국민들의 국어 생활에 이바지하였다.

그 이후 남북한의 여러 사전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남한의 우리말 사전은 모두 『큰사전』의 바탕 위에서 점차 올림말 수를 늘리고 뜻풀이를 깊고 더하고, 말뭉치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뜻풀이한 사전이라 하겠다.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1961, 민중서관),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큰사전(1975, 삼성출판사), 금성관 국어대사전(1991, 금성출판사)을 비롯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1999, 두산동아), 우리말샘(2016),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큰사전』은 우리나라 여러 종류의 사전 편찬의 바탕이 되었다. 그래서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에 기여한 공헌은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3.4. 남북한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막았다

남북한은 광복 이후 그 범위나 방법에 차이는 있었지만 한글 전용이라는 강력한 말글정책을 폈다. 한글을 깨우쳐 문맹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도록 하였다. 남한은 문교부 편수국을 책임맡은 최현배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말글정책을 수립하였고, 북한은 조선어학회의 간사장을 맡았던, 1948년 4월 남북 여러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하러 평양에 갔다가 그곳에 남은, 이극로 선생을 중심으로 말글정책을 펼쳤다. 결국 광복 이후 남북한의 말글정책은 주시경 선생과 조선어학회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고, 또 그 정책이 우리 민족을 문맹으로부터 구하였다.

광복 이전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제정하고, 1936년에 표준말을 사정하여 보급·교육한 결과, 남북한은 표준화된 언어 및 문자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분단 초기에도 남북한은 이러한 표준화된 말과 표기법을 공통으로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조선어학회 임원들이 남북으로 흩어져서 동일한 말글정책을 펼쳐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현재 남북이 분단 80년이 다가옴에도 남북한의 언어 체계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고 표기법 원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1] 분단 이전 일제강점기에 이미 조선어학회가 어휘와 표기법을 표준화했다는 점, [2] 분단 직후 남북의 말글정책을 수립한 학자들이 모두 조선어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바로 여기에 『큰사전』 편찬이 기여한 것이다. 즉, 『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어문규범을 제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큰사전』 원고를 남북한으로 흩어진 학자들이 오랜 기간 같이 편찬하였기에 분단 이후의 남북한의 어문규범과 어휘가 서로 다르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4. 『큰사전』 편찬에 담긴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언어는 민족의 보람이며 또한 문화의 상징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 자산이다. 이러한 우리말의 어휘 자산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에서 우리 말글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어학회 선열들은 사전을 편찬하였다. 온갖 모진 탄압 속에서, 함흥감옥에서 악독한 고문을 당해 가면서, 그리고 두 분 선열의 목숨을 잃어가면서 편찬한 것이 바로 『큰사전』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을 담은 소중한 문화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전을 편찬한 선열들 앞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며, 이 사전의 가치를 영원히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우리 말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선열들의 『큰사전』 편찬 정신을 계승 발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더 나은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보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래서 온갖 정보가 넘쳐 나는 오늘날, 사전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 사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국어 정보의 길잡이가 되고, 다음 세대에는 생활과 문화의 역사를 보여 준다. 이런 뜻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큰사전』 편찬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인

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앞으로 우리 사전이 지향할 방향을 한 말씀 드리며 발표를 마친다.

그것은 대규모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지식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사전 정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살아있는 한국어의 참 모습을 그대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 말뭉치를 통해 가려낸 수많은 새말을 발굴하여 올림말로 올림으로써 현대 한국어를 올바르게 반영하여, 즉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을 최대한 반영하여 빈도순에 따라 의미를 배열하고, 새로 통용되는 의미를 뜻풀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예문을 뽑아 용례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정보 처리 기술이 기반이 될 것이기에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전이 탄생할 것이다. 또한 현대 한국어의 모든 동사와 형용사를 대상으로 설정 가능한 모든 문형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실제 논항들의 의미 부류를 체계적으로 보임으로써 한국어의 학습과 연구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어 화자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도 새로운 우리말 사전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권재일. 2011. 조선어학회의 귀한 뜻을 이어받자, 『한글새소식』 463, 6-7. 한글학회.
권재일. 2014.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새국어생활』 24-3, 61-75. 국립국어원.
권재일. 2017. 조선어학회 수난 사건은 위대한 독립운동이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2017년 8월. 국립한글박물관.
권재일. 2020.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국어 동사문법사전의 활용, 『중국조선어문』 2020년 제4호, 44-49. 중국조선어문잡지사.
박형익. 2017. 『큰사전』의 사전편찬사적 의의, 『조선말 큰사전 완간 60돌 기념 강연』 5-40. 한글학회.
이병근. 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조재수. 2021. 『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 - 우리말 거두기와 정리의 역사 -』. 한글학회.
한용운. 2017. 『큰사전』과 우리말 사전, 『조선말 큰사전 완간 60돌 기념 강연』 41-59. 한글학회.

제1부 주제 발표

『큰사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조태린

국어사전의 발자취/ 한용운

『큰사전』에 수록된 문학 관련 항목과 표제어의 의미/ 유춘동

『큰사전』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남길임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 ~ 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큰사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조태린

연세대학교 교수
trcho@yonsei.ac.kr

1. 머리말

이 글은 『큰사전』의 위상과 역할을 사회언어학적, 언어정책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큰사전』이 편찬되기까지의 사회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사전 편찬의 사회언어학적 의미와 기능을 언어 근대화의 수단이지 결과, 언어 규범의 통일과 정립, 국민어 형성의 도구이자 표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큰사전』이 그러한 위상과 역할에 부합했는지를 평가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 작업의 일환으로 위의 세 가지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몇몇 표제어들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설명되었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2. 『큰사전』 편찬의 사회역사적 배경

『큰사전』의 편찬은 당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것이 가능하기까지는 한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앞선 노력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자의 소리와 뜻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발간된 학습서나 실학(實學)의 등

장과 함께 활성화된 어휘집이 편찬되었던 시기를 한국어 사전 편찬의 ‘준비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대적 언어 사전으로서의 구성(배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대역(對譯) 사전이 등장한 조선 말기를 한국어 사전 편찬의 ‘태동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병근 1985, 남기심 1988). 이러한 대역 사전이 모두 언어 학습자를 위한 이중어 사전이었다면, 본격적인 한국어 단일어 사전 편찬의 시작은 1911년 조선광문회에서 주시경의 주도로 추진한 『말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응호 1977, 김민수, 1988, 이병근 2000). 『말모이』는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한국어 사전 편찬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유현경 2011 : 188).

일제 강점기에는 최종 발간에 이른 한국어 관련 사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과 1938년 문세영이 발간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이 대표적이다. 먼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은 애초에는 조선어 단일어 사전과 조선어-일본어 이중어 사전의 기능을 겸하도록 기획되었다가 최종 출판 단계에서 조선어 뜻풀이가 삭제되고 일본어 뜻풀이만 남아 이중어 사전이 된 것인지(안예리 2017), 조선어 뜻풀이가 일본어 뜻풀이를 위한 대본 역할을 했을 뿐이며 처음부터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조선어-일본어 이중어 사전으로만 기획된 것인지(최경봉 2017a)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5만 8천여 개의 어휘를 수록한 이 사전이 조선 말기에 등장한 대역 사전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근대적 언어 사전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한국어 사전의 편찬에 상당한 자극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은 최종적인 모습이 일본인을 위한 조일(朝日) 이중어 사전일 뿐만 아니라 가나자와 쇼자부로(金澤庄三郎)가 편찬한 『辭林』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일조(日朝) 이중어 사전으로 발간한 『선역국어대사전(鮮譯國語大辭典)』과의 체제상 상관성이 추정된다는 점(최경봉 2017a : 14-15) 등을 고려하면 온전한 의미에서의 한국어 사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은 정식 발간된 최초의 한국어 단일어 사전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이 사전 이전에도 1925년 심의린이 편찬한 『보통학교 조선어사전(普通學校 朝鮮語辭典)』이 발간되기도 했지만, 당시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을 풀이한 소규모 학습사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한국어 사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황용주 2016 : 102).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은 이희승의 주장처럼 이윤재의 원고를 도용했는지(이병근 1993 : 10), 아니면 이윤재의 지도를 받아 문세영이 직접 교정하고 작성한 것인지(박용규 2011 : 449)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은 10여만 개의 어

휘를 수록하면서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까지 충실히 반영한 최초의 한국어 중형사전으로서 당대에 많은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까지도 이름을 조금씩 바꾸어 가며 지속적으로 간행되었고(황용주 2016 : 103-104). 해방 이후의 한국어 사전 편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정식 발간된 최초의 한국어 단일어 사전이라는 칭호는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 돌아갔지만, 『큰사전』의 편찬 작업이 문세영의 『조선어사전』보다 더 늦게 시작되었거나 더 느슨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큰사전』은 1911년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던 『말모이』와 인적, 물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이어져 있고(최경봉 2019 : 129-130), 편찬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도 문세영이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1929년으로 같았다. 『큰사전』이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된 지 18년 만에 1권이 간행되고 1957년 6권까지 완간되기까지 다시 더 10년이 필요했던 것은 수록 어휘 수의 증가 외에도 조선어학회 사건 등 편찬을 방해했던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큰사전』은 언어 근대화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언어 규범의 통일과 정립으로서, 그리고 국민어 형성의 도구이자 표상으로서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앞섰던 다른 근대 국민국가의 자국어 사전에서 발견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 강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근대 국민국가의 독립적 형성이 지연되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큰사전』은 다른 국민국가의 자국어 사전과는 구별되는 특수성도 가지게 되었다.

3. 언어 근대화의 수단이자 결과로서의 『큰사전』 편찬

근대화 과정에서 언어의 역할과 해당 시기의 언어 정책 및 계획은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는데(Rubin & Jernudd 1971 : ix), 특히 ‘언어 근대화(language modernization)’는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언어 발전(language development)’과 동일시되면서 언어 정책 및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Fishman 1973 : 32). 이는 언어 근대화가 언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넘어 국가 건설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Ricento 2006 : 13). 언어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언어 근대화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도 언어에 새로운 형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언어 개신(language innovation)’과 함께 자료 계획(corpus planning)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Hornberger, 2006 : 29).

이러한 언어 근대화는 근대 이후 새롭게 형성된 분야에서 국민의 언어 능

력 또는 문해력(literacy)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어휘 근대화(lexical innovation)’와 ‘문체 근대화(stylistic innov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사전 편찬은 전자인 어휘 근대화의 대표적 수단이자 결과였다. 사전 편찬은 표준 문법서 발간과 함께 하나의 언어가 말하기를 넘어 글쓰기 수단으로서의 문어로 발달하는 단계에서 언어의 구조와 규칙에 대한 메타언어적 지식의 토대를 제공하는 ‘문법도구화(grammatisation)’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Auroux 1992 : 28), 그 언어가 근대 국민국가에서 표준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공식성과 제도성을 획득하는 인위적 과정으로서의 ‘성문화(codification)’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Eastman 1983 : 71-72, Lapierre 1988 : 31).

『큰사전』 역시 그러한 어휘 근대화의 수단이자 결과였음은 물론이다. 『큰사전』에 등재되고 뜻풀이된 근대적 단어들이 모두 『큰사전』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정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큰사전』은 그러한 근대적 단어들을 표제어로 공인하고 뜻풀이를 통해 개념의 표준화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큰사전』에 실린 근대적 단어들은 외래문물과 새로운 지식 또는 개념이 처음으로 전해지던 소위 ‘개화기’에 전통적 한자어의 전용에 의한 의미 개신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이른바 ‘신문명 어휘’가 대부분이었다(송민 2000). 신문명 어휘는 과거의 전통적 한자어가 아니라 신문명이나 새로운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났거나, 의미 또는 어형에 개신이나 변화를 겪은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신문명 어휘의 대부분은 근대 일본어에 새로 등장하는 한자어 신조어로서 그 중의 상당수는 서구 언어의 단어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당시에는 “청과 조선을 ‘근대화’ 전의 사회로 비슷하게 보고, 일본을 서구와 비슷한 ‘근대화’된 사회라는 구도 속에서 어휘가 유입되고 번역”되었기 때문이다(서민정 2009 : 15).

신문명 어휘의 한 예로 ‘감찰(監察)’과 ‘경제(經濟)’는 과거에는 ‘사헌부(司憲府)의 한 벼슬’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라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큰사전』의 뜻풀이에서는 ‘감시(監視)하여 살핍’과 ‘넓은 뜻으로는 사람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재물(財物)을 얻어 이용하는 일체의 활동. 좁은 뜻으로는 상품 생산(商品生産)이 지배적(支配的)인 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그들의 물질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로 사이에 결연(結連)되는 여러 가지 생산 관계’라는 근대적 의미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어의 의미 개신은 일본어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렇게 개신된 의미가 한국어에도 수용되었다(송민 2000 : 31-36).

이처럼 기존 한자어의 의미 개신을 통해 근대적 의미를 획득한 신문명 어

회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당시 한국어의 어휘 근대화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었고 『큰사전』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은 물론이다. 전문화, 특수화에 의한 근대적 의미 개신이 이루어진 ‘공업(工業)’, ‘대학(大學)’, ‘마력(馬力)’, ‘문과(文科)’, ‘문법(文法)’, ‘문체(文體)’, ‘분수(分數)’, ‘석사(碩士)’, ‘연골(軟骨)’, ‘학사(學士)’ 등이나 분화, 전용에 의한 근대적 의미 개신이 이루어진 ‘문장(文章)’, ‘발표(發表)’, ‘발명(發明)’, ‘방송(放送)’, ‘사회(社會)’, ‘산업(產業)’, ‘생산(生産)’, ‘신인(新人)’, ‘요리(料理)’, ‘운전(運轉)’, ‘입학(入學)’, ‘자연(自然)’, ‘조회(朝會)’, ‘중심(中心)’, ‘창업(創業)’, ‘학생(學生)’, ‘헌납(獻納)’, ‘희생(犧牲)’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송민 2000).

『큰사전』이 이처럼 근대적 의미를 획득한 신문명 어휘를 등재하고 뜻풀이하는 방식으로 어휘 근대화를 추진했는데, 정작 『큰사전』에서는 근대 또는 근대화 관련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큰사전』에서 ‘근대(近代)’는 “얼마 지나가지 않은 가까운 시대(時代)”, “역사상(歷史上)으로 중고(中古)의 이후와 현대(現代)의 이전과의 사이” 등의 의미로 풀이되었고, ‘근대성(近代性)’은 “근대(近代)에 맞게 발전된 경향(傾向), 또는 성질(性質)”로 뜻풀이되었다. 이러한 뜻풀이에서 주목할 것은 ‘근대’가 단지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근대’를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모습은 현재의 국어사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근대는 그저 특정한 역사적 시기를 가리키는 개념일 뿐이다.

『큰사전』에 ‘근대화(近代化)’라는 표제어가 등재되었다면, 근대와 발전을 연결하는 당시의 인식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아쉽게도 『큰사전』에는 ‘근대화’가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았다. 다만 근대화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개화(開化)’라는 표제어가 등재되어, 근대에 대한 당시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근대 초기 『한영조년』(1897)에서 ‘개화’는 외국과의 교류(intercourse with foreign nations), 정치적 개혁(political reform) 등의 의미로 풀이되었고, 그 반대말이 ‘슈구(守舊)’로 제시되었는데 그 의미는 오래된 관습을 지키기(standing by old customs), 보존(conservation) 등으로 풀이되었다(서민정 2009 : 21에서 재인용). 여기서는 ‘개화’가 ‘수구’와 비교되면서 외교와 정치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큰사전』에서는 ‘개화’의 의미가 좀 더 일반화되면서, “사람의 지혜가 열리고, 사상(思想)과 풍속(風俗)이 진보됨.”이라고 풀이되었는데, 여기서도 개화는 ‘지혜의 열림’, ‘진보’ 등처럼 발전과 연결되는 긍정적 개념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큰사전』의 이러한 뜻풀이는 1991년 한글학회에서 발간

한 『우리말 큰사전』(사람의 지혜가 열리어,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가지게 됨)에서는 물론이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사람의 지혜가 열려 새로운 사상, 문물, 제도 따위를 가지게 됨)에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개화’는 후대의 사전들에서도 지혜가 열린다는 등의 긍정적 개념으로 뜻풀이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명시적으로 발전이나 진보 등의 개념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상에서 『큰사전』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흐름 속에서 근대 또는 근대화를 발전 또는 진보로 인식하면서 어휘 근대화를 주요한 편찬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어휘 근대화의 수단이자 결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자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언어 규범의 통일과 정립으로서의 『큰사전』 편찬

‘규범(norme)’과 ‘규범화(normalisation)’는 언어 공동체 전체에서 권위 있고 규정화된 모델의 형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방언 간 의사소통을 위한 자연발생적 수단의 출현에 주목하는 ‘코이네(koine)’¹⁾와 ‘코이네화(koinéisation)’²⁾와 구분된다. 사실 규범은 언어학에서 가장 모호하고 다의적인 용어 중 하나이지만, 규범의 개념에 대한 모든 정의는 선택과 사용 규제, 사회적 집단의 압력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Helgorsky 1982 : 1-8).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고, 규제되며, 압력이 행사되는 규범은 위로부터 부과되는 행위가 아니라 화자들이 자발적 합의에 따라 공유하는 ‘언어적 상상력(imaginaire linguistique)’에 기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oudebine 1982 : 42).

따라서 규범화는 문법도구에 의해 안정화된 변종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표준화와 구별될 수 있다(Baggioni 1994 : 28). 규범화에서는 규범이 암시적으로 기능하지만, 표준화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Robillard 1997 : 215). 또한 규범화는 코이네화

1) 코이네는 원칙적으로 방언 사용 공간에서 안정화되고 확장된 문예 변종으로(Baggioni 1998: 130), 매개 언어(langue véhiculaire)로 사용되는 언어 변종일 뿐만 아니라 접촉의 상황에 놓인 방언들이 혼합된 변종이기도 하다(Siegel 1985: 363). 따라서 코이네는 역사적으로는 혼합되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안정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2) 방언 혼합으로서의 코이네화의 기본적인 과정은 ‘균등화(levelling)’와 ‘단순화(simplification)’이다(Trudgill 1986: 107-108). 코이네화는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협력을 어렵게 하는 변이형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의 원래 방언을 균등화하고 단순화하면서 서로 간에 언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Lodge 1999: 55).

와도 구별될 수 있는데, 코이네화가 서로 다른 방언들의 상호작용과 혼합을 통해 새로운 변종이 형성되는 수렴적(convergent) 과정에 주된 관심을 둔다면, 규범화는 하나의 방언(당연하게도 상위 또는 지배 계층의 방언)이 권위 있는 규범의 지위에 오르면서 다른 방언들(대부분 하위 또는 피지배 계층의 방언들)을 열등한 것으로 낙인찍는 분산적(divergent) 과정에 주목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 편찬은 그 사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자발적 합의에 따라 공유하는 암시적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법령 또는 제도(예를 들어, 한국의 ‘표준어 규정’처럼)를 통해 시행하는 언어 ‘표준화(standardization)’는 명시적 규범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Eastman 1983 : 71-72). 그런데 하나의 언어가 규범화 또는 표준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문화(codification)’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성문화는 문법도구화와 마찬가지로 사전, 문법서, 철자법 등과 같은 메타언어적 수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수반하지만, 문법도구화가 언어의 내적 구조와 규칙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면서 문어가 발전하는 자연스러운(in vivo) 과정이라면, 성문화는 규정적 규칙으로서의 표준어가 공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제정되는 인위적(in vitro)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성문화는 단지 성문화된 규범의 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문화된 규범을 적용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Garvin & Mathiot 1956 : 784). 성문화를 통해 규정적 규범은 향후 완성될 국민어의 형식적 기반이 되는 언어 형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획득한다. 물론 이러한 암시적 규범 형성으로서의 규범화와 명시적 규범 형성으로서의 표준화는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처럼 국가 차원의 규범 사전 편찬을 통해 통합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큰사전』의 편찬을 통한 한국어의 성문화 과정은 해당 사전의 편찬자 또는 편찬기관의 권위를 당시의 한국어 사용자들이 자발적 합의에 따라 공유하는 암시적 규범화의 과정이자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화는 앞서 언급한 근대화 또는 근대성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한국어에 대한 규범화 의식은 근대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최경봉 2016 : 31). 한국어에 대한 근대적 인식은 한국어를 대상화하는 인식(이병기 2014)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국어를 주체의 의지에 따라 조작, 개량, 통제할 수 있다는 관점(안예리 2016)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후자와 같이 한국어를 객체화하여 그 규범을 목적의식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규범화 의식은 근대 국민어 의식의 형성 과정에서 태동하고 발전된 것이었으며(조태린 2009, 김병문 2013), 1929년 『큰사전』 편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발기인 108명의 이름으로 발표한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에는 그러한 근대적 규

범화 의식이 잘 반영되고 응축되어 있었다.

“조선의 언어는 상술한 것처럼 어음, 어의, 어법의 각 방면으로 표준이 없고 통일이 없음으로 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朝夕이 상이하고 동일한 사실로도 京鄕이 不一할 뿐 아니라, 또는 語義의 未詳한 바이 있어도 이를 질정할 만한 준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감정은 원만히 소통되고 완전히 이해될 길이 없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의 향상과 보급은 막대한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금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축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현할 최선의 방법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어사전편찬회의 모태가 되었던 조선어학회는 1908년 국어연구학회로 출발하여 조선언문회, 조선어연구회 등의 이름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선어문의 연구라는 한결같은 목적을 내세웠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에는 ‘연구’ 외에 조선어문의 ‘통일’이라는 목적을 회칙에 처음 명시하면서 한국어의 규범화 작업에 학회의 인적, 물적 역량 대부분을 집중했다(리의도 2013 : 140). 그리고 이러한 조선어문의 통일 작업으로는 ‘한글마춤법통일안’의 제정이나 표준어 사정과 같은 직접적인 어문규정의 제정만이 아니라 그러한 어문규정을 반영하여 일반인들에게 좀 더 실용적인 언어 규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조선어사전의 편찬도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다만 한국어의 규범화를 최우선 목표로 했던 『큰사전』의 편찬은 애초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정치, 사회적 여건에서 찾을 수 있고, 이차적으로는 해방 후에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초고의 교정과 보완 작업에 1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해방 후 서울역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큰사전』의 원고는 “잘못된 곳, 미흡한 곳, 어긋나는 것, 공란 등(밑줄)이 많고, 체계를 통일하여 재정리해야 할 무자 그대로 草稿였다. 결국 해방 전의 원고인 이 초고는 매우 부실하여 그 시기에도 校正만으로 出版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한다(김민수 1996 : 17). 이처럼 『큰사전』의 편찬은 한국어 규범 사전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기에 시작되었지만, 최종적인 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면서 그러한 욕구를 제때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어 규범 사전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했던 기간과 영향력도 축소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큰사전』은 이후 발간된 이회승의 『국어대사전』(1961), 신기철·

신영철의 『새 우리말 큰사전』(1975),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1991), 김민수 등의 『국어대사전』(1991) 등 민간에서 발간한 대사전 규모의 국어사전들은 물론이고 국가 차원의 규범 사전으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한용운 2019). 이는 『큰사전』이 한국어 규범 사전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계승의 관점에서든 비판의 관점에서든 후속 한국어 대사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 규범의 통일과 정립을 목적으로 했던 『큰사전』에서 규범 또는 언어 규범과 관련한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규범(規範)’은 『큰사전』에서 “모범이 될 만한 제도(制度)”라는 의미의 ‘규모(規模)’와 동의어로 우선 제시되었고 철학 분야에서는 “우리의 사상(思想), 행위(行爲), 정조(情操)가 일정한 이상(理想)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땅히 밟아야 할 법칙이나 원리. 논리(論理)의 진(眞), 예술의 미(美), 도덕의 선(善) 따위”라는 뜻풀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뜻풀이는 당시의 규범이라는 단어가 아직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현재의 일반적 의미와 조금 거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큰사전』에서는 오히려 “규칙(規則)으로서의 작정(作定). 또는 그 작정한 조문(條文)이나 표준(標準)”이라고 뜻풀이된 규정(規定)이 현재의 ‘규범’ 개념과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큰사전』에서는 ‘어문규범’ 또는 ‘언어규범’ 등과 같은 표제어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큰사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문규범의 하나인 ‘맞춤법’이 영어 ‘스펠(spell)’ 또는 ‘철자법(綴字法)’의 동의어로 제시되거나 다른 단어의 뜻풀이 과정에서 한번 등장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독립된 표제어로는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에 ‘표준어’는 “한 나라의 표준이 되는 말”로 뜻풀이된 ‘표준말’의 동의어로 제시되더라도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이처럼 『큰사전』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규범’ 또는 ‘어문규범’의 개념이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큰사전』 편찬의 주요 목표는 조선어문의 정비와 통일, 다시 말해서 한국어 규범의 통일과 정립에 있었음은 분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국민어 형성의 도구이자 표상으로서의 『큰사전』 편찬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언어는 국민 의식 형성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표상이었고, 국민 의식 형성에 기여하는 언어는 ‘국민어(national

language)’³⁾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을 실용적으로 선택한 결과로 간주되기보다 국민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국민정신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간주된다(Hobsbawm 1992 : 95). 국민어로서의 정립을 위해서는 해당 언어를 대중적으로 통속화하는 과정과 해당 언어가 올바른 것임을 인증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형식	기능
언어	성문화	정교화
사회	선택	수용

<표 1> 표준화에 대한 Haugen(1966/1972 : 110)의 이론 모델

위와 같이 표준화의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한 Haugen의 이론 모델에서 언어의 형식과 기능에 관련되는 성문화와 정교화는 표준어가 인위적으로 제정되는 데 필요한 과정들로 이해하는 것에 별문제가 없지만, 사회가 특정 언어의 형식을 선택(selection)하고 기능을 수용(acceptance)하는 것은 국민어가 정립되는 데 필요한 과정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국민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성문화와 정교화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어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에 의해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재이든 허구이든 공통의 과거로부터 재구성되는 국민적 상징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과정 중 하나가 ‘문맹 퇴치와 학교교육화’이고, 또 다른 하나가 ‘역사화와 순화’이다.

먼저 ‘문맹 퇴치(alphabétisation)’는 일반적으로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쓰기와 읽기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읽고 쓰기 교육은 학교 제도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국민어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학교 제도 내에서 더 효과적이고 더 대규모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맹 퇴치는 ‘학교교육화(scolarisation)’와 함께 이루어진다. 하지만 문맹 퇴치에 대한 논의들 대부분은 학교교육과 상관없이 하나의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 읽고 쓰기 능력을 교육하는 ‘기능적 문맹 퇴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Tirvassen 1997 : 26). 따라서 문맹 퇴치와

3) 영어의 national language는 흔히 ‘민족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근대적 의미에서의 nation은 혈연적, 지리적 공동체이기보다는 정치적, 역사적 공동체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민족어보다 국민어가 더 적절하다.

학교교육화는 서로 연관되지만 구별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맹 퇴치와 학교교육화는 대규모의 집행 수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므로 특정 개인이나 기관보다는 정부 당국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그것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공식적이고 대대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문맹 퇴치와 학교교육화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문맹 퇴치의 목적임과 동시에 학교교육화의 수단인 국민어는 이렇게 형성되고 정립된다. 전국의 학교 체계를 통해 읽고 쓰기를 교육함으로써, 정부 당국은 국민어와 국민 의식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문맹 퇴치와 학교교육화는 국민어 정립을 완료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문맹 퇴치와 학교교육화를 위해서는 국민어로서의 규범 또는 표준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전 편찬은 그러한 규범 또는 표준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다음으로 ‘역사화(historicisation)’은 국민어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 언어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국민의 기원과 연속성에 대한 신화는 이데올로기적이지만 효과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 형성이라는 기발한 상상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매일매일 구성된다(Balibar 1988 : 118). 따라서 역사화는 국민어가 지속되는 역사와 존경할 만한 조상, 정당성과 오랜 계보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Milroy 2001 : 548-549). 이렇게 재구성된 역사가 국민어의 우월성을 전파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역사화의 과정에서 국민어는 가능한 한 순수하고 혼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 간 상호작용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긴 역사를 가진 언어에서도 어휘나 문법에서 발견되는 외래적 요소의 존재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화는 언어의 순결을 옹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올바른’ 용법을 제시하는 ‘순화(purific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순화의 주요 작업은 일종의 성문화와 정교화이기도 하므로 언뜻 보기에는 표준화와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현재 지향적인 표준화와 달리, 순화는 오히려 과거 지향적이고, 근대화의 필요성 앞에서 후퇴하는 경향마저 보인다는 점에서 반근대적어도 하다(Eastman 1983 : 207). 흔히 역사화는 특정 개인에 의해 수행되고 순화는 정부 당국과 관련된 어떤 조직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국민어에 어떤 권위와 진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화와 순화는 국민어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구성하는 단계이다.

중사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전 편찬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언어의 옛말 또는 고유어를 표제어에 올리고 뜻풀이하는 작업을 중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어를 역사화하는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순화는 대부분의 기술 사전에서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일부 규범 사전에서만 중요하게 고려된다. 사실 순화는 국가나 사회 주도 세력에 의해 일종의 운동(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의 일부만이 사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큰사전』에는 ‘국민어(國民語)’라는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와 유사한 ‘국어(國語)’라는 표제어만 등재되어 있으며, 그 뜻은 ‘국민 전체가 쓰는 그 나라의 고유한 말’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어라는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큰사전』 편찬 당시에 국민어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큰사전』에는 ‘국민(國民)’, ‘국민성(國民性)’, ‘국민정신(國民精神)’, ‘국민주의(國民主義)’ 등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었으며, 그 뜻풀이에서는 ‘국민’이 인종이나 혈통을 강조하는 ‘민족(民族)’이나 ‘겨레’와 달리 근대적 국민국가를 상징하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큰사전』에서의 국어는 국민어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어에서 국어는 국민의 혼이자 국민성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으로서의 ‘국민어’,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 체제와 국민국가 수립에 필수적인 ‘표준어’, 행정 등의 공공분야에서 실용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용어’, 국가 차원에서 그 지위와 기능을 인정받은 ‘국가어’ 등의 지위와 기능을 동시에 갖는 용어이기 때문이다(조태린 2006 : 389).

다만 조선총독부의 삼엄한 감시와 검열이 이루어지던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어를 국민어로 지칭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국민 또는 국가는 민족 또는 겨레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일제 강점기의 한복판인 1929년에 발표된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에서는 조선 민족이 언어와 문자를 소유하면서도 아직 사전 한 권 갖지 못한 것을 조선 민족의 문화적 한계이자 수치라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해방 이후 쓰인 『큰사전』의 머리말에까지 거의 같은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경봉(2017b)이 『큰사전』의 이데올로기를 ‘어문민족주의’로 명명한 까닭을 이해할 수 있다.

6. 맺음말

〈참고 문헌〉

- 김병문. 2013. 언어적 근대의 기획: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 김민수. 1983. 『말모이』의 編纂에 대하여, 동양학 13, 21-54.
- 김민수. 1996. 「큰 사전」과 健齊 - 한글학회, 「큰 사전」 編纂史와 鄭寅承 主幹, 어문연구 24(4), 14-21.
- 남기심. 1988. 국어사전의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사전편찬학연구 1, 7-34.
- 리의도. 2013. 어문규범 갖추기에 쏟은 조선어학회의 노력, 국제어문 59, 137-185.
- 박용규. 2011. 이회승의 문세영 『조선어사전』 비판에 대한 검토, 국학연구 18, 427-453.
- 서민정. 2009. 국어 어휘의 유럽중심주의적 의미 획득 양상 -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전의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3, 7-29.
- 송민. 2000. 開化期 國語에 나타나는 新文明 語彙, 어문학논총 19, 25-57.
- 안예리. 2016. 언어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언어의 근대화, 언어사실과 관점 39, 81-105.
- 안예리. 2017.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경위 - ‘조선사서원고’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0, 67-99.
- 이병근. 1985.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 국어생활 7, 8-35.
- 이병근. 1993. 일제하에서 간행된 유일한 우리말사전(한국근대사와 책의 사회사 6 -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출판저널 127, 10-11.
- 이병근. 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병기. 2014. ‘국어’의 언어적 근대는 기획된 것인가 - 김병문, 『언어적 근대의 기획: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2013), 개념과 소통 14, 223-243.
- 이응호. 1977. 《조선광문회》의 ‘말모이’(국어사전) 엮기, 明大論文集 10, 57-98.
- 조태린. 2006.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 363-394.
- 조태린. 2009. 근대 국어 의식 형성의 보편성과 특수성 - 언어와 국민 사이의 관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39, 81-108.
- 최경봉. 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 최경봉. 2017a. 조선총독부編 《朝鮮語辭典》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국어학 81, 3-38.
- 최경봉. 2017b. 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 한국사전학 30, 37-66.
- 최경봉. 2019. 우리말의 탄생 - 최초의 국어사전 만들기 50년의 역사(개정판), 책과함께.
- 한용운. 2019. 현대 국어사전의 편찬 목적과 그 특징 - 『큰사전』을 중심으로, 한글 80(3), 659-686.
- 황용주. 2016. 《朝鮮語辭典》의 편찬과 현대 한국어문학 - 《朝鮮語辭典》의 출판 이력과 사전 ‘일러두기’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2, 99-132.
- Auroux, S.(1992), Introduction: Le processus de grammatisation et ses enjeux, In S. Auroux(dir.),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Tome 2, Le développement de la grammaire occidentale, 11-64, Liège: Mardaga.
- Baggioni, D.(1994), Norme linguistique et langue(s) nationale(s) : variété des

- processus de construction des identités linguistiques nationales dans l'espace européen passé et présent, In J.-M. Kasbarian(éd.), *Genèse de la (des) norme(s) linguistique(s)*, 27-53, Aix-en-Provence: Publications de l'Université de Provence.
- Baggioni, D.(1998), *Langue commune versus langue nationale*, In R. Delamott-Legrand & B. Gardin(éds.), *Covariations pour un sociolinguiste – Hommage à Jean-Baptiste Marcellesi*, 127-137, Rouen: Publication de l'Université de Rouen.
- Balibar, E.(1988), *La forme nation: histoire et idéologie*, In E. Balibar et I. Wallerstein, 1988/1997,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s ambiguës*, 117-143, Paris: La Découverte.
- Eastman, C. M.(1983), *Language Planning: An introduction*, San Francisco: Chandler & Sharp Publishers, Inc.
- Fishman, J.A.(1973), *Language modernization and planning in comparison with other types of national modernization and planning*, *Language in Society* 2(1), 23-43.
- Garvin, P. L. & Mathiot, M.(1956), *The urbanization of the Guarani language – A problem in language and culture*, In A.F.C. WALLACE(ed.), *Men and Cultures – Selected paper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sciences*, 783-79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ugen, E.(1966), *Dialect, language, nation*, In J. B. Pride & J. Holmes(1972)(ed.),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97-111, Harmondsworth: Penguin.
- Helgorsky, F.(1982), *La notion de norme en linguistique*, *Le français moderne*, 50(1), 1-14.
- Hobsbawm, E. J.(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rnberger, N.H.(2006), *Framework and models in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In Th. Ricento(ed.), *An introduction to language policy: Theory and Method*, Oxford: Blackwell, 24-41.
- Houdebine, A.-M.(1982), *Norme, imaginaire linguistique et phonologie du français contemporain*, *Le français moderne*, 50(1), 42-51.
- Lapierre, J.-W.(1988), *Le pouvoir politique et les langues: Babel et Leviathan*, Paris: PUF.
- Lodge, R. A.(1999), *Convergence and diverg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Paris urban vernacular*, 51-68, *Sociolinguistica*, 13.
- Milroy, J., 2001, *Language ideologies and the consequences of standardization*, *Journal of sociolinguistics*, 5(4), 530-555.
- Ricento, Th.(2006), *Language policy: Theory and practice – An introduction*, In Th. Ricento(ed.), *An introduction to language policy: Theory and Method*,

- Oxford: Blackwell, 10-23.
- Robillard, D. de(1997), Normalisation, In M.-L. Moreau(éd.), Sociolinguistique: Concepts de base, 214-215, Liège: Mardaga.
- Rubin, J. and Jernudd, B.H.(1971), Preface, Rubin, J. and Jernudd, B.H.(eds.), Can language be planned? Sociolinguistic theory and practice for developing nations, Hawaii: University Press of Hawaii, viii-x.
- Siegel, J.(1985), Koinés and koineization, Language in Society, 14(3), 357-378.
- Tirvassen, R.(1997), Alphabétisation fonctionnelle, In M.-L. Moreau(éd.), Sociolinguistique : Concepts de base, 26-31, Liège: Mardaga.
- Trudgill P.(1986), Dialects in Contact, Oxford: Blackwell.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 ~ 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국어사전의 발자취

한용운

전 거래말큰사전편찬사업회 편찬실장
hyw6710@hanmail.net

국어사전의 발자취

한 용 운(동국대)



국어사전의 발자취

한 용 운(동국대)

1.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 1.1. <말모이> 편찬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전편찬자
- 1.2. <말모이>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3. 분단 이후의 남북 사전

- 3.1. 분단 이후의 남한 사전
 - 1) <한글맞춤법> (1988) 이전의 국어사전
 - 2) <한글맞춤법> (1988) 이후의 국어사전
-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 1) <조선말규범집> (1966) 이전의 뜻풀이사전
 - 2) <조선말규범집> (1966) 이후의 뜻풀이사전

4. 맺음말

1.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 우리말 표제어에 우리말 풀이를 시도한 최초의 사전

1.1. <말모이> 편찬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전편찬자

1) 시대적 상황

가) 한일 병합 후 일본의 조선 교육령(1911년 ~ 1945년) 시행

- 한일 병합(1910) 직후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교육령 공포(1911년)
- 조선 교육령의 목표: 조선인의 민족의식과 민족문화, 민족어를 말살하여 조선인을 일본에 '충성스럽고 선량한 식민지인'으로 양성하고자 함.

나) 항일 의병투쟁 및 애국계몽운동 전개

-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은 무장 항일 투쟁과 민중 계몽 운동을 벌임.
- 계몽 운동의 목적은 **국문 교육을 통한 민중 계몽**

1.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1.1. <말모이> 편찬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전편찬자

1) 시대적 상황

다) 사전 편찬 기반 불비

- 표기법
- 표준어
- 표준 문법
- 표준 문체(한문/국한문혼용/국문)
- 말뭉치(corpus) 등 언어 자료

2) 사전편찬자

가) 주시경(1876~ 1914)

- **배재학당** 수학, 관립이운학교(官立利運學校) 졸업
- 『국문문법』(1905), 『대한국어문법』(1906), 「**국문연구안**」(1907~1908), 『**국어문법**』(1910) 등 저술
(※ 음소(音素, phoneme)에 해당하는 '**고나**', 어소(語素, morpheme)에 해당하는 '**낫씨**' 설정)
- 영국 선교사 **스크랜턴**(Scranton, W. B.)의 한어 교사
- 신문 표기 통일을 위한 '**국문통식회**' 조직, 학부 국문연구소 연구위원(1907), 국어연구학회 운영, **조선광문회 사전편찬 활동**
- **형태주의적 철자법**, **한자 폐지와 한자어 순화**, **한글 풀어쓰기** 등 진보적 어문 정책 방향 제시
- **사전편찬 및 국어학 관련 인재 양성**(권덕규, 김두봉, 신명균, 이규영, 정열모, 장지영, 최현배 등)

2) 사전편찬자

나) 김두봉(1889~1960)

- 기호학교(畿湖學校)와 **배재학당**에서 수학
- **조선광문회의 《말모이》 편찬 사업 참여**, 『조선말본(精解朝鮮語文典)』(1916), 『**김두봉조선말본**』(1922) **편찬**
- 조선독립동맹(朝鮮獨立同盟) 주석, 김일성대학 총장, 북조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다) 권덕규(1890~1950)

- 휘문의숙(徽文義塾) 졸업(1913년)
- **조선광문회의 《말모이》 편찬 사업 참여**, 휘문의숙·중앙학교·중동학교 등에서 국어 및 국사 강의, 조선어강습회 강사,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참여**
- 《조선어문경위(朝鮮語文經緯)》(1923), 《조선유기(朝鮮留記)》(1924) 등 편찬

2) 사전편찬자

라) 이규영(1890~1920)

-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 오성학교(五星學校) 졸업(1911년)
- **조선광문회의 《말모이》 편찬 사업 참여**
- 『온갖것』(1912~1913년경), 『**한글모죽보기**』(1907~1917년 필사), 『한글적새』 6권(1916~1919년, 필사본), **현금조선문전**(現今朝鮮文典)(1920년, 초·중등 학교용 한글 문법서) 등 저술

3) <말모이>의 편찬 목적과 사전의 구조

가) <말모이> 편찬 목적:

… 조선 말노 문법 책을 정밀 하게 몬드어서 남녀 간에 글을 볼 때에도
그 글의 뜻을 분명히 알아 보고 글을 지을 때에도 법식에 뒀고
남이 알아보기에 쉽고 문리와 경계가 밝게 짓도록 글으쳐야 하겠고
또는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몬드려라 할지라
옥편을 몬드자면 각식 말의 글조들을 다 모으고 글조들 마다 뜻들도
다 자세히 널연니와 불가불 글조들의 음을 분명하게 표 하여야 할터인디 …

주상호(주시경), ‘국문론’, 『독립신문』 1897. 9. 25.(歷代韓國文法大系 3 06, 26~27쪽에서 재인용))

나) <말모이> 이전의 사전 편찬 관련 자료

ㄱ) 표제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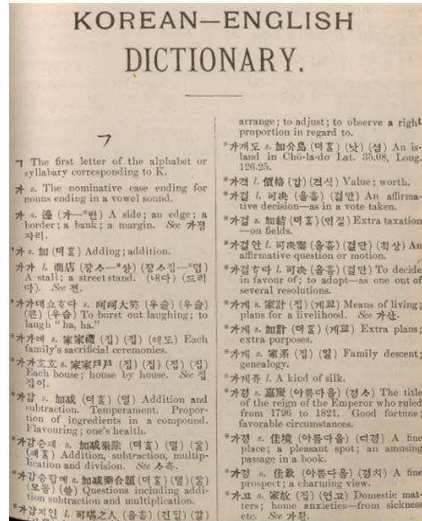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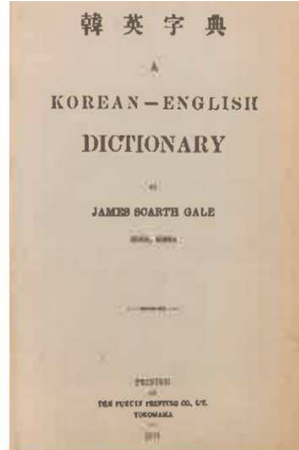


속자, TCHYOU-S	속자, TCHYOU-TCH
ler. Se retirer de; se dégager de; se mettre de côté; échapper à une mauvaise position; s'éloigner d'une mauvaise compagnie.	*속자, TCHYOU-TCH. 微子. Noix, sorte de noix qui vient sur le 가려나무 Ka-rai-na-mu.
*속자, TCHYOU-SYU-SI-TA. 秋收. Moissonner, vendanger, recueillir la récolte d'automne, c. a. d. le riz; faire la récolte.	*속자, TCHYOU-TCHU-SI. 秋節. Temps de l'automne, saison de l'automne.
속자, TCHYOU-TA, TCHYOU-S, TCHYOU. 抄器. Nettoyer, trier, enlever les matières étrangères, purifier en secouant.	*속자, TCHYOU-TCHU-SI. 追贈. Dignité posthume, dignité accordée après la mort, pour honorer la mémoire d'un individu.
속자, TCHYOU-TA, TCHYOU-S, TCHYOU. 面譽. Flatter.	*속자, TCHYOU-TCHU-SI. 追尊. Dignité accordée aux ancêtres d'un grand dignitaire.
속자, TCHYOU-TA, TCHYOU-S, TCHYOU. 舞. Danser, sauter.	*속자, TCHYOU-TCHU-SI-TA. 趨從. Suivre, aller à la suite; imiter; être aux ordres de.
*속자, TCHYOU-TCHU-SI. 提德. Les quatre vertus cardinales.	*속자, TCHYOU-TCHU-SI-TA. 提促. Arrêter un comptable; s'emparer d'un criminel, le prendre. Prendre le père, ou l'ancien, ou le chef du village à la place de celui qu'on cherche et qui s'est enfui.
속자, TCHYOU-TCHU-SI-TA. 提德. Se dessécher (plante), être desséché.	*속자, TCHYOU-TCHU-SI-TA. 趨從. S'aller, marcher le corps courbé (par respect); se courber en passant devant, se prosterner.
*속자, TCHYOU-TCHU-SI-TA. 提德. Préférer, remettre, différer sous un prétexte.	*속자, TCHYOU-TCHU-SI-TA. 趨從. S'aller, marcher le corps courbé (par respect); se courber en passant devant, se prosterner.
*속자, TCHYOU-TCHU-SI-TA. 提德. Science expérimentale, connaissance acquise. 二 學다 - 나-타, Apprendre peu à peu, à force d'efforts, d'étude.	*속자, TCHYOU-TCHU-SI-TA. 趨從. S'aller, marcher le corps courbé (par respect); se courber en passant devant, se prosterner.
*속자, TCHYOU-TCHU-SI-TA. 提德. Sale, sale et en désordre.	*속자, TCHYOU-TCHU-SI-TA. 趨從. S'aller, marcher le corps courbé (par respect); se courber en passant devant, se prosterner.
*속자, TCHYOU-TCHU-SI-TA. 提德. De qualité supérieure, excellent.	*속자, TCHYOU-TCHU-SI-TA. 趨從. S'aller, marcher le corps courbé (par respect); se courber en passant devant, se prosterner.
*속자, TCHYOU-TCHU-SI-TA. 提德. Supplice de la suspension par les chevrons; (on met aussi le patient à genoux sur des pots cassés et on lui frappe les jambes).	*속자, TCHYOU-TCHU-SI-TA. 趨從. S'aller, marcher le corps courbé (par respect); se courber en passant devant, se prosterner.

- 리델(Felix-Claire Ridel) <한불사전>(1880) 속표지 및 어휘부(27,000여 표제어 수록). (* 출처: 사전의 개발권)

나) <말모이> 이전의 사전 편찬 관련 자료

ㄱ) 표제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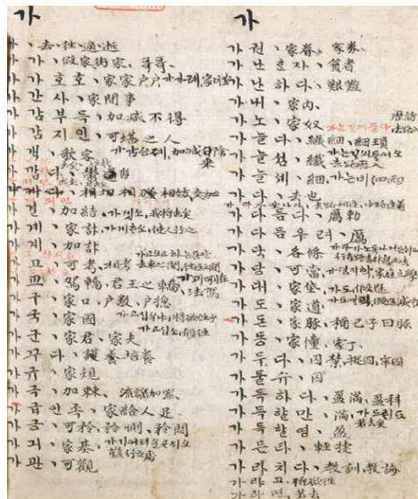


- 게일(Gale, J.S.)의 <한영사전>(1897년(제2판), 약 5만개 표제어 수록)

(* 출처: 사전의 재발견)

나) <말모이> 이전의 사전 편찬 관련 자료

ㄱ) 표제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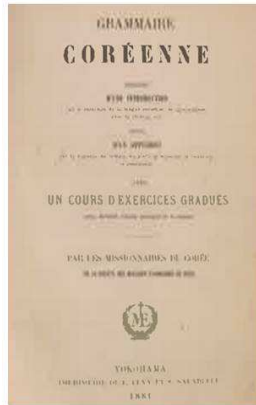


- 이준영 · 정현 · 이기영 · 이명선 · 강진희의 <국한회어> 곤책(1895년(제2판),

약 25,000개 표제어 수록) 표지 및 본문 (* 출처: 사전의 재발견)

나) <말모이> 이전의 사전 편찬 관련 자료

ㄴ) 문법 자료



DECLINAISON DES PRONOMS DE LA 1^{re} PERSONNE

SINGULIER.			PLURIEL.		
RACIAL	저	me	우	us	우
NON-RACIAL	그	te	너	vous	너
EXTERIEUR	그	te	너	vous	너
INTERIEUR	그	te	너	vous	너
GENITIF	저의	de moi	우의	de nous	우의
DATIF	저에게	à moi	우에게	à nous	우에게
ACCUSATIF	저를	me	우를	us	우를
LOCATIF	저에서	en moi	우에서	en nous	우에서
ABLATIF	저에서	de moi	우에서	de nous	우에서
INSTRUMENTAL	저로	par moi	우로	par nous	우로

RESUME DES PRONOMS PERSONNELS

SINGULIER.			PLURIEL.		
나	나	나	우	우	우
너	너	너	너	너	너
그	그	그	그	그	그
저	저	저	저	저	저

- 리델(Felix-Claire Ridel)의 <한어문전>(1881)

※ 품사론과 구문론으로 구분하여 기술, (* 출처: 사전의 재발견)

1.2. <말모이>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1) 거시구조의 특징

가) '가나다순'으로 표제어 배열

나) '된소리'와 '나, 내, 너, 네' 배열에서 현행 국어사전과 차이가 남

(예: 가다듬-가다듬-가다-가, ㄷ, ㄷ-까딱-까딱수-가다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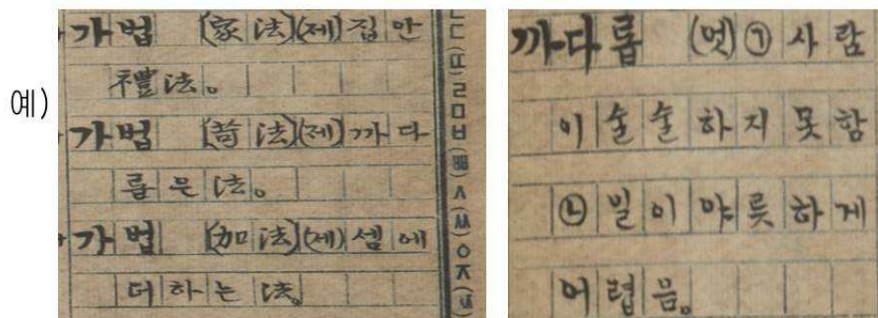
'나, 내, 너, 네'를 'ㄴ'나 'ㄷ' 바로 다음에 배열하지 않고 따로 배열)

다) 용언 표제어의 경우 어간만 제시(어미를 독립 단어로 보는 주시경 문법관 반영)



1) 거시구조의 특징

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



1) 거시구조의 특징

마) 표제항에서 고유어/한자어/외래어 구분

예) 고유어 표제어:

한자어 표제어:

외래어 표제어:

1) 거시구조의 특징

바) 표제어 분석

예)

갓끈 (제)갓에 달는
끈(그림).

잡옷 (제)싸흙에 입
는 옷.

깨끔질 (제)깨끔에
보임.

개똥참외 (제)절로
난들 참외.

1) 거시구조의 특징

사) 주표제어 풀이 끝에 부표제어 제시

ㄱ) 접미사 '-하다/-스럽다/-거리다/-대다/-질' 등이 결합된 파생어

예)

잔죽 (억)듣기 싫은
말을 작구하는 것.
—하 (안)듣기
싫은 말을 작구함.
또 —거리 —대.

가등 (제)억 어린아
이들 강중 때 는 일
또 —이 —하(안)
강중 땀 또 —거리
—대. —질 (제)강중
대는 것.

가증 (何憎) (제)말한
은 것. —스럽 (억)
밟음.

1.2. <말모이>의 거시구조와 미시구조

2) 미시구조의 특징

가) <말모이>와 <표준국어대사전>의 미시구조 비교

(※ <말모이> 해당 부분에 빨간색 표시):

원어 - 발음 정보(*음의 높낮이) - 활용 정보 - 품사(범주) 표시 -
 뜻풀이 - 문형정보- 용례(예문) - 관용구/속담 - 관련 어휘(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등) - 어원/최초출현형(어휘 변천 과정) -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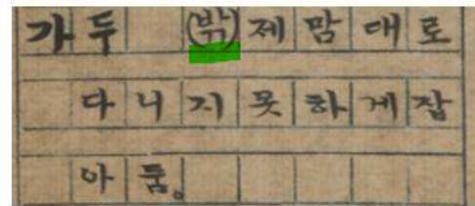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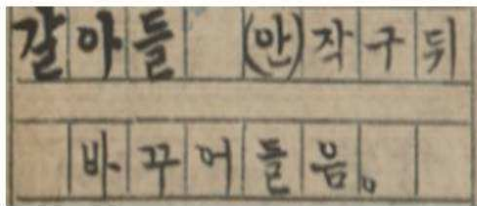
2) 미시구조의 특징

나) 22개의 문법 범주 표시(품사 포함)

(제)	[名 詞](임)	[名 詞]를 뜻하게 하는지(名詞性)를 판정하는 문법 범주	(김)	[形 動 副 詞] 되게 하는 토	
(넋)	[代 名 詞](음)	[代 名 詞]를 뜻하게 하는지(代名詞性)를 판정하는 문법 범주	(이)	[連 續 詞]	
(억)	[副 詞](업)	[副 詞]를 뜻하게 하는지(副詞性)를 판정하는 문법 범주	(둘)	[範 圍 定 詞] 는 토	
(어)	[名 詞] 위에 쓰는 말	[名 詞]을 형용하는 말	(때)	[時 間 發 表] 하는 토	
(드)	[名 詞] 부분과 대응하는 소리	[名 詞]의 부분을 나타내는 소리	(놈)	[聲 調] 하는 토	
(안)	[內 動 詞](동)	[內 動 詞]을 판정하는 토	(술)	[소 리] 들리는 것	
(밖)	[外 動 詞](갈)	[外 動 詞]을 판정하는 토		홀소리 [母 音]	
(엇)	[形 容 詞](손)	[形 容 詞]을 판정하는 토		닷소리 [子 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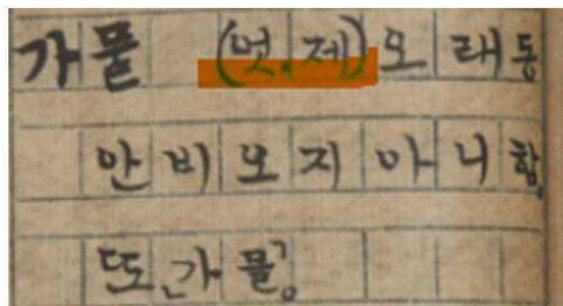
2) 미시구조의 특징

다)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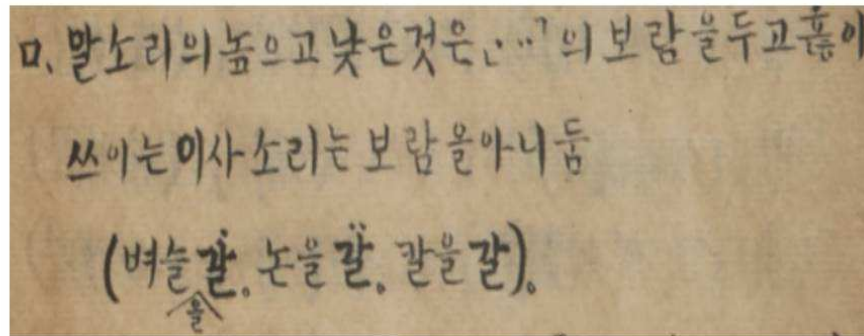
2) 미시구조의 특징

라) 품사 통용 인정



2) 미시구조의 특징

마) 음의 높낮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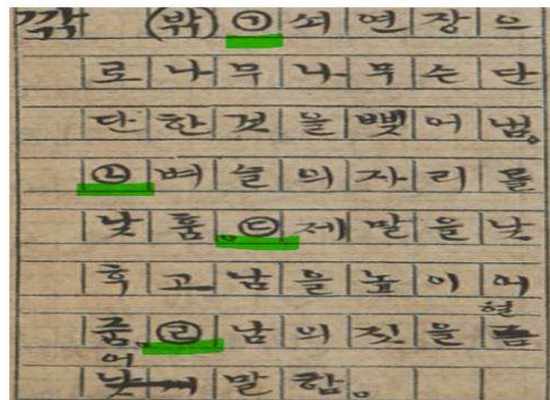
2) 미시구조의 특징

바) 19개 분야 전문어 제시 (대종교, 불교, 예수교, 철학, 심리학, 윤리학, 논리학, 교육학, 경제학, 법학, 수학, 천문학, 지질학, 생리학, 동물학, 식물학, 광물학, 물리학, 화학)

[宗]	(大倭教)	[教]	(教育學)	[動]	(動物學)
[佛]	(佛敎)	[經]	(經濟學)	[植]	(植物學)
[耶]	(耶模敎)	[法]	(法學)	[鑛]	(鑛物學)
[哲]	(哲學)	[數]	(數學)	[物]	(物理學)
[心]	(心理學)	[天]	(天文學)	[化]	(化學)
[倫]	(倫理學)	[地]	(地質學)		
[論]	(論理學)	[生]	(生理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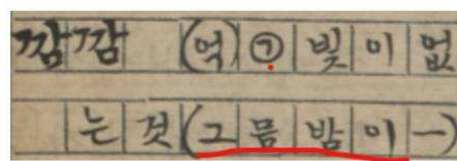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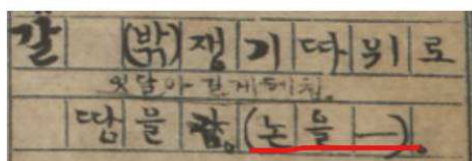
2) 미시구조의 특징

사) 다의어의 경우 뜻갈래별 뜻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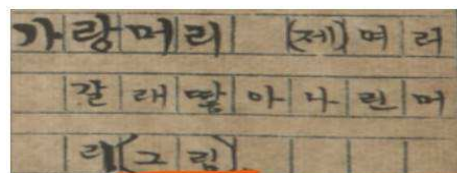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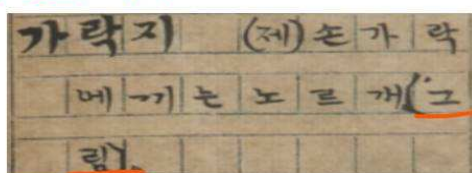


2) 미시구조의 특징

아) 용례 제시



자) 삽화 제시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1)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 보통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사전**(총 6,106개의 표제어 수록)
- 교과서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
- 교과서 등장인물의 '이름'과 '용언 활용형'을 표제어로 수록

숙자·[淑子]: 女子의 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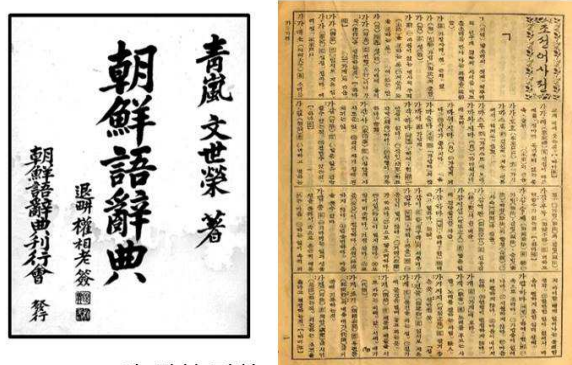
순명[順明]: 女子의 일함

식혀보겠다: 하게하겠다.

주무십시오[寢침] 자라는말의尊對.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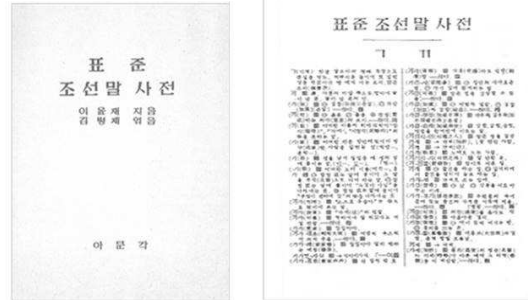
2)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



- 20여 년(1917~1938)에 걸쳐 편찬
-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적용한 첫 국어사전
- 약 10만 개의 표제어 수록(일반어/이두/고유명사 수록)
- 표제어의 형태소 분석, 발음 표시,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 등 제시
- 국문으로 뜻풀이 제시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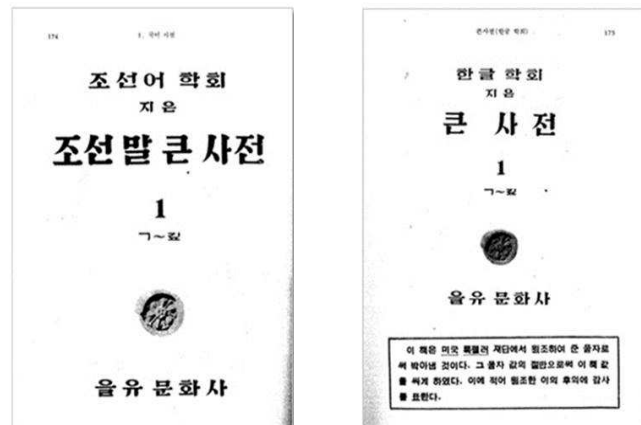
3) 이윤재, 김병제의 <표준 조선말 사전>(1947)



- 7만여 표제어 수록(고유어/한자어/외래어/방언/전문어 등)
- ‘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적용
- 가로쓰기 형식으로 출판
- 예사소리 표제어 배열이 끝난 뒤에 된소리 표제어를 배열(‘ㄱ’ 부분 배열이 끝난 뒤에 ‘ㄲ’ 부분을 배열하는 방식: 예) ‘깊이…까까중이…까귀’ 하에 현재 남측 표제어 배열 방식의 시초)
- ※ <말모이>나 <조선어사전>의 표제어 배열 방식:
예사소리 표제어와 된소리 표제어의 구분 없이 배열 예) ‘가극…까끌까끌…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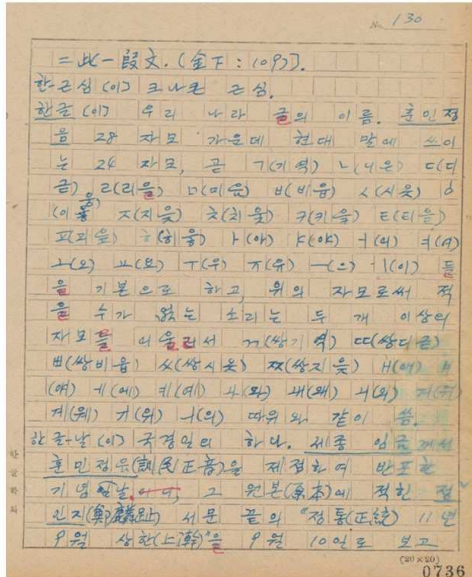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4)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 사전>(1929~1957)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4)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 사전>(1929~1957)



(위쪽) 사전편찬실 모습(*출처 <국가기록원>)

(왼쪽) 조선말 큰사전 원고(*출처 <문화재청>)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4)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 사전>

-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위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 제정
- 현재 남북 표기법의 바탕이 됨
- 1947년 <조선말 큰 사전> 1권 간행 이후, 1948년 남북에 각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2권부터는 남측 단독으로 출판
- 1957년 한글학회에서 전 6권으로 완간
- 우리말을 집대성한 첫 번째 대사전(표준어(14만 464개), 방언·고유명사·고어·이두·관용구 등 총 16만 4,125개 표제어)
- 향후 남북 국어사전 편찬의 밑바탕

2. 일제 강점기의 국어사전

4)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 사전>

-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의의

가) 우리말을 최초로 집대성한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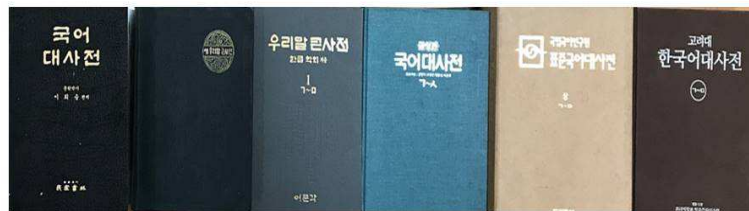
나) <조선말 큰 사전> 편찬 계기로 우리말 어문 규범 제정('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 '외래어표기법 통일안'(1941))

다) 남북 어휘 이질화 최소화에 기여

- <조선말 큰사전> 편찬자들이 분단 이후의 남북 언어 정책 수립 및 사전 편찬에 주도적 역할 수행
- 남측에서는 최현배, 정인승 등의 주도로 <<큰 사전>>(1957) 완간
- 북측에서는 유열, 김병제, 이극로, 홍기문 등의 주도로 <조선말사전>(1962) 편찬
- 최현배, 정인승, 이극로, 정열모, 유열, 김병제 등은 <<큰 사전>>을 함께 편찬했던 인사들로, 당시 표기법 및 문법 등의 정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분단 이후에는 각기 남북 언어 정책을 주도함.

3. 분단 이후의 남북 사전

3.1. 분단 이후의 남한 사전



1) <한글맞춤법> (1988) 이전의 국어사전

가)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1961):

- 일반어 외에 전문어, 인명, 지명 등 20여 만 표제어 수록
- ※ 증보판(1991)에서는 35만여 개로 표제어 확충, '북한말' 부록으로 첨부

나) 신기철·신용철 편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1974):

- 32만여 개 표제어 수록(일반어, 전문어, 인명, 지명 등)
- ※ 1970년대 표제어 면에서 최대 규모의 사전

3.1. 분단 이후의 남한 사전

2) <한글맞춤법> (1988) 이후의 국어사전

<사전 편찬 환경>

- <한글맞춤법> (1988) 고시
- 컴퓨터 보급 및 관련 기술 발달로 사전 편찬 비용 및 시간 단축
- 사전편찬학 이론 적용

가)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금성출판사

- 34만여 개의 표제어(일반어, 전문어, 속어, 방언, 인명, 지명, 북한어(약 3,000개) 등) 수록
- 개정된 어문 규범(1988)을 반영한 첫 번째 대사전
- 소설·수필·교과서·신문 등을 말뭉치로 구축하여 용례 제시

3.1. 분단 이후의 남한 사전

2) <한글맞춤법> (1988) 이후의 국어사전

나) 한글학회 편 <우리말 큰사전>(1991), 어문각

- <큰 사전>(1957) 수정·증보
- 44만여 표제어 수록
- 외래어 및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 대폭 정리, 고유어 최대한 보충
- 인명, 지명 제외
- 고어 별책으로 제시

3.1. 분단 이후의 남한 사전

2) <한글맞춤법> (1988) 이후의 국어사전

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 한국어 사전>(1998), 두산동아

- 1960년대 이후의 언어 자료 말뭉치로 구축
- 사용 빈도가 14 이상인 어휘 5만 2천여 개 표제어로 선정
- 말뭉치 자료에 실재하는 단어 및 용례 선정
- 필요한 경우 '참고란'을 두어 표기 및 문법 별도 설명
- 국어학의 성과와 사전편찬학 이론의 융합

3.1. 분단 이후의 남한 사전

2) <한글맞춤법> (1988) 이후의 국어사전

라)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1999), 두산동아

- 남측 정부 주도로 편찬된 첫 번째 대사전
- 개정된 어문 규범을 반영하여 국민의 국어생활 기준을 확립할 목적으로 편찬
- 일반어 및 전문어,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 만 단어 수록
- 표제어 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종이 사전
- 종이 사전 출판 이후 시디롬으로 제작·배포
- 사전 편찬 지침을 공개하여 국내 사전 편찬 및 사전학 연구에 기여

-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선정 및 뜻풀이 참조 카드

가두다 이 A-001135	5 금성판 국어대사전	9 현대대사전
1 큰 사전	가두다 加(加) ①방정할 곳에 넣어 바둑대로 나열 되도록 하다. ②물자를 정렬해 ~/정돈 주위에 가 두어 기르다. ③(물품) 정렬된 곳에 넣어 있게 하다. ④눈에 들을 ~.	
2 국어대사전 가두다 加(加) ①방정할 곳에 넣어 바둑대로 나열되 도록 하다. ②물자를 정렬해 ~/정돈 주위에 가 두어 기르다. ③(물품) 정렬된 곳에 넣어 있게 하다. ④눈에 들을 ~.	6 우리말 큰사전 가두다 加(加) ①바둑대로 나열되도록 정렬된 곳에 넣 어 두다. ②물자를 ~. ③기르다. ④물이 들면 나 가지 않고 끼어 있게 하다. ⑤눈에 들을 ~. (<가두다)	10 조선어대사전 가두다 加(加) ①방정할 곳에 넣어 바둑대로 나열되 도록 하다. ②물자를 정렬해 ~/정돈 주위에 가 두어 기르다. ③(물품) 정렬된 곳에 넣어 있게 하다. ④눈에 들을 ~.
3 새 우리말 사전 『표준(표준)』정판본 곳에 끼어 있게 하다. 가두다 加(加) ①방정할 곳에 넣어 바둑대로 나열되 도록 하다. ②물자를 정렬해 ~/정돈 주위에 가 두어 기르다. ③(물품) 정렬된 곳에 넣어 있게 하다. ④눈에 들을 ~.	7 조선말 사전 가두다 加(加) ① 바둑을 두기 위하여, 정렬된 곳에 넣어 바둑대로 나열되도록 한 곳에 넣어 두다. ② 물을 ~. ③ 기르다. ④ 물이 들면 주위 안이 가두어 두어 물이 넘어 버리다. ⑤ 물이 넘지 않게 두다. ⑥ (물이) 흘러 나가지 않게 끼어 있게 하다. ⑦ 눈에 들을 ~.	11 글스모스조선대사전 가두다 [kaduda 카도ㄱ다], 가두어 [kadue 카도ㄱ어]/가치 [kadwa 카도ㄱ와] 《語》; 단~ [anaduda 안가도ㄱ다], 뜻~ [moos 'kaduda 모오스카도ㄱ다] ①강하다 ②閉じ込める, 閉す. 일제시 대~에 일문(一門)사람들은 조선어~학자들까지도 강숙에 가둘다. 日常時 代 日本人たちは朝鮮語學者たちまでも監獄に閉じ込めた. 가리~놓았 다를 함으로 줄어~주었다. 閉い込んでおいた籠を外に放してやった.
	8 현대 조선말사전 제2판	12 조선말 대사전(1-2)

3.1. 분단 이후의 남한 사전

2) <한글맞춤법> (1988) 이후의 국어사전

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

- 국내 대학교에서 편찬한 첫 대사전
- 38만여 표제어 수록
-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말뭉치(corpus)를 바탕으로 하여 표제어 선별
- 빈도순에 따라 의미 내향을 배열(표제어의 사용 양상 반영)
- 신어 4만여 개 수록
- 형태소 단위로 표제어 분석

3. 분단 이후의 남북 사전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 북한에서는 정부 기관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주도로 사전을 편찬
- 민간에서 출판한 사전은 없음
- 대체로 5년 또는 10년을 주기로 사전 편찬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1) <조선말규범집>(1966) 이전의 뜻풀이사전

가) <조선어 소사전>(1956)

- 분단 이후 북측에서 출판된 첫 번째 뜻풀이사전
- <조선어철자법>(1954)이 반영된 첫 규범사전
- 41,927개 표제어 수록
 - ▶ '로동당',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협동조합' 등 사회주의 이념과 관련된 새 어휘 수록
 - ▶ '일제 강점기 어휘', '쓰임이 거의 없는 한자말과 외래어', '비규범적인 통용어', '방언', '고어' 등은 표제어에서 제외
- **사잇소리 현상을 사이표(')로 제시**(담'요/앞'이)
- 표제어 해당 음절에 '-' 표시를 하여 장음 표시(련습/뒀'걸음)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1) <조선말규범집>(1966) 이전의 뜻풀이사전

나) <조선말사전>(1960~1962)

- 북측의 첫 번째 대사전
- <조선말 큰 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월북 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편찬
- 총 6권으로 출판, 187,137개의 표제어 수록
-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각종 출판물에 쓰인 일반어 및 전문어·고어·방언 수록

나) <조선말사전>(1960~1962)

※ <조선말 큰 사전>, <조선어소사전>, <조선말사전>의 뜻풀이 비교

표제어	<조선말 큰 사전>(1957)	<조선어소사전>(1956)	<조선말사전>
가탈	일이 순편히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조건.	일이 순편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조건.	① 일이 순편히 진행되지 못 하게 방해하는 조건.
건들장마	첫 가을에 비가 쏟아지다가 번쩍 개고 또 비가 오다가 다시 개는 장마.	초가을에 비가 쏟아지다가 번쩍 개고, 또 비가 오다가 다시 개고 하는 장마.	첫 가을에 비가 오다가는 금시에 개고, 또 비가 오다가는 다시 개고 하는 장마.
날피리	급히 쫓길 때에 물 위로 뛰어 달음질하는 피라미를 일컬음.	급히 쫓길 때에 물 위로 뛰어 달음질하는 피라미를 이름.	<급히 쫓길 때에 물 위로 뛰어 달음질하는 피라미>를 이르는 말.
느른하다	① 몸이 고단하여 힘이 없다. ② 힘없이 부드럽다.	① 몸이 고단하여 힘이 없다. ② 힘없이 부드럽다.	① (몸이) 고단하여 힘이 없다. ② 힘이 없이 부드럽다.

▶ 뜻풀이 방식과 뜻풀이에 쓰인 단어들에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어소사전》과 《조선말사전》은 《조선말 큰 사전》 뜻풀이를 참조한 것으로 보임.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2) <조선말규범집>(1966) 이후의 뜻풀이사전

<사전 편찬 환경>

- 1960년대 중반부터 '주체 언어 사상'을 강조하면서 언어 규범에 큰 변화를 꾀함.
- 1966년 김일성 담화문('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고 살려나갈데 대하여') 발표
- 이후 북측의 규범어를 '문화어'로 수정하면서 규범어 설정의 기준이 되는 말을 '서울말'에서 '평양말'로 바꿈
- 1966년 6월 <조선말규범집>(1966) 고시
- 주체 언어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휘정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
- 이러한 언어 환경 변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1981)과 같은 규범사전 편찬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2) <조선말규범집>(1966) 이후의 뜻풀이사전

가) <현대조선말사전>(1968)

- <조선말규범집>(1966)이 적용된 첫 뜻풀이사전
- 5만여 개의 표제어가 수록된 규범사전
- '고유어와 이중 체계를 이루는 한자말', '다듬은말의 대상 한자말' 등을 표제어에서 대폭 제외
- 새로 선정한 문화어 3,300개 수록

나) <조선문화어사전>(1973)

- 67,480개의 표제어가 수록된 규범사전
- 1960년대 중반 이후 시행한 '어휘정리사업'의 결과가 폭넓게 반영된 사전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다)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1981)

- <<현대조선말사전>>(1968)과 <<조선문화어사전>>(1973)을 보완한 규범사전
- 136,315개의 표제어 수록
- 사회·정치 용어들과 인위적으로 다듬은 새말들 폭넓게 수록
- '어휘 정리' 과정에서 새로 다듬어진 말 수록
 - ▶ 고유어로 다듬은 과학기술용어 및 전문어휘 등 대폭 수록

3.2. 분단 이후의 북한 사전

라) <조선말대사전>(1992)

- 사정한 문화어 전체를 수록할 목적으로 편찬
- 33만여 개 표제어 수록한 대사전
- '한자말정리사업·어휘정화사업·어휘정리사업'의 결과와 <조선말규범집>(1987)의 규범을 종합적으로 반영
- 성구·속담(15,000여 개), 본딴말(12,000여 개), 학술용어 및 전문기술용어(52,000여 개), 방언(9,000여 개)이 수록됨.
- <<조선말 사전>>(1962) 이후 다루지 않았던 고어·이두(15,500여 개)도 '부록'으로 첨부
- '지명'은 표제어로 수록, '인명'은 수록하지 않음

마)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2006)/(2017)

- <조선말대사전>(1992)의 뜻풀이 보완 및 표제어 확충
- 1990년대 이후의 신어 수록
- 약 40만 개의 표제어 수록

3. 분단 이후의 남북 사전

3.3. 분단 이후 남북 전자(웹)사전

1)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웹사전, 2016년~)

-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해 새로운 지식과 문화 생산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편찬함.
- 사전 이용자들에게 표제어 수록 및 뜻풀이 수정 권한 일부 부여
- **115만여 표제어 수록**(2023년 5월 기준)
- <표준국어대사전> 50만여 어휘에 일상어·지역어·전문용어 등의 50만여 어휘 추가
- **67개 전문분야 설정 및 전문어 수록**
- **표제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역사 정보, 규범 정보, 다중매체 자료, 어휘 지도 등)와 **검색 기능**(포함 검색, 자모 검색, 초성 검색, 정보별 검색 등) 제공

3. 분단 이후의 남북 사전

3.3. 분단 이후 남북 전자(웹)사전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단위별 현황: 2023년 5월)

단위별 현황			
단위	표제어 수	비율(%)	표제어 예
단어 ¹⁾	756,915	65.624	부엌, 햇-, -는데, 생각-하다
구 ²⁾	396,500	34.376	윗몸*일으키기, 고가*도로
합계	1,153,415	100	

우리말샘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사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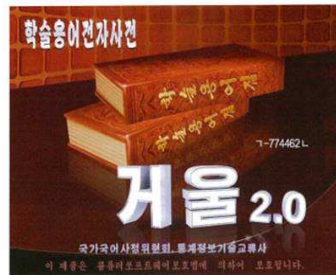
자세히 보기

3. 분단 이후의 남북 사전

3.3. 분단 이후 남북 전자(웹)사전

2)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



- 최대 규모의 북한어 전자사전
- 90만 6천여 개 표제어
- 현행 북한 전문어 대폭 수록
- 사전 풀이 정보 실시간 갱신 가능
- 45개 전문 분야 설정 및 전문어 수록

국가국어사정위원회

통계정보기술교류사

주제 106 (2017)

3. 분단 이후의 남북 사전

2) 학술용어전자사전 <거울> 2.0

번호	분야	올림말수	번호	분야	올림말수
1	일반	190 376	24	수의학산	25 933
2	건설수리	26 953	25	수학	16 066
3	경공업	22 221	26	생물학	109 350
4	경제학	8 622	27	자동차	5 719
5	고고학	2 253	28	전기	13 516
6	교육학	5 018	29	전자	9 918
7	금속학	15 281	30	정보학	32 256
8	기계	27 897	31	지리학	17 886
9	광업채취	14 523	32	지질학	21 526
10	농학	14 048	33	철도운수	7 156
11	력사	6 449	34	철학	3 105
12	력학	7 985	35	출판인쇄	10 612
13	료리	12 438	36	체신	17 863
14	복상항공	9 399	37	체육	14 457
15	림학	5 715	38	혁명력사	1 397
16	문학	2 245	39	해상운수	1 176
17	물리	26 365	40	화학	18 898
18	미술	5 427	41	열에네르기	4 616
19	민속학	3 937	42	영화연극	4 080
20	민족고전	10 353	43	음악	6 574
21	법률학	8 876	44	의학	107 588
22	사회정치	2 382	45	외국어	7 432
23	선박수산	11 551	46	원자력	8 953
계 906 390					

4. 맺음말

- <말모이>와 <조선말 큰 사전>의 편찬 의의 정리

- 남북 어휘 통합 사전 편찬 필요

▶ 남북 전문어 이질화 심화

※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조선말대사전>(2006) 표제어 비교

구분	일치	차이
일반어	62%	38%
전문어	34%	66%

▶ <우리말샘>과 <거울2.0> 통합 사전 편찬 필요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 ~ 16:40 / 한글학회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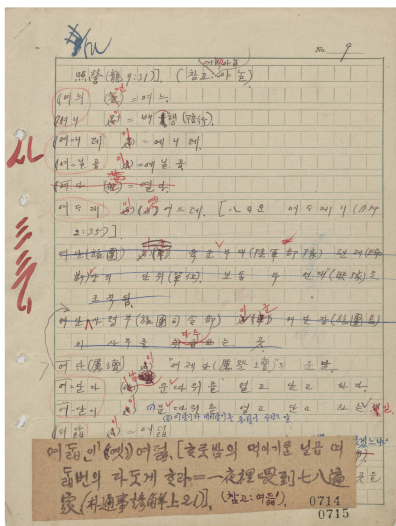
□ 제1부 주제 발표

『큰사전』에 수록된 문학(고소설) 항목과 표제어의 의미*

유춘동

강원대학교 교수
sechaek@hanmail.net

1. 서론



〈사진 1〉 독립기념관 소장,
『큰사전』 원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에서 사전을 만들기 위해 작성했던 『조선말 큰사전』 원고(이하 ‘큰사전’)가 2021년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다.¹⁾

이 책은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켜내려는 노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그동안 우리 역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대표적인 근대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아 왔다.

『큰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를 포함한 각종 어휘는 당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가능한 모든 언어정보를 취합하여, 사전 편찬자의 시

* 이 글은 『근대서지』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근대 서지학회 오영식 회장님의 호의로 사전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다.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 『말모이』(사전)도 보물로 함께 지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최초 한글사전 ‘말모이’ 원고, 보물 된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 8일 기사 참조.

각에 따라 선별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사전에 수록된 각종 어휘는 당시 우리 문화의 실상과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큰사전』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있었다.²⁾

그러나 『큰사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 사전학의 시각에서 진행되었을 뿐, 고소설 연구의 측면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큰사전』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만이 아니라 전문어, 제도어(制度語), 고유명사, 옛말, 이두(吏讀)까지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소설도 표제어로 포함되어 있다.

『큰사전』에 수록된 고소설 어휘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당대 사전 편찬자들이 지니고 있었던 ‘고소설’에 대한 인식, 사전 편찬 당시의 ‘고소설의 위상’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큰사전』에 수록된 고소설 항목의 표제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큰사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의 거시 구조에서부터 미시 항목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³⁾ 하지만 이 글에서는 우선 고소설에 한정하여, 『큰사전』이 지닌 특징, 성과와 한계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사진 2〉 『큰사전』(출처: 한글학회)

2) 허재영, 「국어사전 편찬 정책 및 그 역사」, 『국어교육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005, 57~58쪽.

3) 한영균,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성격에 대하여」, 『동방학지』 140, 연대 국학연구원, 2007.; 도원영/차준경,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 고대민족문화연구소, 2009.

2. 『큰사전』의 편찬 작업, 고문헌(古文獻) 항목의 양상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1910년에 최남선이 설립한 조선광문회에서 간행하려 했던 우리말 사전인 『말모이』이다.

하지만 이 사전은 작업이 완성되기 직전에 주시경(周時經)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곧이어 실무를 맡았던 김두봉(金斗奉)이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완결되지 못했다.⁴⁾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이 진행되었다.⁵⁾ 하지만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사전이 완결된 것은 『큰사전』이 처음이다.

『큰사전』의 간행은 1929년 10월 31일 사회운동가, 종교인, 교육자, 어문학자, 출판인, 자본가 등 108명이 사전편찬위원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원고가 완성되어 출판이 되기 직전인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작성된 원고는 모두 조선총독부에 압수되었고 이후 행방 또한 알려지지 못했다.

1945년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사전 출판에 관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사전』의 원고를 찾아 나섰다. 그러다가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京城驛, 현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극적으로 원고가 발견되었다. 조선어학회(이후 한글학회로 변경)에서는 이 원고에 기반을 두면서 사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1947년에 1권, 1949년에 2권, 1950년에 3권, 1957년에 나머지 4권에서 6권을 발간했다. 이처럼 많은 시련과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것이 『큰사전』이다.⁶⁾

『큰사전』에 수록된 어휘는 ‘일반어, 전문어, 특수어(고어, 방언, 은어 등)’로 나뉜다. 사전에 등재할 어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간행되었던 1920년에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펴낸 『조선어사전』, 1897년에 영국인 선교사 게일이 만든 『한영 자전』, 각종 신문, 잡지, 소설, 시집 및 고전 언해(諺解), 역사, 지리서 등을 참조했다. 아울러 당시 5천여 명의 중등학생들이 동원되어 전국 각지의 방언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큰사전』에는 총 164,125개의 어휘가 사전에 수록될 수 있었다.

『큰사전』의 범례(凡例)에는 수록된 어휘의 등재 과정, 어휘의 활용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적어 놓았다. 예를 들면, “어휘(語彙)편에서 책 이름을 널리

4)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2판)』, 책과 함께, 2019, 70쪽.

5) 박형익,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2004. ; 박용규,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의미」, 『기록인』 35, 2016, 70~77쪽.

6) 사전은 1~2권은 '조선말 큰사전', 3~6권은 '큰사전'으로 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큰사전'으로 통일한다.

큰 사 전 말 수				
	순우리말	한 자 말	외 레 어	모 두
표 준 말	56,115	81,362	2,987	140,464
사 투 리	13,006	—	—	13,006
교유명사	39	4,165	999	5,203
옛 말	3,013	—	—	3,013
이 두	1,449	—	—	1,449
마 더 말	990	—	—	990
모 두	74,612	85,527	3,986	164,125

망라했다는 사실, 전문어의 경우, 문학편은 별도로 표시했다는 점, 사물의 이름은 【이】로 표시하여 문법 형태를 나타냈다”는 것이다.⁷⁾

그렇지만 『큰사전』의 범례(凡例)와는 달리 실제로 사전을 참고할 때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문학 작품을 사전에서 찾을 때, 작품을 표제어로 한

〈사진 3〉 『큰사전』에 수록된 어휘

경우도 있지만 이 작품을 수록한 책을 표제어로 삼은 경우도 있다.

특히 고소설의 경우, 고소설을 표제어로 설정한 것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책을 표제어로 설정한 것도 있다. 따라서 『큰사전』에 수록된 고소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글 자모(字母) 순서에 의거해서 살펴보거나, 원작을 수록한 고문헌을 함께 참조해야만 한다. 이러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큰사전』에 수록된 고문헌, 고소설, 고전문학과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⁸⁾

번호	표제어	분류	항목 해설	출처 ⁹⁾
1	가곡원류	이(책)	옛 시조(時調) 팔백여 수(八百餘首)을 모아 놓은 책.	1-3
2	각판본	이	관각하여 박은 인쇄물.	1-58
3	강남악부	이(책)	정조 때에 조현범이 지은 책.	1-105
4	계림유사	이(책)	송나라 손목이 지은 조선 말에 관한 책.	1-235
5	계서야담	이(책)	순조 때 이희준이 조선 고금의 기사, 이문, 잡설 듣고 본대로 기록한 책.	1-237
6	계원 필경집	이(책)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에 있을 때에 지은 여러 가지 글을 모아 만든 책.	1-240
7	고대소설	이	옛날의 풍습과 제도를 취재하여 쓴 소설	1-250
8	광대	이(민)	연극하는 사람. 판소리를 하는 사람. 연극 또는 춤을 추려고 낮에 물감을 칠하는 것을 일컬음. 탈.	1-358
9	구운몽	이(책)	숙종 때에 서로 김만중이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은 소설	1-407

7) 조선어학회편, 『조선말 큰사전』, 조선어학회, 1947, 1~6쪽.

8) 제시한 <표>는 논의를 위해서, 『조선말 큰사전』 중에서 일부만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다.

10	구파연극	이(극)	구래의 형식을 따르는 연극. 꼭두각시, 산대도감, 춘향전 따위.	1-415
11	규장전운	이	정조 때 명을 받들어 규장각의 여러 신하가 편찬한 운서	1-472
12	금오신화	이(책)	세종 17년에 김시습이 지은 전기 문학서.	1-509
13	김만중	이(사람)	숙종 때의 문학가. 호는 서포. 소설 구운몽을 지어 한글 문학의 큰 길을 열었으며 효로써 정려함.	1-559
14	노가재 연행록	이(책)	숙종 38년에 김창업이 그의 만형인, 동지사 겸 사은사 김창집을 따라 북경에 갔을 때의 기행문.	2-637
15	대본(貸本)	이	세책(貰冊)	2-771
16	동국 문헌비고	이(책)	영조의 명을 받들어 홍봉한 등이 널리 공사 기록에서 참고하여 마씨의 문헌통고를 본떠서 편찬한 책	2-861
17	동국병감	이(책)	문종의 명찬(命撰).	2-861
18	두시언해	이(책)	분류두공부시언해의 준말	2-897
19	만담	이	일정한 목적과 체계 있는 말은 아니나 재미있고 우스운 말로써 세상과 인정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이야기	2-981
20	목민심서	이(책)	순조 때 정약용이 지음.	2-1076
21	목판본	이	목판으로 박은 책	2-1081
22	몽금척	이(악)	금척무에 쓰는 체구.	2-1088
23	박태보	이(사람)	숙종 때의 학자. (중략) 문집 14권이 있음.	3-1205
24	박통사 언해	이(책)	숙종 때 권대련, 변섬, 박세화 등을 명하여 지은 책.	3-1205
25	사씨 남정기	이(책)	숙종 때 김춘택이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하여 지은 소설. 한 책.	3-1537
26	삼국유사	이(책)	고려 시대의 명승(名僧) 일연이 지은 책.	3-1593
27	삼국지 연의	이(책)	중국의 역사 소설의 하나.	3-1593
28	서포만필	이(책)	서포 김만중이 지은 책.	3-1684
29	세책	이	세를 받고 빌려주는 책.	3-1750
30	세책가	이	셋책집	3-1750
31	심청전	이(책)	우리나라 고대소설의 하나. 효녀 심청이 그의 소경 아버지 심봉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물에 던져 제물로 삼은 뒤, 그 결과로 아버지의 눈이 다시 밝아지고 아버지와 딸이 각각 행복스럽게 살게 된 것이 그 내용 임.	4-1952
32	악비	이(사람)	중국 남송 때의 명장.	4-1995
33	어우야담	이(책)	선조 때의 학자 유몽인이 지은 책. (중략)	4-2076

			설화문학으로 크게 유명함	
34	언해	이	한문을 한글로 해석한 책	4-2085
35	언해 태산집요	이(책)	조선 때 허준이 지은 의서. (중략) 한글로써 해석을 넣은 책.	4-2085
36	용비어 천가	이(책)	이씨 조선의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위덕과 및 태조, 태종의 나라를 새로 세우기 위하여 쌓은 공덕을 찬송한 노래.	4-2277
37	장비	사람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의 맹장(猛將).	5-2583
38	전기소설	이	기이한 사실을 전하는 소설.	5-2633
39	제왕운기	이(책)	고려 고종 때, 이승휴의 지은 역사책.	5-2717
40	조수삼	이(사람)	영조 때의 한시인(漢詩人).	5-2742
41	최치원	이(사람)	신라 말년의 학자. 자는 고운, 혹은 해운.	5-3036
42	춘향전	이(책)	우리나라의 고전적 소설의 한 가지. 남원의 춘향이가 기생의 몸으로 이몽룡을 위하여 고절을 지킨 사실을 적은 고대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여러 가지의 고본이 있음.	5-3051
43	패관소설	이	민간의 가설, 향담 따위를 주제로 한 소설	6-3230
44	훈몽자회	이(책)	최세진이 초학동몽의 한자 학습을 위하여 한자 삼천 삼백 육십 자를 유로 모아 벌이고 정음으로 자음과 자의를 달아 만든 책.	6-3521
45	훈민정음	이(책)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어 우리나라 글자로 정한 28자.	6-3521

제시한 표는 『큰사전』에 등재된 고전문학 관련 용어, 고전문학 서적, 고문헌의 사례이다. 고문헌은 국어학과 관련된 서적들로 비교적 설명이 자세하다. 예를 들어 11번 『규장전운』, 18번 『두시언해』, 24번 『박통사언해』, 44번 『훈몽자회』, 45번 『훈민정음』처럼 국어사 기술에서 중요한 전적들, 언해본(諺解本) 자료의 해설을 보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

이러한 양상은 한문학(漢文學)과 관련된 항목에서도 비슷하다. 『큰사전』의 한문학 관련 문헌이나 이를 저술한 작가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김만중(金萬重), 정약용(丁若鏞), 정철(鄭澈), 조수삼(趙秀三)의 사례이다. 그리고 『계서야담』이나 『어우야담』, 『노가재연행록』처럼 작가가 명확한 경우, 표제어에 대한 항목의 해설은 자세하다. 아울러 『큰사전』의 편찬이 준비될 무렵이었던 구과연극(舊派演劇), 광대(廣大), 만담(漫談)처럼 근대계몽기부터 1940년 당시 최고 인기를 얻었던 새 예능(藝能)의 표제어도 해설이 자세하다.

9) 앞은 해당 권, 뒤는 해당 권의 쪽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1-3은 1권의 3쪽이다.

1957년 10월 9일 이전까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우리말 사전이 전무한 상황에서, 『큰사전』은 사전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아내려는 첨병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설’에 국한해서 자세히 살펴본다면 『큰사전』은 여러 부분에서 아쉬운 면이 확인된다.

3. 『큰사전』의 고소설(古小說) 항목과 기재 양상

『큰사전』에 수록된 고소설 표제어는 먼저 개념어로 (1) 고대소설, (2) 전기소설, (3) 패관소설이 있다. 그리고 고소설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1) 목판본(木版本), (2) 세책(貫冊, 貸本), (3) 세책가(貫冊家)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개별 작품으로는 (1) 『구운몽』, (2) 『금오신화』, (3) 『사씨남정기』, (4) 『삼국지연의』, (5) 『심청전』, (6) 『춘향전』이 실려 있다.

『큰사전』에서 고소설 표제어를 개념어, 유통 관련 용어, 개별 작품을 실었다는 사실은 사전 편찬 과정에서 더 많은 소설을 수록할 가능성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진 4>처럼 두꺼비를 설명하면서, 두꺼비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설명하면서 『두껍전』을 소개할 수도 있었다. 이런 예는 웅고집, 장끼, 박태보(朴泰輔) 등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해당 표제어와 관련이 있는 고소설을 수록하지 못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큰사전』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고소설의 중요한 작품이 대부분 등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홍길동전』, 『소대성전』, 『유충렬전』, 『조웅전』, 『숙향전』, 『숙영낭자전』 등은 이 사전에서는 볼 수 없다. 이는 중국소설 『삼국지연의』를 표제어로 제시한 것이나 심지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관우나 장비를 소개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1930~40년대에는 고소설 연구서로서, 안확(安廓)의 『조선문학사』, 김태준의 『조선소설사』 등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간(公刊)되었다. 그러나 『큰사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전을 간행했다.

이처럼 『큰사전』에 고소설, 특히 ‘한글소설’이 사전편찬자의 시선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소설의 주요 개념어, 고소설 유통과 관련된 어휘, 6편의 개별 작품이 수록된 것을 보면 『큰사전』의 사전편찬자들이 ‘한글소설’이 지닌 의미를 완전 배제했다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한자가 지배하던 근대 이전 시기에, 한글을 통해서 늘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던 이들이 문학에 참여하여 그들의 역량을 보여준 즉, 중요한 문화 활동의 일부로 작동한 한글소설을 사전을 통해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은 『큰사전』이 보여주는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이처럼 ‘한글소설’의 역할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은 『큰사전』의 아쉬움이 아니다. 그 이전에 간행되었던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 『수정 증보조선어사전』(1939), 『중등 조선어사전』(1948)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4. 마무리

이 글은 짤막하게 『큰사전』에 등재된 고소설 관련 표제어의 실태와 사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큰사전』은 1930~40년 고소설 연구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 편찬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소설과 관련된 중요한 어휘나 항목이 ‘사전’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사전편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설의 의미, 한글소설이 지닌 함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고소설 연구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사전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소설 연구자도 있어야 할 것이다.¹⁰⁾ 사전은 사전학 연구자나 국어학 연구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영역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큰사전』의 아쉬움은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결과물이다.

〈참고 문헌〉

1. 자료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편, 『큰사전』 (1)~(6), 을유문화사, 1947~1957.

2. 단행본 및 논문

국립중앙박물관편, 『조선어학회 사건 그리고 조선말 큰사전』, 국립중앙박물관, 2008.

10) 박재연, 조희웅 선생이 간행한 고소설 관련 전문 사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 도원영/차준경,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 박용규,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의미」, 『기록인』 35, 2016.
- 박형익,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월인, 2004.
- 이병근,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2000.
- 주태희, 「조선말 큰사전 1권에 수록된 나비에 대하여」, 『과학시대』 9, 1950.
-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2판)』, 책과 함께, 2019.
- 한영균,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적 성격에 대하여」 『동방학지』 140, 연대 국학연구원, 2007.
- 허재영, 「국어사전 편찬 정책 및 그 역사」, 『국어교육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005.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1부 주제 발표

『큰사전』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남길임

경북대학교 교수

nki@knu.ac.kr

1. 서론

이 연구는 사전학적 관점에서 첫 한국어 종합 대사전으로서의 『큰사전』의 면모를 표제항과 표제어 구성의 문법적 특성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초기 ‘조선 말 큰 사전’으로 명명되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기 위해 편찬된 『큰사전』¹⁾의 표제항과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당대 한국어의 문법 연구의 관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사전학적 관점에서 표제어에 대한 초기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총규모 164,125개로 명시된 표제어의 수록 범위와 문법 형태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 (1) “이 사전에 실은 어휘는 현대 표준으로 쓰이는 순 조선 말, 한 자 말, 외래어, 속어, 각종 전문어 들은 물론이요, 옛말, 이두 말, 옛 제도어 각 지방의 널리 쓰이는 사투리(표준어 아닌 말), 변말, 결말 및 내외 각지의 유명한 땅 이름, 사람 이름, 책 이름, 명승 고적의 이름 들까지 널리 망라하고, 필요에 따라 중요한 종합 용어와, 익히 쓰이는 마디 말 등도 골라 수용하였음”(『큰사전』 범례 1-1)
- (2) ㄱ. 문법상 형태 표시: 【이】(명사), 【절이】(의존명사), 【대】(대명사),

1) <조선어사전 편찬회 취지서> (『한글』 4권 2호(1936년 2월); 조재수 2021 재인용)

【셈】(수사), 【어】(형용사), 【뎡어】(보조형용사), 【제】(자동사), 【절제】(불완전 자동사), 【남】(타동사), 【절남】(불완전 타동사), 【입음】(피동사), 【시킴】(사동사), 【뎡음】(보조동사), 【잡】(지정사), 【언】(관형사), 【엇】(부사), 【느】(감탄사), 【토】(조사), 【줄기】(불규칙활용 어간), 【뎡줄】(보조어간), 【머리】(접두사), 【발】(접미사), 【끝】(어미), 【마디】(관용구), 【준】(준말) 총 25종 (『큰사전』 범례 6)

ㄴ. 변칙으로 활용되는 말들: 【벗】(불규칙 활용), 【르 벗】 등 총 13종 (『큰사전』 범례 6)

(1)의 수록 범위는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 현대 한국어 대사전류가 제시하고 있는 표제어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2)의 표제항의 구성 방식, 품사의 유형이나 불규칙활용 정보 등의 제시 방식은 현재의 대사전류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2)에서 볼 수 있듯이 문법상 형태 표시 정보는 품사 정보 외에도 【준】(준말), 【마디】와 같은 표제어 유형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타동사 하위 유형의 구분이나 【남.르벗】, 【제.거라벗】, 【뎡어.여벗】 등과 같은 불규칙 활용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큰사전』의 ‘【】’괄호는 ‘문법상 형태 표시’로 쓰였고, 이는 품사를 포함한, 구 단위 표제어의 지위, 용언의 하위 유형, 활용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위 25종에 포함되지 않은 문법상 형태도 상당수 있는데, 총 70개 형태에 부착된 【익은말】 정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표제항과 표제어 구성에서 가장 큰 특성은 『큰사전』의 표제어 수는 실제 표제항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큰사전』 인쇄본에 명시된 공식 올림말(표제어)의 수는 164,125개이지만, 실제 표제항의 수는 142,090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표제어를 수록하는 표제항의 구성 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다’ 파생어와 관용표현 등이 별도의 뜻풀이와 품사 표지와 함께 표제항 속 별도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며, 불규칙 활용의 어간이 가표제어의 형태로 표제어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제시된 표제어의 수는 표제어와 부표제어, 뜻풀이가 없는 가표제어까지 모두 포함한 항목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구 단위 표제어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부분이다. 구 단위 표제어인 ‘종합 용어’를 따로 두어 위 25개 품사 중 하나의 품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특수하다. 이 외에도 속담이나 관용표현 등을 부표제어 【마디】(총 771개)로 포함하고 있고, 종합 용어로 처리된 일부 표제어에는 품사 표지로 【익은말】(총 70개)이라는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구 단위 처리

방식은 당시 단어의 범위를 넘어선 ‘의미 단위’로서 구 단위 표제어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주요 사례 몇몇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ㄱ. ‘종합 용어’(총 10,381개): 상해 보험【이】, 새우 구이【이】, 간 맞다【어】, 가나 오나【엇】, 가는 귀 먹다【제】,
 - ㄴ. 【마디】 (총 771개): 눈 가리고 아웅 하다, (‘가리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가난하다’) 린 고양이가 쥐를 만났다. (‘주리다’), 쥐구멍을 찾다 (‘쥐구멍’)
 - ㄷ. 【익은말】 (총 70개): 모르면 모르되, -ㄹ 양으로, -을 바에, -을 뿐더러, -을 값에, -은가 보다, 주거나 받거나; 다-마는, 자나-깨나, -ㄹ라-치면, 허허:-흥한지고, 죽을등-살등; 요다음

현대 한국어사전의 구 표제어라 할 수 있는 범주는 이들 중 (2ㄱ)의 종합 용어와 (2ㄴ)의 【마디】이며, 그 총계는 11,152개로 전체 표제어의 6.8%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현재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구 표제어/총 표제어 비율 14.9%, 11.7%²⁾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수준이지만, (2ㄱ)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 용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상당 수의 구를 주 표제어로 등재하고 구성 요소의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품사를 부여한 점은 특징적이다. 이러한 처리는 이들의 표제어로서의 의미 단위의 위상을 현대 사전학보다 더 확고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ㄷ)의 【익은말】은 일부는 구표제어에(40개), 일부는 단어표제어에(30개) 부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164,125개 어휘 『큰사전』의 거시구조, 미시구조 전반에서 나타난 표제어에 대한 인식과 그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큰사전』 표제어의 품사별 비율을 살펴보고, 표제어의 구조, 주표제어와 부표제어의 비중 등을 현대 사전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 (1)에서 언급된, 당시 『큰사전』의 특수한 범주로 보이는 ‘종합 용어’의 특성을 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조재수(2021 : 252)에서 “합성어나 관용구로 다루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 중간치 올림말들”로 평가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구 표제어에 해당되는 것으로 초기 한국어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준다. 현대 사전학에서도 주요 주제인 의미 단위 사전학의 관점에서 종합 용어의 정체성과 의의

2)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모두 대사전류로 각각 총 표제어수 대비 구 표제어의 수는 62,867개/422,262개, 45,163개/386,889개로 각각 통계 정보는 각각 아래 참조.

<https://stdict.korean.go.kr/statistic/dicStat.do>, 도원영·차준경(2009)

를 살펴보는 것은 현대 사전학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도 새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³⁾

2. 표제항(entry)의 구조와 표제어(headword)의 품사

2.1. 표제항(entry)의 구성과 구조

『큰사전』의 공식 올림말(표제어)의 수는 164,125개이지만, “2022 근현대 국어사전류 자료 구축 사업(국립국어원, (주)네이버, 한글학회 협력 사업)”을 통해 한글학회 주도로 구축된 디지털 자료로 파악된 표제항의 수는 142,090개이고, 전체 표제어의 수는 164,515개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제시한 164,125개로 390개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 표제항과 표제어 수 산출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큰사전』의 표제항은 현대 한국어사전과 다른 구조적 특성, 즉 복수의 표제어를 표제항에 포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표제항과 표제어 수의 차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164,125개로 제시된 표제어의 수는 표제항의 주표제어뿐만 아니라 표제항 내의 부표제어로 있는 관용구, 속담 등의 【마디】와 파생어, 일부 품사 통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품사 표지인 ‘【 】’이 부여된 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162,960개이다. 여기에는 【줄기】라는 별도의 품사가 붙은 불규칙 용언의 어간(132개)도 포함되는데 가표제어 형태로 기본형의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아래 (3)은 가표제어 ‘줄기’의 예시를, (4)는 표제항 내에 주표제어 외에 각각 하나씩의 표제어를 더 가지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든 것이다. 마지막으로 (5)는 하나의 표제항 내에 둘의 복수 표제어를 제시한 사례이다.

(3) ㄱ. 까- 【줄기】 "깎다"의 변칙(變則) 어간. [-ㄴ. -오니. -히니다].

(4) ㄱ. 똥-물 【이】 ①똥이 풀리어 섞인 물. ②《생》구토(嘔吐)가 심한 때에 먹었던 식물(食物)은 다 나오고 나중에는 누르스름하게 나오는 물. /똥물에 튀한 자식 【마디】 지질히 못나서 아무 짝에도 못 쓸 사람을 욕하는 말.

ㄴ. 가(加) 【이】 《수》 ①“덧셈(加法)”의 준말. ②“가산(加算)”의 준말. /—하다 【남.여뻬】 ①=더하다. ②《수》 “가산(加算)하다②”의 준말.

3) 현대 말뭉치 기반 사전학의 논의에서 의미 단위로서 구 단위의 추출과 처리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이상적인 사전의 표제어는 ‘단어’라기보다 ‘의미 단위’에 있다”는 Sinclair et al.(1970/2004 xxiv), 전면적인 구 단위 사전의 개발을 사전학의 주요 과제로 언급한 Stubbs(2009) 등을 들 수 있다.

ㄷ. 각(角) 【이】 ①=뿔....중략.. ④ 《수》 두 직선의 각각 한 끝이 한 점에서 만난 도형(圖形) ..중략.. ⑧ 《고제》 군중(軍中)에서 나무나 쇠로 만들어 부는 악기(樂器)의 범칭(汎稱). 대각(大角), 날나리 따위. 【절이】 중국 은화(銀貨) 단위의 하나. 십전에 해당함.

ㄹ. 두다 【남】 ①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다...중략..⑧ 밥 의나, 떡을 만드는 데 그 주장되는 거리 밖에 다른 물건을 섞다. 【돕음】 타동사(他動詞)의 말끝 "-아"나 "-어"의 아래에 쓰이어, 그 동작의 결과를 그대로 보존함을 뜻하는 동사. [나 하는 것을 잘 보아 -게. 맛은 없으나 그냥 먹어 -자].

(5) 《무너-터리다.무너-트리다 【남】 =무너뜨리다.

(4ㄱ)~(4ㄴ)의 항목 각각에서 표제항 내의 표제어를 별도의 표제어로 산정하는 이유는 모두 별도의 뜻풀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마디】(4ㄱ)는 현대 한국어사전의 부표제어의 처리와 유사하지만, 【남.여벗】(4ㄴ)의 파생어 【절이】(4ㄷ), 【돕음】(4ㄹ)의 품사통용 및 하위 문법 범주 부류를 모두 별도의 표제어로 산정하고 있는 점은 현대 한국어사전의 처리 방식과 차이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이 주표제어 층위와 부표제어 층위에서 품사 분류 표지가 붙은 것을 모두 표제어로 산정하고도, 표제어로 포함되어야 하는 단위는 별도의 표제항으로 기술된 자소 단위와 품사 누락 오류 항목 135개⁴⁾와 품사 표지 없는 ‘이두’ 1420개이다. 이들을 모두 합칠 경우, 표제어는 총 164,515개로 추산된다. 이러한 표제어의 규모와 표제항의 구조를 표로 보이면 각각 다음과 같다.

<표 1> 『큰사전』의 표제어 규모(표제항의 수 142,090개)

표제어 표지 유형	개수
【 】 문법상 형태 부여	162,960
이두 (【 】 표지 없음)	1,420
자소 단위 등 【 】 표지 없음	135
총계	164,515

<표 2-1> 『큰사전』의 미시구조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불규칙 활용】 《전문분야》 《옛말》 [삽화] 뜻풀이 [용례] (관련어) 【파생】 【마디】 (어원)
--

4) 자소 단위와 품사 누락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ㄱ[기역] ①한글 자모(字母)의 첫째 글자. ② 《어학》 닿소리의 하나.
(2) 가을-장마[—짙—] 가을의 여러 날 계속하여 오는 비.

<표 2-2> 『큰사전』의 미시구조 ‘가난’의 예

가난 **【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 (원말: 간난=艱難). /—하다 **【어. 여벗】**.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마디】** 남의 가난한 살림을 언제까지나 구제(救濟)하여 주기는 끝이 없으므로, 나라의 힘으로도 못 한다는 말.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마디】** 치르기 힘든 일이 자주 닥치어 옴을 이르는 말.

『큰사전』의 표제어 계수의 기준을 따를 경우, 위 <표 2-2>의 ‘가난’의 경우, 하나의 표제항을 이루기는 하지만, ‘가난’, ‘가난하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의 넷 모두가 표제어에 포함된다. 이렇게 산출된 『큰사전』의 공식적 표제어 개수 164,125개이며, 본 연구에서 “**【**”를 중심으로 분석한 수는 164,515개는로 390개의 차이가 있다.

2.2. 표제어의 품사 유형과 분포

여기서는 『큰사전』 표제어의 품사별 분포를 분석하되, 현대 한국어대사전의 품사별 분포와 비교해 봄으로써, 『큰사전』의 표제어 문법 범주 부여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한국어대사전을 대표하는 사전으로는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을 들 수 있는데, 표제어의 규모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서 일대일의 정확한 비교는 쟁점이 있다.⁵⁾ 따라서 여기서는 표제어 규모의 측면에서 세 사전 중 가장 적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총 표제어 수 386,889개)를 중심으로 품사별 비율을 비교해 보고, 부분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품사 비율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표 3> 『큰사전』의 표제어 품사 비율

품사	개수	백분율(%)
【이】	116,632	71.57
【대】	155	0.10
【샘】	107	0.07
【제】 등 동사류	28,270	17.35

<표 4>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표제어 품사 비율

품사	개수	백분율(%)
명사	253,303	65.47
대명사	380	0.10
수사	215	0.06
동사	54,921	14.20
형용사	12,271	3.17

5) 즉, 표제어의 규모가 클 경우, 전문용어 등 명사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명사류 외에도 구 단위의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용자 참여’나 ‘규범’ 등 각 사전이 표방하는 가치에 따라 북한말, 방언, 고유명사류 등에 대한 표제어 정책도 사전마다 상당히 다르다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어】	8,316	5.10
【언】	173	0.11
【엣】	5,986	3.67
【느】	454	0.28
【토】	233	0.14
【줄기】	132	0.08
【뚝줄】	34	0.02
【끝】	707	0.43
【머리】	127	0.08
【발】	140	0.09
【마디】	1,042	0.64
【준】	222	0.14
기타	230	0.14
총계	162,960	100

관형사	192	0.05
부사	13,841	3.58
감탄사	675	0.17
조사	338	0.09
어미	1,168	0.30
접사	555	0.14
무품사(준말)	675	0.17
무품사(구표제어)	45,163	11.67
계	383,697	99.17
다품사어	3,192	0.83
총계	386,889	100

위 <표 3>과 <표 4>를 비교해 보면, 『큰사전』의 품사 처리 방식의 대강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구 단위 표제어를 의미하는 『큰사전』의 구 표제어인 【마디】(총 1,042개)는 0.63%인 반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무품사(구표제어)(총 45,163개)는 11.67%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큰사전』의 【마디】 외의 구 표제어, 즉 ‘종합 용어’(총 10,381개)의 처리 지침과 관련되어 있다. 『큰사전』의 종합 용어는 구 단위 표제어로 대다수 명사구와 동사구, 형용사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품사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래 (6), (7)은 각각 ‘종합 용어’의 예시를 나타낸다.

(6) ㄱ. 회:계: 연도:(會計年度) 【이】 《법》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기간. 임의의 12 개월 동안을 정하여 매년 그대로 계속함.

ㄴ. 흑임:자 죽(黑荳子粥) 【이】 검은깨를 흰 쌀과 함께 물에 담갔다가 매에 갈아 체에 걸러 물만 솥에 붓고 쑨 죽.

(7) ㄱ. 기:지개 켜다 【제】 혈액 순환(血液循環)과 근육 긴장(筋肉緊張)의 목적으로 몸을 펴고 팔다리를 뻗다.

ㄴ. 뒤집어 쓰다 【남.으벗】 ①온 몸을 가려서 내리 덮다. ②뒤집어서 머리에 엮다. ③남의 허물을 넘겨 말다.

ㄷ. 말 더듬다[-따] 【제】 말을 더듬거리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큰사전』의 구 표제어는 모두 품사 범주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데, 현대 한국어사전(『우리말샘』)에서 구에 해당되는 범주도 있으나(6ㄱ, 7ㄱ), 단어에 해당하는 범주도 있고(6ㄴ, 7ㄴ), 등재 단위가 아닌 경우도 있다.

둘째, 이러한 종합 용어 구 단위 처리의 차이는 결국 주요 품사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표 3> 『큰사전』의 명사, 동사, 형용사의 비중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은 구 단위의 품사 부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구표제어를 품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시킨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 현대 한국어대사전의 처리와 달리, 『큰사전』은 구표제어에 각기 명사, 동사, 형용사 등 주요 품사를 부여함으로써 구표제어 전체가 품사 비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큰사전』 구표제어의 비율을 현대 한국어대사전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사전별 구표제어 비율 비교

	구표제어	전체 표제어	비율	비고
『큰사전』	11,423	164,515	6.9%	【마디】 , 종합 용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45,163	386,889	11.7%	전문용어, 속담, 관용구 등
『표준국어대사전』	62,910	423,043	14.9%	전문용어, 속담, 관용구 등

표제어의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일대일의 비교는 어렵겠지만 『큰사전』의 구표제어 비율은 현대 한국어대사전류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양적 규모 외에도 구표제어에 대해 ‘속담’과 ‘관용구’의 표지를 부여한 현대 대사전류와 달리, 『큰사전』은 【마디】 표지만을 부여한 점, 구표제어에 대해 품사 정보를 부착하지 않은 현대 대사전류와 달리, ‘종합 용어’의 경우 품사 정보를 별도로 부착한 점 등이 특징적이다. 아래에서는 『큰사전』 구표제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 용어’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종합 용어’의 특성

3.1. 종합 용어 표제어의 문법적 특성

종합 용어는 전체 표제어 중에서 표제어 구성에서 띄어쓰기가 포함된 표제어로, 6.3% 수준에 해당하는 10,381를 차지하며, 각각 품사가 부탁되어 있다.⁶⁾ 종합 용어는 대체로 두 단어로 구성되었으나, ‘피천 한 잎 없다’, ‘남의

집 살다'와 같이 세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아래 <표 6>은 종합 용어의 품사 부류로 93% 이상이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으로 동사구, 형용사구의 비중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큰사전』 종합 용어 표제어 품사 비율

품사	개수	백분율(%)
【이】	9,709	93.53
【셈】	2	0.02
【어】	65	0.63
【제】 등 동사류	507	4.88
【언】	1	0.01
【엿】	26	0.25
【느】	12	0.12
【준】	2	0.02
【기타】	57	0.55
총계	10,381	100

이러한 품사 비중을 살펴볼 때, 『큰사전』의 종합 용어는 현대 대사전의 구표제어처럼 대다수 명사구 전문용어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법》, 《책》, 《불교》, 《군》, 《의》 등과 같이 전문용어 표지⁷⁾가 부착된 종합 용어는 전체 10,381개 중 6,504개로 62.65%에 달한다. 이외에 종합 용어의 문법적 위상은 크게 이름씨 부류와 용언류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름씨의 경우 전문용어 외에 다음의 예시를 통해 종합 용어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 (8), (9)는 이름씨 즉 명사 표지가 부착된 명사구 중 일부이다.

- (8) ㄱ. 홀연 독립(屹然獨立) 【이】 홀연하게 외따로 섰음. /—하다 【제.여벗】.
 ㄴ. 평균 분배:(平均分配) 【이】 많고 적음이 없이 꼭 같은 비율(比率)로
 노늌. (준말: 평분=平分). /—하다 【남.여벗】.관부(官府)에서 값.
 ㄷ. 화장 도구, 호피 방식

6) 『큰사전』의 디지털화한 “2022 근현대 국어사전류 자료 구축 사업(국립국어원, (주)네이버, 한글학회 협력 사업)” 결과물에서는 ‘행정^행위’와 같이 띄어쓰기 대신 ‘^’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추출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7) 범례 6쪽에 따르면 총 49개의 전문어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큰사전』 전문용어 분류 체계의 상세한 평가는 조재수(2021 : 262) 참조.

ㄹ. 평화 담판⁸⁾

(9) ㄱ. 화:색 만:면(喜色滿面) 【이】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함. /—하다 【어.여뵈】.

ㄴ. 비상 사건, 비상 경보, 비상 경찰, 비상 소집

ㄷ. 비둘기 구이, 비늘 김치, 비지 찌개, 흑임자 죽

(8)은 『큰사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을, (9)는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으나 문법적 범주 판단이 다른 경우를 대표한다.

우선 『우리말샘』에서 연결 항목을 찾을 수 없는, 『큰사전』에만 배타적으로 등재된 표제어 유형 (8)을 살펴보자. (8ㄱ)의 ‘홀연’과 ‘독립’의 결합, (8ㄴ)의 ‘평균’과 ‘분배’의 결합은 구성성분의 합성성이 지켜지고 관용구나 연어 관계로 보기 어려운 명사구로, 전문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단위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구 단위 전체에 ‘-하다’ 파생어 정보를 부여하였다는 점은 매우 특징적이다. 이러한 부류로는 ‘방향 전환, 밀실 감금’ 등 다수가 있다. 이러한 자유 결합 구성을 등재한 것은 구 단위 등재에 대한 의미적·문법적 기준보다는 관습적인 기준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며, 이들 구표제어의 파생어 정보를 단어 표제어와 동일하게 부착하는 것은 이들 구표제어 전체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⁹⁾ (8ㄷ)에서 ‘화장 도구, 호피방식’ 역시 생산적인 수식+피수식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자유 결합 구성에 준한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8ㄷ)인데 ‘평화 담판’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구 단위로 분석되는 점이 흥미롭다. 실제로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 검색 결과, ‘평화 담판’은 1900년 이후 1990년대까지 총 15회 출현하며, 1920년대에만 6회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드물게 쓰이다가 1960년대 이후부터 쓰이지 않게 되었다. ‘관습’이라는 말에 이미 내포되었듯이, 의미 단위로서 구 단위를 한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합성성이나 관습성의 정도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주관적이기 마련이다.

한편 (9)는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있으나 단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어 동일한 구 단위에 대해 『큰사전』과 『우리말샘』의 문법적 범주 판단이 다른 경우이다. (9ㄷ)에는 음식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샘』의 지침에 따라 주로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용언류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용언류의 특징적인 점

8) 평화 담판(平和談判) 【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한 담판. (『큰사전』)

(십삼일)부터平和談判(평화담판)을開始云其結局果如何(개시운기결국과여하)(1921. 7. 16. 『동아일보』), 英愛平和談判(영애평화담판)의中絶(중절)(1921. 7. 27.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9) 전체 이룸씨 표제어 9709개 중 852개(8.77%)는 『우리말샘』의 표제어에서 연결 항목을 찾을 수 없는데 이들 중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전문용어나 현대 문법에서 자유 결합으로 보는 구 구성을 포함한다.

은 자·타 동사의 표지가 변별적으로 부착되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핵어 구성성분의 품사가 아닌, 전체 구 구성의 의미와 문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타 동사 표지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 (10) ㄱ. 개으름 부리다 【제】 개으른 행동을 짐짓 하다. (<개으름부리다)
ㄴ. 날밤 새우다 【제】 공연히 뜬눈으로 밤을 지내다.
ㄷ. 값 부르다 【남.르벗】 팔거나 사려는 값을 드러나게 말하다. (호가하다 =呼價-).
ㄹ. 되지 못하다 【어.여벗】 ①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②사람답지 못하다.

(10ㄱ), (10ㄴ)의 경우, ‘부리다’나 ‘새우다’가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으름 부리다’, ‘날밤 새우다’에 자동사를 부여했고, (10ㄷ)은 구 단위 전체가 목적어를 요구하므로 타동사를, (10ㄹ)은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으로 구성성분 ‘되다’의 품사가 용언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표지를 부착했다. ‘되지못하다’는 현재 『우리말샘』에서 ‘단어’로 등재되어 형용사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처리는 “이은말 형태에 품사를 매겨 올린 것은 부득이했던 처리”(조재수 2021 : 252)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 구 단위의 의미·문법적 특성을 재분석하여 품사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로 볼 수도 있다.

『우리말샘』과의 대응 관계 역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11)은 『큰사전』에서만 표제어로 나타나는 유형을, (12)는 『우리말샘』에도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대표한다.

- (11) ㄱ. 나뻘 여기다 【남】 업신여기고 나쁘게 치다.
ㄴ. 껄껄 웃다 【제】 "껄껄" 소리를 내어 웃다. (>깔깔 웃다).
ㄷ. 넌더리 나다 【제】 넌더리가 나다.
- (12) ㄱ. 마음 놓다 【제.남】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다.
ㄴ. 망신살 뻘치다[－쌀－](亡身煞-) 【제】 망신살이 잇달아 심하게 이르다.
ㄷ. 맛 있다[만－] 【어】 맛이 좋다. (맛나다①. 맛지다).
ㄹ. 맛 없다[만－] 【어】 ①맛이 없다. ②재미 없다.

(11)에서 대응되는 유사 표제어가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은 이유는 현대문법의 관점에서 이들 표제어의 지위가 관용표현으로 등재되기에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인 듯하다. (11ㄱ), (11ㄴ)은 자유 결합, (11ㄷ)은 연어 구성으

로, 『큰사전』의 용언 종합용어에는 ‘나뻘 보다, 나뻘 알다’ 또는 ‘넉더리 내다, 까탈 부리다, 멀미 나다’ 등의 자유 결합 구성과 연어 구성이 다수 등재되어 있다.¹⁰⁾

한편 (12)는 『큰사전』과 『우리말샘』에 동시에 등재되어 있는 유형으로 (12ㄱ), (12ㄴ)과 같이 동일하게 구 단위로 등재된 경우와 (12ㄷ), (12ㄹ)과 같이 현재 『우리말샘』에서 ‘맛있다’, ‘맛없다’와 같이 단어 단위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용언류 표제어를 중심으로 『큰사전』과 『우리말샘』의 등재 양상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종합 용어의 위상과 별도 범주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3.2. 사례 연구: 용언류 종합 용어의 사전학적 특성

여기서는 종합 용어 중 【어】, 【제】, 【남】 등의 형용사류 65개와 동사류 507개를 포함하여 【익은말】 용언류¹¹⁾까지 포함하여 611개의 용언류 종합 용어의 특성을 『우리말샘』의 등재 여부와 어휘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용언류 종합 용어의 『우리말샘』 수용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큰사전』 용언류 종합 용어 『우리말샘』 등재 여부

『우리말샘』 연결	표제어 수	비율
등재	387	63%
미등재	224	37%
총계	611	100%

<표 7> 『우리말샘』 등재 종합 용어의 문법적 지위

등재 양상	표제어 수	비율
단어	281	73%
구 단위	106	27%
총계	387	100%

10) 그러나 『큰사전』에서 모든 연어와 관용표현류를 종합용어로 등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발버둥이-치다’, ‘변덕-부리다’, ‘발장구-치다’ 등의 연어류, ‘발-벗다, 발-짧다’ 등의 관용표현류들은 복합어 지위를 가진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11) 【익은말】은 ‘-는 바에, -을 바에, -을 양이면’ 등과 같은 문법적 연어, ‘-는가 보다, -을까 보다’와 같은 본용언 보조용언 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용언류 종합 용어와 유사한, ‘정나미 떨어지다, 종짓굽 떨어지다, 흠뻑하며 감빨다’ 등도 포함한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서는 용언을 핵어로 하는 【익은말】 유형을 포함하기로 한다.

용언류 종합 용어의 『우리말샘』 등재는 63%인데 이는 『큰사전』 종합 용어의 63%가 『우리말샘』에도 수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용 양상이 의미하는 것은 『큰사전』에서 “합성어나 관용구로 다루기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 중간치의 올림말”(조재수 2021: 252)로 처리했던 부분을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상당 부분 수용하되, 그 문법 범주와 등재 여부에 대한 재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말샘』에서는 『큰사전』과 동일하게 구 단위로 수용한 경우가 등재어의 27%(106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용언류 종합 용어의 17%에 지나지 않는 숫자이다. 한편 단어로 수용된 것은 73%(281개)로 전체 용언류 종합 용어의 4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대표 사례는 (12)에서 예시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현대 사전학의 수용 양상의 차이는 현대 사전학, 어휘론적 관점에서 용언류 종합 용어가 가지는 어휘 유형의 특성에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전체 611개 용언류 종합 용어는 『우리말샘』에 단어로 등재된 281개 외에도, 관용구, 연어, 자유결합 등 연어 어휘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지위의 유형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비율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용언 종합 용어의 어휘 유형

어휘 유형	표제어	비율	예
단어 ¹²⁾	281	46%	맛 있다, 맛 없다, 거뒀 들이다, 걸 맞추다, 결정 짓다, 결판 나다, 결판 내다, 고함 지르다, 구슬려 삶다, 들어 가다, 들어 보내다, 들어 오다, 들추어 내다, 바래다 주다...
관용구	129	21%	개떡 같다, 거미줄 누르다, 고래 등 같다, 귀 기울이다, 등골 뻗다, 뒷짐 지다, 뒷짐 지우다, 뱃심 좋다...
연어	60	10%	거드름 부리다, 개으름 부리다, 개으름 피우다, 까탈 부리다, 불똥 나다, 불똥 내다, 바끄럼 타다, 너더리 나다 ...
자유결합	134	22%	거꾸로 박이다, 거슬러 올라가다, 걸쳐 두다, 값치르다, 귀양 풀어 주다, 깔깔 웃다, 바뀌 말하다, 비비 꼬다, 비비 틀리다...
옛말 등 기타	7	1%	무여 떼다, 츠기 너기다...
총계	611	100%	

12) 여기에 ‘단어’로 분류된 유형은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기준으로 단어로 등재된

위 <표 8>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용언류 종합 용어는 현대 사전학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층위의 어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흔히 속담과 함께 부표제어로 등재되어 온 관용구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별도의 표제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했던 연어, 고빈도 자유결합형 등도 『큰사전』의 용언류 종합 용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위 수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용언류 표제어가 『우리말샘』 단어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 둘째,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은 가장 많은 유형은 ‘자유결합’과 ‘연어’의 지위라는 점이다. 『큰사전』 편찬 당시의 종합 용어가 구성성분의 비합성성과 의미적 불투명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관용어 외에도 고빈도의 자유결합 구성과 연어 구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고, 전체 단위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처리하여 품사를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의미 단위 사전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 받을 만한 일이다.

한편, 용언류 종합 용어의 『우리말샘』 수용 양상은 종합 용어 명사류 종합 용어(총 9,709개)의 『우리말샘』 수용 양상과도 비교될 필요가 있다. 전체의 93.5%를 차지하는 명사류의 현대 사전에서의 표제어 수용 양상이 용언류와 다른지, 품사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그 사전학적 판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표 9> 『큰사전』 명사류 종합 용어 『우리말샘』 등재 여부

『우리말샘』 연결	표제어	비율	예
등재	8,858	91%	가내 공업, 가게 경제, 가격 카르텔, 가마 멀미
미등재	851	9%	가격 표기, 가두 진출, 간첩 행위, 각 지방, 각 군데
총계	9,709	100%	

<표 10> 『우리말샘』 등재 명사류 종합 용어의 문법적 지위

등재 양상	표제어	비율	예
단어	4,063	46%	가맹 단체, 가솔린 차, 가스 등, 가스 난로, 가스 마스크
구 단위	4,795	54%	가게 경제, 가내 공업, 가격 카르텔, 가곡 원류, 가속 운동
총계	8,858	100%	

연결 유형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 즉 ‘단어’ 유형의 표제어는 『우리말샘』에 ‘맛있다, 맛없다, 거뒀다, 걸맞추다, 결정짓다, 결판나다, 결판내다...’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들을 보면 구성성분의 의미 관계가 연어, 관용어, 연결동사 구성 등 다양하며, 합성어 판단의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는 『우리말샘』 등 한국어사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전학의 난제, 의미 단위의 범주화와 판별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명사류 종합 용어는 위 <표 9>, <표 10>과 같이 91%가 등재되었고, 구 단위 등재 비율도 훨씬 높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는 한편으로 전문 용어류가 상당수 수용되는 명사류와 일부 관용구를 중심으로 수용된 용언류 표제어의 사전학적 판단의 차이, 현대 사전학에서의 의미 단위 표제어의 선정 지침과 방침의 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4. 의미 단위 사전학의 관점에서 본 『큰사전』의 종합 용어

4.1. 현대 한국어사전에서의 구 표제어 처리와 『큰사전』의 종합 용어의 차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큰사전』의 종합 용어는 현대 한국어사전의 전문 용어, 관용구와 유사하며, 일부 연어, 자유 결합을 포함한 포괄적인 문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특 특징은 매우 다양한 어휘 유형과 범주에 해당하는 이러한 구 표제어들을 하나의 주표제어 범주에서 기술하고 별도의 독립된 품사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처리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현대 한국어사전과 구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첫째, 사전학적 차원에서 구 표제어의 의미단위로서의 ‘독립성’이라 할 수 있다. 『큰사전』에서의 종합 용어는 일종의 의미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속담을 등재한 【마디】와 달리 별도의 표제항의 주표제어로 기술되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명사구 전문용어만이 주표제어로 기술되어 대다수의 관용구가 부표제어로 기술된 것과 다른 방식이다. 이와 같이 『큰사전』에서 이들을 별도의 주표제어로 등재하고 각각 별도의 품사를 부여한 점은 이들 의미 단위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표제어로서의 독립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 용어에 품사 부여와 더불어 파생 정보까지 부여한 점은 이들을 완전한 독립된 의미 단위로 파악하였음을 보여준다.¹³⁾

(13) ㄱ. 응:급 조치(應急措施) 【이】 급함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 베푸는 처리.

13) 한편 (13ㄱ) ‘응급 조치’와 (13ㄴ) ‘응급 치료’ 각각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각각 ‘응급-조치’, ‘응급^치료’로 합성명사와 명사 구로 등재되었음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이들의 ‘-하다’ 파생어인 ‘응급조치하다’는 하나의 단어지만, ‘응급 치료’는 그러한 파생어 구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판단의 이면에는 이들 두 단어의 전문용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관점에서, 언어 사용 현실의 관점에서 이러한 편별성이 의미가 있는지, 모국어화자의 직관이나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다.

/—하다 【제.여벗】 .

ㄴ. 응:급 치료(應急治療) 【이】 급함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 베푸는 치료. /
—하다 【제.여벗】 .

둘째, 명사구와 동사구, 형용사구 사이의 ‘범주적 균형성’을 들 수 있다. 현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주로 전문용어를 비롯한 명사구 표제어는 주표제어로 기술하는 반면, 동사나 형용사를 핵어로 하는 관용구의 경우는 [관용구]라는 표지 내에 부표제어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현대 한국어사전에서의 처리는 동일한 구표제어에 대해서 ‘명사구’에 표제어로서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부여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4) 『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귀’를 포함한 표제어 비교

ㄱ. 『큰사전』

귀1 【이】 ① 《생》 오관(五官)의 하나. 청각(聽覺)을 맡은 기관(器官). 외이(外耳), 중이(中耳), 내이(內耳) 등 세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중략.. /귀가 보배다 【마디】 배운 것은 없으나 들어서 아는 것이 있음을 농으로 하는 말.

귀 떨어진 돈 【이】 가장자리가 이지러진 돈.

귀 거칠다 【어.르벗】 듣기에 거북하다.

귀 기울이다 【제】 정신을 그 쪽으로 모아 듣다.

귀 여리다 【어】 남의 말을 곧이 듣기를 잘하다. 남의 말에 속기를 잘하다.

귀여겨 듣다 【남.ㄷ벗】 흘려 버리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서 듣다.

ㄴ. 『표준국어대사전』

귀1 발음 [귀] 「명사」 「1」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 양옆에서 듣는 기능을 하는 감각 기관. 바깥귀, 가운데귀, 속귀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중략 [관용구] 귀(가) 따갑다...중략...[관용구]귀(가) 여리다... ...중략...[속담] 귀 좋은 거지 있어도 코 좋은 거지 없다

귀^과다증(귀過多症) 『의학』 사람에게 귀가 셋 이상 생기는 기형인 증상.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4)의 『큰사전』의 경우 ‘귀’와 관련된 표제어에는 명사구와 동사구, 형용사구 등이 포괄적으로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된 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합성명사나 명사구만이 독립된 표제어로 등재된다. 이러한 현대 한국어사전에서의 처리는 동사구나 형용사구의 경우 등지 구조 내에 포함함으로써 ‘귀’와 관련 구구성의 주표제어와의 긴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왜 특별히 동사구와 형용사 구성만이 이러한 등지 구조로 기술되는지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종합 용어는 관용구뿐만 아니라 연어와 고빈도 자유결합까지

포괄하는 ‘어휘 유형의 포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한국어사전에서 주로 관용구만을 부표제어로 등재하는 관행과 비교하여 매우 포괄적인 방식이다. 이는 당시 한국어 어휘론, 문법론 연구, 자유결합-연어-관용구의 경계에 대한 연구자들간의 합의가 현재보다 덜 확립된 이유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전학, 어휘론 관련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들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

4.2. 의미 단위 사전학의 주요 쟁점과 종합 용어의 의의

의미 단위 사전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말뭉치언어학에서는 언어 운용의 원리를 ‘규칙’보다는 ‘관습성’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관용어 원리’(idiom principle)(Sinclair 1991), 의미 단위 사전학¹⁵⁾에 대한 논의(Sinclair et al. 1970/2004 : xxiv, Stubbs 2009 : 131)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전학적 쟁점은 이러한 의미 단위 선별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사전 등재 단위로서 다단어 표현을 선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Atkins & Rundell(2008 : 3)의 논의나 “합성성을 가지는 구와 비합성성을 가지는 구(관용구)를 변별할 만한 통일된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연속성을 가지며 종종 구분이 모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Moon(1998)의 논의는 사전학적으로 관용표현, 연어, 고빈도 자유 결합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의 한계와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합성어와 관용구의 경계에 대한 문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로, 사전에서 특정 관용구나 연어를 합성어로 더러 등재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관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Bauer(2019 : 65) “합성어는 다단어 단위(MWE : multi-word expression)의 한 유형이며 서로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을 합성어와 다단어 단위가 가지는 기술과 해석의 문제가 동일한 유형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에 대해 한 가지 예시를 통해 의미 단위 사전의 쟁점이 여전히 미결의 과제이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 예문의 ‘보다’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14) 이에 대한 논의는 Atkins & Rundell(2008 : 3), 등 참조

15) ‘의미 단위 사전학’이라는 용어는 Sinclair et al.(1970/2004 : xxiv), Stubbs(2009 : 131) 등에서 논의된 궁극적인 사전은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를 담는 의미 단위 사전이라는 주장을 필자가 요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특히 후자에서는 이론언어학과 기술언어학 모두에서 광범위한 의미 단위의 수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의하면서, 이들 수집의 방법이나 경계의 문제는 사전의 목적이나 활용도를 고려할 해석의 문제일 뿐이며, 여전히 궁극적인 과제는 “전면적인 구 단위 사전(thorough-going phraseological dictionaries)”라고 제안한 바 있다.

- (15) ㄱ. 구(『큰』)-구(『표』): 손금 보다[-꿈-] 【제】 《민》 손금으로 길흉을 피다.
 ㄴ. 구(『큰』)-단어(『표』): 뜯어 보다 【남】 ①이 모 저 모, 이 구석 저 구
 석을 따로따로 갈라 가며 살펴 보다.
 ㄷ. 구(『큰』)-[없음](『표』): 뒷배 보다 【제】 표면(表面)에 나서는 않고
 남의 뒤에 있어서 일을 보살피 주다.
 ㄹ. 단어(『큰』)-단어(『표』): 손-보다2 【남】 결점이 없도록 손질하여 보살피다.
 (16) 손을 보다 (사람이 물건을) 문제가 생겨서 고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¹⁶⁾

(15)는 『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지위를 비교한 예로, 종합 용어로 기술된 (15ㄱ)~(15ㄷ)의 ‘보다’ 구성이 『우리말샘』에서 각각 구 표제어, 단어 표제어, 미등재어로 다양하게 반영되었음을, (15ㄹ)은 ‘손-보다’의 경우는 두 사전 모두에서 합성어로 기술되어 일치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일반인 사전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들 ‘보다’ 구성의 미묘한 관습성의 차이, 합성성의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15ㄹ)의 ‘손보다’의 예는 단적인 예로, (16)의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는 ‘손을 보다’로 ‘손’의 부표제어로 관용구로 기술되어 있다. ‘손보다’는 그 의미적 합성성으로 단어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그렇다고 ‘손을 보다’로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서의 처리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손을 보다’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외 『큰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기술되지 않았는데, 이는 재고가 필요하다. 모국어화자의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서의 의미 단위, 의미 단위의 전체를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손보다’와 더불어 ‘손을 보다’ 전체가 등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큰사전』은 1929 편찬회 발족 이후부터 1957년 사전 완성까지 장장 28년, 본격적인 편찬 실무 시작으로부터는 21년의 장정을 통해 편찬된 사전으로, 한국어 사전학에서 종합적인 첫 국어 대사전이라는 의의를 가진다.¹⁷⁾ 본 연구에서는 『큰사전』의 표제항의 구조와 표제어의 문법 범주를 현대 사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히 종합 용어의 사전학적 위상과 현대 사전학에서의 의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종합 용어’라는 범주는 해당 범주 자체의 어휘론적 통일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구 단위에 품사를 부여한 점 등 현대 사전학적 관점에서는 다소 특수한 처리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말뭉치 도입

16) 여기서 『큰』은 『큰사전』을 『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가리킨다.

17) 『큰사전』의 편찬 과정과 의의, 구성에 대한 개론은 조재수(202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후 ‘의미 단위’ 사전학의 논의를 고려할 때, 의미 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판별의 시도로도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 이극로(193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편찬 시점의 상황, 즉 단어의 형태와 표준이 닦아지지 않았을 무렵의 상황도 ‘종합 용어’라는 애매한 범주 설정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 맥락은 당시 편찬학자들의 의미 단위에 대한 직관을 반영한 것이며, 종합 용어를 통해 당시 편찬자들의 직관을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

전환기의 사전학, 위기의 사전학 등에 대한 논의는 웹 사전 이후 종이 사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쇠퇴, 사용자 참여형 사전의 방향성 부재, 생성형 AI 이후 사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저하 등 현대 사전 시장, 사전학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기본 단위인 ‘의미 단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완벽하게 범주화하고 추출할 수 있는지, 어떠한 구조로 기술되어야 할 것인지는 사전학자로서나 언어학자로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구 표제어에 대한 『큰사전』의 새로운 시도는 현대 사전학의 관점에서 재평가 받아야 마땅하다. 본 연구가 이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큰사전』의 종합 용어를 시작으로 의미 단위 사전학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 도원영·차준경(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 1-54.
 이극로(1936), 사전 편찬이 왜 어려운가(간추림), 『한글』 31.
 조재수(2021), 『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우리말 거두기와 정리의 역사-』, 한글학회.
 Atkins, B. S., and M. Rundell. (2008). The Oxford guide to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Bauer, L. (2019). Compounds and multi-word expressions in English. In B. Schlücker(Ed.), Complex Lexical Units: Compounds and Multi-Word Expressions (pp. 45-68). Berlin, Boston: De Gruyter.
 Landau, S. I. (1984), Dictionaries: The art and craft of lexicography. Macmillan Reference USA.
 Moon, R. (1998). Fixed expressions and idioms in English. Oxford: Clarendon Press.
 Sinclair J., S. Jones, and R. Daley. (1970/2004), English Collocation Studies: The OSTI Report, ed. R. Krishnamurthy. London: Continuum.(Originally mimeo 1970.)
 Stubbs, M. (2009). The Search for Units of Meaning; Sinclair on Empirical Semantics, Applied Linguistics 30/1;115-137.
 Tarp, S. (2020). A dangerous cocktail: Databases, information techniques and lack of visions. Studies on Multilingual Lexicography, 47-66.

제2부 주제 발표

『큰사전』과 『수정증보 국어대사전』(문세영) 외래어 표기 차이/ 강민하

국어사전의 의성어·의태어 미시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박동근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 ~ 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큰사전』과 『수정증보 국어대사전』(문세영)의 외래어 표기 차이: 영어와 일본어의 자음을 중심으로

강민하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alsgk1123@snu.ac.kr

1. 서론

본 연구는 광복 전후로 간행된 한국어 뜻풀이 사전인 『큰사전』(1947~57)과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0)에 등장하는 외래어 표기 중 자음 표기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큰사전』과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이하 ‘『문세영』’)은 완전한 모습을 갖춘 최초의 한국어 뜻풀이 사전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언어학적 의의를 가지는 사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사전의 외래어 자음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두 사전에 보이는 외래어 자음 표기의 차이를 논의할 것이다.

『큰사전』은 한글학회의 전신인 조선어학회가 간행한 사전이다. 『큰사전』 발간 사업은 이전에 간행되지 못한 『말모이』를 잇는 사업이었으며(이병근 2000 : 83-110), 그 작업은 193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광복 이후인 1947년에 1권이 간행되었고 1957년에 마지막 권인 6권 간행이 완료되었다(한글학회 2008 : 527-544, 조재수 2021 : 236-250). 『큰사전』의 총 올림말 수는 16만여 개로,¹⁾ 일반어뿐만 아니라 외래어, 전문어, 옛말, 사투리, 은

어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올림말의 외래어를 표기함에 있어서 라틴 알파벳만을 사용하지 않고 가나 문자(일본어 외래어), 키릴 문자(러시아 외래어)도 사용함으로써 원어 표기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문세영』은 1938년 문세영이 발간한 『조선어사전』을 수정하고 증보하여 간행한 한국어 뜻풀이 사전이다. 여러 인원이 작업에 참여한 『큰사전』과는 달리, 『문세영』 사전은 문세영이라는 개인이 제작한 사전이다(박용규 2011). 이 과정에서 본래 대략 8만 개였던 어휘수를 늘려 9만 여 어휘를 수록하였고,²⁾ 『큰사전』과 마찬가지로 일반어와 외래어, 전문어, 옛말, 사투리를 포괄하고 있다(조재수 2021 : 194-195). 그리고 『큰사전』보다 더 다양한 사투리 어휘를 담고 있으며, 오타를 담고 있는 어휘 또한 올림말로 수록하여 올바른 올림말로 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사전의 올림말 중에서 외래어에 해당하는 올림말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외래어’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김수현 2003 : 4), 본 연구에서 다루는 ‘외래어’는 박창원·김수현(2004 : 59-60)의 정의를 따라 고유어와 한자어가 아닌 어휘로 정의했다. 또한 『큰사전』 및 『문세영』의 범례를 확인하면 이들 외래어들이 다양한 언어에서 기원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기에 충분한 수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어 기원 외래어와 일본어 기원 외래어으로 연구 범위를 좁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큰사전』과 『문세영』에서 영어 기원 외래어 올림말과 일본어 기원 외래어 올림말을 모두 추출하였다. 『큰사전』의 외래어 수는 3,473개였으며, 그 중에서 영어 기원 외래어는 1,655개였고 일본어 기원 외래어는 38개였다. 『문세영』의 외래어 수는 1,996개였으며, 그 중에서 영어 기원 외래어는 1,732개였고 일본어 기원 외래어는 150개였다. 두 사전 모두 일본어 외래어는 가나 문자로 어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원의 복잡성과 불규칙한 표기 등으로 분석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유 명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추출한 외래어의 기원이 되는 어휘의 자음 음성을 확인하였다. 일본어의 경우, 표기가 비교적 규칙적이므로 어떤 문자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자음의 음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표기 심도가 깊은 영어 기원 외래

1) 『큰사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올림말 수는 164,125개이다. 그러나 2022년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 ㈜네이버가 진행한 『근현대 국어사전류 자료 구축 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올림말 수는 164,411개로 『큰사전』에서 밝히는 수보다 286개 더 많이 집계된다.

2) 황용주(2014 : 114)에 따르면 『문세영』의 올림말 수는 94,466개이다. 그러나 『근현대 국어사전류 자료 구축 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문세영』의 올림말 수는 94,516개이다.

어의 원어 음성을 파악할 때에는 로마자 표기를 국제 음성 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로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파이썬(Python, ver. 3.10.11)³⁾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영어 단어를 국제 음성 기호로 바꾸어주는 라이브러리인 eng-to-ipa(ver. 0.0.2)⁴⁾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자음들의 한글 표기를 살펴보았다. 한글 표기를 분석할 때 원어에서의 자음이 나타나는 위치를 고려하였으며, 자음군을 이루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였다. 또한, 한글 표기에서 자음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였기에, 한글 표기를 모두 예일 로마자 표기(Yale Korean Romanization, Martin 1992)를 변환한 후 자음 표기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한글 표기를 예일 로마자 표기로 바꿀 때에는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YaleKorean (ver. 1.0.1)⁵⁾을 사용하였다.

2. 선행연구

2.1. 『큰사전』과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외래어 표기

『문세영』은 구체적인 외래어 표기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간행된 사전이고, 『큰사전』은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고 통용된 이후의 사전이다. 이로 인해 외래어 표기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문세영』의 외래어 표기는 표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세영』의 저본에 해당하는 『조선어사전』(1938)에서도 마찬가지로, 『조선어사전』의 일러두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말은 그 말에 가장 가까운 발음을 취하고 원어도 참고로 기록한다’(김수현 2003 : 33)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외래어 표기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시기의 사전들이 옛한글이나 이미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자음 조합을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박창원·김수현 2004 : 61), 『문세영』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현용되는 자모로만 외래어를 표기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1937년에 간행된 『모던조선외래어사전』에서는 마찰음 /f, v/를 /ㅍ, ㅂ/라는 합용병서 표기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1). 그러나 『문세영』의 외래어에

3) Python Software Foundation. Python Language Reference, version 3.10.
Available at <http://www.python.org>

4) <https://pypi.org/project/eng-to-ipa/>

5) <https://pypi.org/project/YaleKorean/>

등장하는 비현용 자모 표기는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ash’의 /ʃ/에 쓰인 ‘쉬’ 두 건 뿐이다.

- (1) 『모던조선외래어사전』(1937)의 /f, v/ 표기 : 김수현(2003 : 40)에서 재인용
 foul ball - 싸울볼
 friend - 썬렌드
 Versailles - 베르사이으
 Wolfgang - 뽀뢴강
- (2) 『문세영』의 비현용 자모 표기
 cash - 카쉬
 cash register - 카쉬-레지스터

『큰사전』 역시 『문세영』처럼 표음주의를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세영』과는 달리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서 차이를 보인다.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제6장 제60항에 간략하게만 기술된 외래어 표기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확대한 규정으로, 조선어학회에서 작성하였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면 외래어 표기는 표음주의를 따르되, 일련의 음성-한글 대조표(표 1)에 맞추어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아래의 표기 체계에서는 현용 자모가 아닌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여러 개의 소리를 하나의 글자에 대응시킴으로써 표기의 복잡성도 줄이고 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각자병서 등의 된소리 표기를 거의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큰사전』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이러한 규칙을 비교적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빠터(batter)’처럼 위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표기도 드물게 발견된다(3.1 참고).

[표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사용된 국제 음성 기호 - 한글 대조표
 (박창원·김수현 2004 : 62; 김민수(1973 : 119)에서 재인용)

자음 - 비공명음					
p, p ^h , p', f	ㅍ	b, v, β	ㅂ	p'	ㅍ'
t, t ^h , t'	ㅌ	d, θ, ð	ㄷ	t'	ㄷ'
k, k ^h , k', q	ㅋ	g, ɔ̃, G	ㄱ	k'	ㄱ'
ʈ, ʈʰ, c, c ^h	ㅊ	z, dz, ʒ, dʒ	ㅈ	dʒ', ʃ', ɹ'	ㅈ'
s, ʃ	ㅅ			s'	ㅅ'

자음 - 공명음					
n, N	ㄴ	m	ㅁ	l, r, R	ㄹ
ŋ	ㅇ	ç, x, h	ㅎ		
w, ʌ	ㅍ	j	(ㅈ)		
모음					
i, ɪ	ㅣ	e, ɛ	ㅔ	æ	ㅐ
a, ɑ, ʌ	ㅏ	ʊ, ɔ, o	ㅜ	u, ʊ	ㅜ
ə, ɐ, ɜ	ㅓ	ㅗ	ㅡ	ø, œ	ㅛ
y, ʏ	ㅗ				

2.2. 외래어의 자음

개별 언어의 음소들은 특정 자질에서 대립한다. 그리고 그 양상은 언어별로 다르며, 외래어 표기에도 이러한 영향이 드러나게 된다. 자음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는 어두의 파열음, 치경 마찰음의 음성적 특징에서 차이를 보이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차이가 한글 표기 차이에도 나타나게 된다.

파열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성대 진동 개시 시간(VOT : Voice Onset Time)이다. 영어의 어두 파열음은 모두 무성음이지만, /g, d, b/는 짧은 VOT를 가지는 무기 무성음인 반면 /k, t, p/는 긴 VOT를 가지는 유기 무성음이다(표 2, Lisker & Leigh 1964 : 394).⁶⁾ 한국어의 어두 파열음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VOT에 따라 삼분 대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Lisker & Leigh 1964 : 397). VOT로만 본다면 한국어의 된소리는 영어의 무기 무성음에 가깝고, 한국어의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는 영어의 유기 무성음에 가깝다.

[표 2] 영어 어두 파열음의 VOT (Lisker & Leigh 1964 : 394)

	/g/	/d/	/b/	/k/	/t/	/p/
range	0 ~ 35	0 ~ 25	0 ~ 5	50 ~ 135	30 ~ 105	20 ~ 120
mean	21	5	1	80	70	58

6) 어두의 /g, d, b/를 유성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보고되지만, 다수는 이를 무기 무성음으로 발음한다. Lisker & Leigh (1964 : 394)는 실험을 통해 어두 /g, d, b/를 무기 무성음으로 발음하는 인원과 유성음으로 발음하는 인원을 각각 53/13, 63/13, 51/17로 제시하였다.

[표 3] 한국어 어두 파열음의 VOT (Lisker & Leigh 1964 : 397)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range	0 ~ 35	30 ~ 65	85 ~ 200	0 ~ 25	15 ~ 40	75 ~ 105	0 ~ 15	10 ~ 35	65 ~ 115
mean	19	47	126	11	25	94	7	18	91

일본어의 어두 파열음은 한국어 및 영어와는 달리 유성성에 따른 대립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Martin 1958 : 6-7, Homma 1980). 그러나 실제로 일본어의 유성 파열음은 한국어의 된소리나 예사소리와 같이 약한 기식을 가지는 자음이라는 보고가 존재한다(Homma 1980, 1981, Riney et al. 2007, 高田三枝子 2011, Kong et al. 2012). 다만, 이러한 모습은 대개 젊은 층에 한정해서 나타난다(高田三枝子 2004, 2011).

마찰음을 구별하는 가장 큰 요소는 마찰 지속 시간(frication duration)이다. 개별 마찰음의 마찰 지속 시간은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Jongman 1989).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치경구개 마찰음의 마찰 지속 시간이 가장 길며, 그 다음으로는 치경 마찰음, 양순 마찰음, 치 마찰음 순서로 짧아진다. 영어의 경우, 이 길이는 순서대로 176ms, 155ms, 103ms, 99ms 이다(You 1979). 그리고 영어의 마찰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 유성성 대립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미국 영어의 치 마찰음 /ð, θ/ 사이의 유성성 대립은 크지 않다. 반면 /f/와 /v/는 유성성에서 확실히 대립한다(Smith 2013).

한국어의 마찰음은 /ㅎ/를 제외한다면 /ㅅ, ㅆ/가 전부이다. 이 중 /ㅅ/은 거센소리가 아닌 예사소리로 분류된다(Cho et al. 2000). 마찰 지속 시간은 /ㅆ/가 /ㅅ/보다 짧으며, 마찰음을 구별하는 또 다른 요소인 무게 중심 주파수(centroid frequency)는 /ㅆ/가 /ㅅ/보다 높다. 한편 서울방언에 한정하자면, 기저 주파수(F0: fundamental frequency)는 /ㅆ/가 /ㅅ/보다 더 높지만, 오차 범위 이내이다. 일본어의 마찰음은 마찰 지속 시간에 따른 대립을 보이지 않지만, 후행하는 고모음이 무성음화되기도 한다(Whang 2018, Byun 2023).

3. 외래어 자음의 한글 표기 분석

본 장은 영어와 일본어에 대한 『문세영』과 『큰사전』의 한글 자음 표기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영어의 자음은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 접근음으로 나누어 그 한글 표기를 제시하였다(3). 또한 등장하는 위치(어두, 어중,

어말)에 따라 각 표기의 빈도수를 제시하였다. 한글 표기를 예측하기 쉬운 /h/, /n/, /m/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글에서 자음이 아닌 모음으로 표기되는 반자음 /j, w/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분석 대상이 된 영어 자음

가. 파열음 : /g, d, b, k, t, p/

나. 마찰음 : /s, ʃ, f, θ, z, ʒ, v, ð/

다. 파찰음 : /tʃ, ʒʃ/

라. 접근음 : /r, l/

일본어의 자음은 파열음과 마찰음, 접근음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4), 이를 다시 등장 위치와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다. 일본어의 파찰음은 고모음에 선행하는 파열음의 변이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파찰음을 파열음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영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글 표기를 예측하기 쉬운 /h/, /m/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반모음 /w/와 더불어 소위 ‘요음(拗音)’에 포함되어 있는 반모음 /j/도 제외하였다. 그리고 중첩 자음인 축음(促音)과 선행 자음의 영향을 받는 비음인 발음(撥音) ‘ん’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분석 대상이 된 일본어 자음

가. 파열음 : /g, d, b, k, t, p/

나. 마찰음 : /s, z/

다. 탄음 : /r/

3.1. 영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자음의 한글 표기

3.1.1. 파열음

영어 어두 파열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어 어두 파열음의 한글 표기

		어두 /g, d, b/ (unaspirated)			어두 /k, t, p/ (aspirated)		
		g	d	b	k	t	p
문세영	_V	ㄱ 35	ㄷ 52	ㅂ 104	ㄱ -	ㄷ -	ㅂ -
		ㄱ 1	ㄷ 5	ㅂ 2	ㄱ -	ㄷ -	ㅂ -

	_C	ㄱ -	ㄷ -	ㄹ 1	ㄱ 154	ㄷ 80	ㄹ 106
		ㄱ -	ㄷ 18	ㄹ 15	ㄱ -	ㄷ -	ㄹ -
		ㄱ 13	ㄷ -	ㄹ -	ㄱ -	ㄷ -	ㄹ -
		ㄱ -	ㄷ -	ㄹ -	ㄱ 46	ㄷ 61	ㄹ 62
큰사전	_V	ㄱ -	ㄷ -	ㄹ 1	ㄱ -	ㄷ -	ㄹ -
		ㄱ 66	ㄷ 76	ㄹ 120	ㄱ 1	ㄷ -	ㄹ -
		ㄱ -	ㄷ -	ㄹ -	ㄱ 204	ㄷ 103	ㄹ 94
	_C	ㄱ -	ㄷ -	ㄹ -	ㄱ -	ㄷ -	ㄹ -
		ㄱ 21	ㄷ 20	ㄹ 10	ㄱ -	ㄷ -	ㄹ -
		ㄱ -	ㄷ -	ㄹ -	ㄱ 74	ㄷ 66	ㄹ 65

『문세영』에서 어두의 /g, d, b/가 단독으로 등장할 경우 대체로 된소리로 표기되며, /d, b/는 자음군 안에서 등장해도 된소리로 표기된다. 이는 영어의 어두 /g, d, b/가 무성 무기음인 점과 연결된다. 예외적으로 /g/는 자음이 후행하면 큰사전과 마찬가지로 예사소리로 표기된다. 그리고 『문세영』에서는 어두 /k, t, p/를 모두 거센소리로 표기한다(5). 한편, 어두 /b, p/는 자음이 후행할 때 /ㅡ/를 동반하는 다른 자음들과는 달리, 1건과 4건을 제외하면 자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 원순모음 /ɪ/를 동반한다(7a, b). 또한 일부 어휘들은 어두에 /g, d, b/가 등장함에도 예사소리 또는 거센소리로 표기된다(8).

『큰사전』의 어두 /g, d, b/는 2.1에서 언급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1941)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어두 /b/를 가지는 Batter는 ‘빠터’로 된소리 표기를 보인다. 그리고 『큰사전』의 어두 /k, t, p/는 일부 예외를 1건을 제외하면 모두 거센소리로 표기된다(6). 또한 『큰사전』 역시 『문세영』과 마찬가지로 자음이 후행하는 환경에서 등장하는 /b/가 원순모음 /ɪ/를 동반하는 표제어가 두 건 등장한다(7c).

(5) 영어 어두 파열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g/: Guard ‘까드’, Ground ‘그라운드’
- /d/: Double ‘따블’, Drink ‘드링크’
- /b/: Basket ‘빠스켓’, Blind ‘블라인드’
- /k/: Current ‘커렌트’, Class ‘클라쓰’
- /t/: Title ‘타이틀’, Trumpet ‘트럼페트’
- /p/: Patron ‘페이트론’, Pride ‘푸라이드’

(6) 영어 어두 파열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g/: Guard ‘가:드’, Ground ‘그라운드’
- /d/: Double ‘다블’, Dribble ‘드리블’

- c. /b/: Basket ‘바:스키투’, Blues ‘블루스’
- d. /k/: Curtain ‘커:튼’, Cross kick ‘크로스^키키’
- e. /t/: Title ‘타이틀’, Trumpet ‘트람피트’
- f. /p/: Painter ‘페인터’, Pride ‘프라이드’

(7) 어두 자음군 내에 등장하는 /b, p/에 대한 표기 예외

- a. 『문세영』에서 어두 자음군 /b, p/가 모음 /ɪ/를 동반하는 예시
Brandy ‘뿌란디’, Print ‘푸린트’
- b. 『문세영』에서 어두 자음군 /b, p/가 모음 /ɪ/를 동반하지 않는 예시
Record breaking ‘레코드-쁘레킹’, Name plate ‘네임-플레트’
- c. 『큰사전』에서 어두 자음군 /b, p/가 모음 /ɪ/를 동반하는 예시
Ivory black ‘아이버리-블랙크’, Air brush ‘에어-부라쉬’

(8) 어두에서 예사소리 또는 거센소리로 표기되는 『문세영』의 무기 무성음

- a. 예사소리: Beauty ‘뷰티’, Day ‘데이’, Duty ‘듀티’
- b. 거센소리: Beef-steak ‘피푸-스틱’

영어 어중 파열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5와 같다.⁷⁾ 『문세영』은 대체로 후행하는 요소에 상관없이 어중 /g, d, b/를 예사소리로, 어중 /k, t, p/를 거센소리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9). 그러나 어중 /g, d, b/를 된소리로 표기하는 예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11). 또한 어중 /k/의 경우, 자음이 후행하면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12a). 한편 어중 /t/를 /ㅌ/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1건 발견된다(13a).

『큰사전』 역시 어중 /g, d, b/를 예사소리로, 어중 /k, t, p/를 거센소리로 표기한다(10). 하지만 『문세영』과 비슷하게 자음이 후행하는 어중 /k/를 예사소리로 표기한다(12b). 또한 두 사전 모두에서 어중 /p/를 어중 /t/에 비해 예사소리로 더 빈번하게 표기한다. 그리고 어중 /t/를 /ㅌ/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3건 발견된다(13b).

[표 5] 영어 어중 파열음의 한글 표기

		어중 /g, d, b/ (unaspirated)			어중 /k, t, p/ (aspirated)		
		g	d	b	k	t	p
문세영	_V	ㄱ 2	ㄷ -	ㅂ 13	ㄱ -	ㄷ -	ㅂ -
		ㄱ 26	ㄷ 81	ㅂ 31	ㄱ -	ㄷ 1	ㅂ 1
		ㅋ -	ㅌ -	ㅍ -	ㅋ 104	ㅌ 203	ㅍ 75

7) 표 5에서는 아래와 같이 종성과 초성에 연달아 동일한 자음이 오는 경우도 된소리 표기로 세고 있음을 참고하라. 예: Lobbing ‘롭빙’

큰사전	_C	ㄱ 2	ㄴ 4	ㄷ -	ㄹ -	ㄷ -	ㄷ -
		ㄱ 17	ㄴ 2	ㄷ 3	ㄹ 36	ㄷ -	ㄷ 5
		ㄱ -	ㄴ -	ㄷ -	ㄹ 5	ㄷ 20	ㄷ 21
	_V	ㄱ -	ㄴ -	ㄷ -	ㄹ -	ㄷ -	ㄷ -
		ㄱ 37	ㄴ 82	ㄷ 53	ㄹ -	ㄷ -	ㄷ 1
		ㄱ -	ㄴ -	ㄷ -	ㄹ 105	ㄷ 178	ㄷ 66
	_C	ㄱ -	ㄴ -	ㄷ -	ㄹ -	ㄷ -	ㄷ -
		ㄱ 2	ㄴ 10	ㄷ 3	ㄹ 45	ㄷ -	ㄷ 8
		ㄱ -	ㄴ -	ㄷ -	ㄹ -	ㄷ 3	ㄷ 8

(9) 영어 어중 파열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g/: Egotism ‘에고티즘’, Diagram ‘파이아그람’
- /d/: Medical science ‘메디칼-사이언스’, Advertiser ‘애드버타이저’
- /b/: Liberty ‘리버티’, Observer ‘옵저버’
- /k/: Local ‘로칼’, Jacket ‘자켓’
- /t/: Determinism ‘데타미니즘’, Chemistry ‘케미스트리’
- /p/: Dumping ‘덤핑’, Impression ‘임프레션’

(10) 영어 어중 파열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g/: Negative ‘네거티브’, Diagram ‘다이어-그램’
- /d/: Modern ‘모던’, Advertisement ‘어드버:티스-먼트’
- /b/: Liberty ‘리버티’, Observer ‘옵저:버’
- /k/: Escalator ‘에스컬레이터’, Orchestra ‘오:케스트라’
- /t/: Detector ‘디텍터’, Outline ‘아우틀-라인’
- /p/: Dumping ‘담핑’, Diplomat ‘디플로-매트’

(11) 『문세영』에서 어중 /g, d, b/가 된소리로 표기되는 예

- /g/: Delegate ‘텔레게트’, Rugby ‘라꾸비’
- /d/: Address ‘아드레스’
- /b/: Ambition ‘암비션’

(12) 예사소리로 표기되는 어중 /k/

- 『문세영』: Lecture ‘렉튜어’, Nickname ‘닉네임’
- 『큰사전』: Necktie ‘넥-타이’, Detector ‘디텍터’

(13) 받침 /ㅅ/으로 표기되는 어중 /t/

- 『문세영』: Platform ‘플랫폼’
- 『큰사전』: Rugby football ‘락비-풋볼’, Outside ‘아웃사이드’, Platform ‘플랫폼’

영어 어말 파열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어 어말 파열음의 한글 표기

		어말 /g, d, b/ (unaspirated)			어말 /k, t, p/ (aspirated)		
		g	d	b	k	t	p
문세영	_#	ㄱ -	ㄷ -	ㅃ -	ㄱ -	ㄷ -	ㅃ -
		ㄱ 11	ㄷ 90	ㅃ 4	ㄱ 45	ㄷ 4	ㅃ 8
		ㅋ -	ㅌ -	ㅍ -	ㅋ 59	ㅌ 212	ㅍ 41
	_C#	-	-	-	ㄱ 16	-	ㅃ 1
큰사전	_#	ㄱ -	ㄷ -	ㅃ -	ㄱ -	ㄷ -	ㅃ -
		ㄱ 12	ㄷ 106	ㅃ 1	ㄱ 12	ㅌ 15	ㅃ 12
		ㅋ -	ㅌ -	ㅍ -	ㅋ 103	ㅌ 246	ㅍ 53
	_C#	-	-	-	ㄱ 11	-	ㅃ 1
					ㅋ 16		ㅍ -

『문세영』은 어말 /g, d, b/를 예외없이 예사소리로 표기했다. 반면 어말 /k, t, p/의 한글 표기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표기가 혼재되어 있다(14). 그리고 『문세영』의 어말 /d, b/와 어말 /k, t, p/는 대개 모음 /ㅡ/를 동반하며, 어말 /g/는 주로 모음 /ㅓ/를 동반한다. 그러나 받침 /ㄱ/으로 표기되는 어말 /g/의 예시가 5건, 받침 /ㄷ/으로 표기되는 어말 /d/의 예시가 4건 존재하며, 어말 /b/는 모두 받침 /ㅃ/로 표기된다. 어말 /k/는 받침 /ㄱ/으로 13건, 받침 /ㅋ/으로 14건 표기되며, 어말 /t/는 받침 /ㄷ/으로 5건, 받침 /ㅌ/으로 43건 표기된다. 또한 어말 /p/는 받침 /ㅃ/으로 8건, 받침 /ㅍ/으로 27건 표기된다(16).

『큰사전』 역시 어말 /g, d, b/를 예외없이 예사소리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문세영』과 비슷하다. 그리고 어말 /g, d, b/가 모두 모음 /ㅡ/를 동반한다. 어말 /k, t, p/ 역시 대개 모음 /ㅡ/를 동반한다(15). 그러나 어말 /k/를 받침 /ㄱ/으로 표기한 어휘가 5개, 어말 /p/를 받침 /ㅃ/로 표기한 어휘가 8개 있다. 그리고 『문세영』과는 달리 어말 /t/를 받침 /ㅌ/으로 표기한 어휘가 15개 존재한다(17).

(14) 영어 어말 파열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g/: League ‘리구’
- /d/: Guard ‘까드’
- /b/: Club ‘클럽’

- d. /k/: Trade Mark ‘트레드-마크’, Index ‘인덱스’
 - e. /t/: Dynamite ‘다이ना마이트’
 - f. /p/: Group ‘그루프’, Depth bomb ‘데프드-뿔’
- (15) 영어 어말 파열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a. /g/: Demagogue ‘데머고그’
 - b. /d/: Guard ‘까:드’
 - c. /b/: Club ‘클라브’
 - d. /k/: Trade mark ‘트레이드-마:크’, Aspect ‘에스펙트’
 - e. /t/: Dynamite ‘다이나-마이트’
 - f. /p/: Stamp ‘스탬프’, Dropped goal ‘드롭트-골:’
- (16) 『문세영』에서 어말 /g, d, b/ 및 /k, t, p/가 받침으로 표기된 예시
- a. /g/: Drag ‘뜨락’
 - b. /d/: Salad ‘쌀랄’
 - c. /b/: Club ‘클럽’
 - d. /k/: Notebook ‘노트-뽁’, Stick ‘스틱’
 - e. /t/: Blanket ‘뽕랭켄’, Night ‘나일’
 - f. /p/: Pipe ‘파이프’, Handicap ‘핸디캡’
- (17) 『큰사전』에서 어말 /k, t, p/가 받침으로 표기된 예시
- a. /k/: Diatonic ‘다이어-토닉’
 - b. /t/: Duet ‘듀엣’
 - c. /p/: One step ‘원-스텝’

3.1.2. 마찰음

영어 어두 마찰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7과 같다. 음소 배열 제약으로 인해 어두에 등장하지 않는 /ʒ/만 제외하면, 두 사전 모두 마찰음에 대해 일관된 표기 경향을 보인다(18, 19). 표 7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문세영』과 『큰사전』 모두 /z, v, ð, ʃ, f, θ/를 각각 /ㅈ, ㅂ, ㄷ, ㅅ, ㅍ, ㅌ/로 규칙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치 마찰음 /ð, θ/가 모두 /ㄷ/로 표기된다는 사실은, 영어 치 마찰음 사이의 유성성 차이가 크지 않다는 Smith(2013)의 관찰을 반영한다. 다만, 『문세영』에서 어두의 /s/는 모음이 후행할 경우 주로 /ㅍ/으로 표기된다. 모음이 후행하는 어두 /s/가 /ㅅ/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5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20).

[표 7] 영어 어두 마찰음의 한글 표기

		어두 /z, ʒ, v, ð/ (voiced)				어두 /s, ʃ, f, θ/ (voiceless)			
		z	ʒ	v	ð	s	ʃ	f	θ
문세영	_V	ㄷ -		ㅁ -	ㅌ -	ㄷ 123	ㄷ -	ㅁ -	ㅌ -
		ㅈ 1	-	ㅊ 21	ㅊ 1	ㅈ 5	ㅈ 11	ㅊ -	ㅊ 4
		ㅊ -		ㅈ -	ㅈ -			ㅈ 56	ㅈ -
	_C	-	-	-	-	ㅈ 98	-	ㅊ -	ㅊ 4
큰사전	_V	ㄷ -		ㅁ -	ㅌ -	ㄷ -	ㄷ -	ㅁ -	ㅌ -
		ㅈ 2	-	ㅊ 19	ㅊ 2	ㅈ 109	ㅈ 22	ㅊ -	ㅊ 5
		ㅊ -		ㅈ -	ㅈ -			ㅈ 50	ㅈ -
	_C	-	-	-	-	ㅈ 112	-	ㅊ -	ㅊ 5
								ㅈ 9	ㅈ -

(18) 영어 어두 마찰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z/: Zero ‘제로’
- /v/: Virgin ‘버진’
- /ð/: These ‘데제’⁸⁾
- /s/: Sound ‘싸운드’, Score ‘스코어’
- /ʃ/: Shoot ‘쑈’
- /f/: Phonetics ‘포네틱스’, Fresh ‘프레쉬’
- /θ/: Third ‘더드’, Through train ‘드루-트레인’

(19) 영어 어두 마찰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z/: Zero ‘제로’
- /v/: Value ‘벨류’
- /ð/: On the mark ‘온-더-마크’
- /s/: Sound box ‘사운드-박스’, Score ‘스코어’
- /ʃ/: Shoot ‘슈트’
- /f/: Phonetics ‘포네틱스’, Free kick ‘프리-킥’
- /θ/: Third ‘더드’, Throw in ‘드로-인’

(20) 모음이 후행하는 어두 /s/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ʃ/: Symphony ‘썸포니’
- /ʃ/: Moon light sonata ‘문-라일-소나타’

8) 본래 발음은 [ðiz]이다. 따라서 영어 발음이 아닌, 라틴어 발음을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어 어중 마찰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8과 같다.

[표 8] 영어 어중 마찰음의 한글 표기

	어중 /z, ʒ, v, ð/ (voiced)				어중 /s, ʃ, f, θ/ (voiceless)			
	z	ʒ	v	ð	s	ʃ	f	θ
문세영	ㄷ -	ㄷ -	ㅂ -	ㅌ -	ㅅ 33	ㅅ 5	ㅃ -	ㅌ -
	ㅈ 77	ㅈ 4	ㅅ 48	ㅊ 7	ㅅ 83	ㅅ 74	ㅅ 1	ㅌ 16
	ㅅ 11	ㅅ 1	ㅅ -	ㅅ -			ㅅ 41	ㅅ -
큰사전	ㄷ -	ㄷ -	ㅂ -	ㅌ -	ㅅ -	ㅅ -	ㅃ -	ㅌ -
	ㅈ 50	ㅈ 1	ㅅ 51	ㅊ 2	ㅅ 102	ㅅ 52	ㅅ 1	ㅌ 12
	ㅅ 5	ㅅ 5	ㅅ -	ㅅ -			ㅅ 39	ㅅ -

영어의 치경 마찰음과 후치경 마찰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에는 예사소리와 된소리가 혼재되어 있다(21). /z, ʒ/는 예사소리 /ㅈ/으로 표기되며, 일부는 /ㅅ/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s, ʃ/는 된소리와 예사소리 모두로 표기되며, 예사소리로 표기되는 비율이 더 높다. /v, ð, f, θ/는 어두에서와 마찬가지로 /ㅂ, ㅌ, ㅅ, ㅊ/로 표기된다. 다만 어중의 /f/가 받침 /ㅂ/으로 표기되는 예가 하나 존재하며, 어중의 /θ/가 /ㅅ/으로 표기되는 예가 하나 존재한다(23).

『큰사전』 역시 /z, ʒ/를 /ㅈ/과 /ㅅ/ 모두로 표기한다. 이 때, /ʒ/이 /ㅅ/으로 표기되는 예시가 /ㅈ/으로 표기되는 예시보다 더 많다. 이외에 /v, ð, f, θ/는 어두에서와 마찬가지로 /ㅂ, ㅌ, ㅅ, ㅊ/로 표기되며, /f/가 받침 /ㅂ/으로 표기되는 예가 하나 존재하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규칙적이다(22, 24).

(21) 영어 어중 마찰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z/: Museum ‘뮤지엄’
- /ʒ/: Television ‘텔레비죤’
- /v/: Review ‘레뷰’
- /ð/: Mother ‘머더’
- /s/: Nursery ‘너어사리’
- /ʃ/: National ‘내슈날’
- /f/: Definition ‘페피니션’
- /θ/: Method ‘메도드’

(22) 영어 어중 마찰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z/: Season ‘시:즌’
- /ʒ/: Illusion ‘일류션’, Television ‘텔레비전’

- c. /v/: Review ‘리뷰’
- d. /ð/: Rhythm ‘리듬’
- e. /s/: Condenser ‘컨덴서’
- f. /ʃ/: National ‘내셔널’
- g. /f/: Defence ‘디펜스’
- h. /θ/: Authority ‘오:도리티’

(23) /f, θ/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 a. /f/ -> /ㅍ/: Offset ‘오프셋’
- b. /θ/ -> /ㅅ/: Marathon ‘마라손’

(24) /f/에 대한 『큰사전』의 불규칙 표기

- /f/ -> /ㅍ/: Offset ‘오프셋’

영어 어말 마찰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9과 같다.

[표 9] 영어 어말 마찰음의 한글 표기

		어말 /z, ʒ, v, ð/ (voiced)				어말 /s, ʃ, f, θ/ (voiceless)			
		z	ʒ	v	ð	s	ʃ	f	θ
문세영	_#	ㅈ -		ㅍ -		ㅈ 60	ㅈ -	ㅍ -	ㅈ -
		ㅈ 7	-	ㅍ 18	-	ㅈ 70	ㅈ 9	ㅍ -	ㅈ 7
		ㅈ 18		ㅍ -		ㅈ 2		ㅍ 19	ㅈ 2
	_C#	ㅈ -				ㅈ 2		ㅍ -	
		ㅈ 3	-	-	-	ㅈ 46	-	ㅍ -	-
		ㅈ -						ㅍ 8	
큰사전	_#	ㅈ -		ㅍ -		ㅈ 3	ㅈ -	ㅍ -	ㅈ -
		ㅈ 13	-	ㅍ 16	-	ㅈ 141	ㅈ 6	ㅍ -	ㅈ 3
		ㅈ 7		ㅍ -				ㅍ 14	ㅈ -
	_C#	ㅈ -				ㅈ -		ㅍ -	
		ㅈ 1	-	-	-	ㅈ 39	-	ㅍ -	-
		ㅈ -						ㅍ 8	

『문세영』의 어말 마찰음 표기는 불규칙성이 다른 자음이나 위치에 비해 심하다(25). 어말의 /s/를 /ㅈ/으로 표기하는 용례가 2건 존재하며, 어말의 /ʃ/는 Vanish ‘와니스’를 제외하면 모두 /쉬/로 나타난다. 한편 어말의 /ft/는 /프트/, 어말의 /fs/는 /푸스/로 나타나며, /f/로 끝나는 어휘 중 2건은 /푸/, 1건은 /후/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프/로 표기된다. 어말 /θ/와 /z/는 /ㅅ/으로 표기되는 용례가 2건과 18건 존재하며, /z/가 아예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는 9건 존재한다(27).

『큰사전』의 어말 마찰음 표기는 『문세영』의 어말 마찰음 표기보다 규칙적이다(26). 어말 /ʃ/는 항상 /쉬/로 나타나며, 어말 /z/가 /스/으로 표기되는 용례가 7건 존재한다. 또한 어말의 /f, v, θ/는 항상 /프, 브, 드/로 나타난다(28).

(25) 영어 어말 마찰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a. /z/: Jazz ‘짜즈’, Realism ‘리알리즘’
- b. /v/: Love ‘러브’
- c. /s/: Nice ‘나이쓰’, Nonsense ‘넌센스’, Desk ‘데스크’
- d. /ʃ/: Dash ‘때쉬’
- e. /f/: Knife ‘나이프’, Gift ‘끼프트’
- f. /θ/: Bath ‘빠드’

(26) 영어 어말 마찰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a. /z/: Jazz ‘재즈’, Realism ‘리얼리즘’
- b. /v/: Curve ‘커:브’
- c. /s/: Dance ‘단:스’, Desk ‘데스크’
- d. /ʃ/: Dash ‘대쉬’
- e. /f/: Knife ‘나이프’, Left ‘레프트’
- f. /θ/: Cloth ‘클로드’

(27) 어말 마찰음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 a. /s/ -> /스/: Loose ‘루즈’
- b. /f/ -> /푸/: Beef steak ‘피푸-스틱’
/f/ -> /후/: Laugh Paper ‘라후-페퍼’
/fs/ -> /푸스/: Cuffs ‘커푸스’
- c. /θ/ -> /스/: Mammoth ‘맘모스’
- d. /z/ -> /스/: News ‘뉴스’

(28) 어말 마찰음에 대한 『큰사전』의 불규칙 표기

- /z/ -> /스/: News ‘뉴스’

3.1.3. 파찰음

영어 파찰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10과 같다.

[표 10] 영어 파찰음의 한글 표기

	ㄸ (어두)	ㄸ (어중)	ㄸ (어말)	ㅌ (어두)	ㅌ (어중)	ㅌ (어말)
문세영	ㄸ 12 ㅌ 18	ㄸ - ㅌ 32	ㄸ 2 ㅌ 15	ㅌ 1 ㅌ 1	ㅌ - <u>ㅌ 16</u>	ㅌ - ㅌ -

	ㄸ -	<u>ㄸ 2</u>	ㄸ -	ㄸ 15	ㄸ 9	ㄸ 26
큰사전	ㅈ -	ㅈ -	ㅈ -	ㅈ -	ㅈ -	
	ㅈ 16	ㅈ 18	ㅈ 21	ㅈ -	<u>ㅈ 4</u>	-
	ㄸ -	ㄸ -	ㄸ -	ㄸ 12	ㄸ 19	

『문세영』에서는 대체로 파찰음 /ㄸ, ㅈ/를 /ㅈ, ㄸ/로 표기한다(29). 그러나 어두 /ㄸ/를 /ㅈ/로 표기하는 용례가 12건 존재한다. 또한 어중 /ㄸ/은 /ㄸ/으로 표기되기도 하며(2건), 어말 /ㄸ/는 /ㅈ/로 표기되기도 한다(2건). 어두 /ㅈ/는 /ㅈ/와 /ㅈ/로 각각 1번씩 표기되기도 하며, 어중의 /ㅈ/는 받모음 /j/를 동반하는 /ㅈ/로 더 많이 표기된다. 또한 어말의 /ㅈ/는 주로 /ㅈ/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예시가 4개 존재한다(31).

『큰사전』 역시 파찰음 /ㄸ, ㅈ/를 /ㅈ, ㄸ/로 표기한다(30). 다만 큰사전 역시 어중의 /ㅈ/를 /ㅈ/로 표기하는 용례가 4건 존재한다(32).

(29) 영어 파찰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어두 /ㄸ/: Gesture ‘제스튜어’
- 어중 /ㄸ/: Original ‘오리지날’
- 어말 /ㄸ/: Stage ‘스테지’
- 어두 /ㅈ/: Change ‘찬지’
- 어중 /ㅈ/: Merchant ‘머첸트’
- 어말 /ㅈ/: Lunch ‘런취’

(30) 영어 파찰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어두 /ㄸ/: Gesture ‘제스튜어’
- 어중 /ㄸ/: Agitation ‘아지테이션’
- 어말 /ㄸ/: Package ‘패키지’
- 어두 /ㅈ/: Chocolate ‘초콜리트’
- 어중 /ㅈ/: Miniature ‘미니쳐’

(31) 파찰음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 어두 /ㄸ/ -> /ㅈ/: Junior ‘쥬니아’
- 어중 /ㄸ/ -> /ㄸ/: Soldier ‘솔다’
- 어말 /ㄸ/ -> /ㅈ/: Knowledge ‘날레찌’
- 어두 /ㅈ/ -> /ㅈ/: Charm ‘썸’
어두 /ㅈ/ -> /ㅈ/: Chocolate ‘조콜렐’
- 어중 /ㅈ/ -> /ㅈ/: Overture ‘오버튜어’
- 어말 /ㅈ/ -> X/취/: Church ‘처치’

(32) 파찰음에 대한 『큰사전』의 불규칙 표기

어중 /ʃ/ -> /ㅌ/: Statue ‘스태튜’

3.1.4. 접근음

영어 접근음의 사전별 한글 표기는 표 11과 같다. 영어의 /l/은 『문세영』과 『큰사전』에서 모두 대체로 /ㄹ/로 표기된다. 그러나 영어의 /r/은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문세영』에서 어두의 /r/은 /ㄹ/로 표기되지만, /으ㄹ/로 표기되는 경우가 2건 존재한다. 또한, 어중과 어말의 /r/은 표기에 아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일부만 /ㄹ/로 표기에 반영된다(35).⁹⁾ 『큰사전』 역시 어두의 /r/이 /으ㄹ/로 표기되는 경우가 4건 존재하며(36), 어중과 어말의 /r/은 선행하는 모음이 장모음화된 형태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다.

[표 11] 영어 접근음의 한글 표기

		l (어두)	l (어중)	l (어말)	r (어두)	r (어중)	r (어말)
문세영	-	ㄹ 82	ㄹ - ㄹㄹ 227 ㅇ -	ㄹ 170	ㄹ 81	ㄹ 172	ㄹ 1
		ㄹㄹ -		ㄹㄹ -	ㄹㄹ -	ㄹㄹ -	ㄹㄹ -
	자음군	ㅇ -		ㅇ -	ㅇ -	ㅇ -	ㅇ 67
		ㄹ -		ㄹ 28	ㄹ 121	ㄹ 6	ㄹ 2
큰사전	-	ㄹㄹ 38	ㄹ - ㄹㄹ 157 ㅇ -	ㄹㄹ -	ㄹㄹ -	ㄹㄹ -	ㄹㄹ -
		ㅇ -		ㅇ -	ㅇ -	ㅇ 75	ㅇ 205
	자음군	ㄹ -		ㄹ 178	ㄹ 69	ㄹ 147	: 16
		ㄹㄹ 65		ㄹㄹ -	ㄹㄹ -	ㄹㄹ -	ㄹㄹ -
큰사전	-	ㅇ -	ㄹ - ㄹㄹ 157 ㅇ -	ㅇ -	ㅇ -	ㅇ -	ㅇ 204
		ㄹ -		ㄹ 33	ㄹ 126	: 103	: 76
	자음군	ㄹㄹ 65		ㄹㄹ -	ㄹㄹ -	ㄹㄹ -	ㄹㄹ -
		ㅇ -		ㅇ -	ㅇ -	ㅇ 26	ㅇ 12

(33) 영어 접근음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어두 /l/: Letter ‘레터’, Glass ‘글래스’
- 어중 /l/: Dollar ‘달러’
- 어말 /l/: Goal ‘골’, Gold ‘골드’
- 어두 /r/: Runner ‘런너’, Green ‘그린’
- 어중 /r/: Garage ‘까레지’, Harmony ‘하모니’

9) 『문세영』에서 표기에 드러나지 않는 /r/은 실제로는 『큰사전』과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모음의 장모음이 됨으로써 드러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문세영』은 외래어에 장단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다.

f. 어말 /r/: Guitar ‘끼타’, Heart ‘하트’

(34) 영어 접근음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a. 어두 /l/: Left ‘레프트’, Glass ‘글라:스’
- b. 어중 /l/: Dollar ‘달라’
- c. 어말 /l/: Goal ‘골:’, Guild ‘길드’
- d. 어두 /r/: Runner ‘라너’, Ground ‘그라운드’
- e. 어중 /r/: Harmony ‘하:모니’, Service ‘서비스’
- f. 어말 /r/: Mark ‘마:크’, Modern ‘모던’

(35) 영어 접근음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 a. 어두 /r/ -』 /으르/: Home run ‘홈-으런’, Naval review ‘네발-으레뷰’
- b. 어중 /r/ -』 /르/: Cartel ‘칼텔’
- c. 어말 /r/ -』 /르/: Arc camera ‘왁-캐메라’

(36) 영어 접근음에 대한 『큰사전』의 불규칙 표기

어두 /r/ -』 /으르/: Drawing room ‘드로:잉-으룸’, Waiting room ‘웨이팅-으룸’

3.2. 일본어에서 유래한 외래어 자음의 한글 표기

3.2.1. 파열음

일본어의 /k, g/는 후행하는 모음의 음가에 따라 표 12 및 표 13과 같은 한글 표기 양상을 보인다.

[표 12] 일본어 /k/의 한글 표기

		ka	ki	ku	ke	ko
문세영	어두	ㄱ -	ㄱ -	ㄱ -	ㄱ -	ㄱ -
		ㄱ 11	ㄱ 5	ㄱ 1	ㄱ 1	ㄱ 5
		ㅋ -	ㅋ -	ㅋ -	ㅋ -	ㅋ -
	비어두	ㄱ 8	ㄱ 24	ㄱ 12	ㄱ 5	ㄱ 4
		ㄱ 5	ㄱ -	ㄱ 2	ㄱ 3	ㄱ -
		ㅋ -	ㅋ -	ㅋ 1	ㅋ -	ㅋ -
큰사전	어두	ㄱ -	ㄱ -	ㄱ -	ㄱ 1	ㄱ -
		ㄱ 4	<u>ㄱ 1</u>	ㄱ 2	ㄱ -	ㄱ 2
		ㅋ -	ㅋ -	ㅋ -	ㅋ -	ㅋ -
	비어두	ㄱ 1	ㄱ 2	ㄱ 2	-	ㄱ 1

		ㄱ -	ㄱ -	ㄱ -		ㄱ -
		ㅋ -	ㅋ -	ㅋ -		ㅋ -

[표 13] 일본어 /g/의 한글 표기

		ga	gi	gu	ge	go
문세영	어두	-	-	-	-	-
	비어두	ㄱ 8 ㅋ -	ㄱ 3 ㅋ -	ㄱ 1 ㅋ -	ㄱ 1 ㅋ -	-
큰사전	어두	-	ㄱ - ㅋ -	-	ㄱ 1 ㅋ -	-
	비어두	ㄱ 1 ㅋ -	ㄱ 1 ㅋ -	ㄱ 1 ㅋ -	-	-

『문세영』은 어두의 /k/는 예사소리 /ㄱ/으로 표기하고, 어두에 나타나지 않는 /k/는 된소리 /ㄱ/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37). 그러나 비어두 /k/를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예시가 10개 존재하고, 거센소리로 표기하는 예시가 하나 존재한다(39). 『큰사전』 역시 『문세영』과 마찬가지로 어두 /k/를 예사소리 /ㄱ/으로, 비어두 /k/를 된소리 /ㄱ/으로 표기하는 경향을 보인다(38). 그러나 어두 /k/를 /ㄱ/나 /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하나씩 존재한다(40). 한편 『문세영』과 『큰사전』은 모두 /g/는 예사소리 /ㄱ/으로 표기한다(37, 38).

(37) 일본어 /k, g/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a. 어두 /k/: カケアシ ‘가께아시’, 키니네 ‘기니네’, クルマ ‘구루마’,
ケンクワンバラヒ ‘깁깁-바라이’, コブン ‘교분’
- b. 비어두 /k/: カカリ ‘가까리’, コジキ ‘고지끼’, トラック ‘도라꾸’,
バケツ ‘바께쓰’, カマボコ ‘가마보꼬’
- c. 비어두 /g/: ベンガラ ‘벵가라’, シナギレ ‘시나기레’, エノグ ‘에노구’,
アブラアゲ ‘아부라-아게’

(38) 일본어 /k, g/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a. 어두 /k/: カナ ‘가나’, クルマ ‘구루마’, コタツ ‘고다쓰’
- b. 비어두 /k/: ニセアカシヤ ‘니세-아까시아’, セキイタ ‘세끼-이다’,
コンニャク ‘곤냐꾸’, カマボコ ‘가마-보꼬’

- c. 어두 /g/: ゲタ ‘게다’
- d. 비어두 /g/: シガラ ‘시가라’, タマネギ ‘다마-네기’, アマグ ‘아마구’

(39) 일본어 /k/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 a. 비어두 /k/ -> /ㄱ/: アカジ ‘아가지’
- b. 비어두 /k/ -> /ㅋ/: マスク ‘마스쿠’

(40) 일본어 /k/에 대한 『큰사전』의 불규칙 표기

- a. 어두 /k/ -> /ㄱ/: ケンチ石 ‘켄찌-석’
- b. 어두 /k/ -> /ㅈ/: キサミ ‘지사미’¹⁰⁾

일본어의 /t, d/는 후행하는 모음의 음가에 따라 표 14 및 표 15와 같은 한글 표기 양상을 보인다. 일본어의 /t, d/는 고모음이 후행할 때 파찰음화되는데, 『문세영』과 『큰사전』의 한글 표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 있으며, 두 사전 모두 /ti/를 /ㅈ(비어두)-ㅈ(어두)/로, /tu/를 /ㅈ/로 표기하고 있다. 『문세영』은 일본어의 파찰음화되지 않은 /t/를 위치에 상관없이 예사소리로 표기하지만(41), 예외가 존재한다(43a). 파찰음화된 /t/ 역시 비어두 위치에서 예사소리로 표기하는 예외가 존재한다(43b). 『큰사전』은 『문세영』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t/를 위치에 상관없이 예사소리로 표기한다(42).

한편, 『문세영』과 『큰사전』 모두 일본어의 /d/를 위치에 상관없이 예사소리로 표기하지만, 『문세영』에 /do/를 /노/로 표기하는 예외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어 비음의 유성성이 영어나 일본어의 비음에 비해 낮아서 파열음과 혼동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예외로 보인다(43c).

[표 14] 일본어 /t/의 한글 표기

		ta	ti	tu	te	to
문세영	어두	ㄷ -	ㅈ -	ㅈ 1	ㄷ 1	ㄷ -
		ㄷ 6	ㅈ 5	ㅈ -	ㄷ 1	ㄷ 3
		ㅌ -	ㅌ -		ㅌ -	ㅌ -
	비어두	ㄷ -	ㅈ 4	ㅈ 3	ㄷ -	ㄷ 2
		ㄷ 10	ㅈ 5	ㅈ -	ㄷ 6	ㄷ 4
		ㅌ -	ㅌ -		ㅌ -	ㅌ -
큰사전	어두	ㄷ -	ㅈ -	ㅈ 1	ㄷ -	-
		ㄷ 2	ㅈ 1	ㅈ -	ㄷ 1	

10) 이 어형인 본래 어휘인 ‘기사미(キサミ)’가 한국어에 차용되는 과정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된 어형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큰사전』에서도 해당 어휘에는 차용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인 ‘←’가 첨가되어 있다.

		ㄷ -	ㅌ -		ㄷ -	
		ㅌ -	ㅌ 1	ㅌ 1	ㅌ -	
	비어두	ㅌ 4	ㅌ -	ㅌ -	ㅌ 1	-
		ㄷ -	ㅌ -		ㄷ -	

[표 15] 일본어 /d/의 한글 표기

		da	di	du	de	do
문세영	어두	ㅌ -				ㅌ -
		ㅌ 1	-	-	-	<u>ㄷ 2</u>
		ㄷ -				ㄷ -
	비어두	ㅌ -	ㅌ -		ㅌ -	ㅌ -
		ㅌ 3	ㅌ 1	-	ㅌ 2	ㅌ 2
		ㄷ -	ㅌ -		ㄷ -	ㄷ -
큰사전	어두	-	-	-	-	-
	비어두	-	-	-	ㅌ - ㅌ 1 ㄷ -	-

(41) 일본어 /t, d/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어두 /t/: タクアン ‘다꾸앙’, チヂミ ‘지지미’, ツメエリ ‘쓰메에리’,
テンブラ ‘텐뿌라’, トラツク ‘도라꾸’
- 비어두 /t/: カタル ‘가다루’, キモチ ‘기모찌’, タマツキ ‘다마쓰끼’
ステキ ‘스테끼’, ポント ‘뿐도’
- 어두 /d/: ダース ‘다쓰’
- 비어두 /d/: ミダシ ‘미다시’, チヂミ ‘지지미’, オデン ‘오덴’, ウドン
‘우동’

(42) 일본어 /t, d/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어두 /t/: タマネギ ‘다마네기’, チヂミ ‘지지미’, ツメエリ ‘쓰메-에리’
テンブラ ‘템-뿌라’
- 비어두 /t/: コタツ ‘고다쓰’, ケンチ石 ‘겐찌-석’, ステッキ ‘스테끼’
- 비어두 /d/: オデン ‘오덴’

(43) 일본어 /t, d/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 『문세영』 비어두 /t/ -> /ㅌ/: バントウ ‘반또’
- 『문세영』 비어두 /ti/ -> /ㅌ/: テツチ ‘뻏지’
- 『문세영』 어두 /d/ -> /ㄷ/: ドカタ ‘노가다’, ドクワン ‘노깡’

일본어의 /p, b/는 후행하는 모음의 음가에 따라 표 16 및 표 17과 같은 한글 표기 양상을 보인다.

[표 16] 일본어 /p/의 한글 표기

		pa	pi	pu	pe	po
문세영	어두	—	—	—	ㅍ —	ㅍ 1
					ㅍ 1	ㅍ —
					ㅍ —	ㅍ —
	비어두	—	—	ㅍ 1 ㅍ — ㅍ —	ㅍ 1 ㅍ — ㅍ —	ㅍ — ㅍ — ㅍ 1
큰사전	어두	—	—	—	—	—
	비어두	—	—	ㅍ 1 ㅍ — ㅍ —	—	ㅍ 1 ㅍ — ㅍ —

[표 17] 일본어 /b/의 한글 표기

		ba	bi	bu	be	bo
문세영	어두	ㅍ — ㅍ 2 ㅍ —	ㅍ 1 ㅍ — ㅍ —	—	ㅍ — ㅍ 1 ㅍ —	—
		ㅍ —	ㅍ —		ㅍ —	
		ㅍ 2 ㅍ —	ㅍ 3 ㅍ —		ㅍ 1 ㅍ —	
	비어두	ㅍ — ㅍ 2 ㅍ —	ㅍ — ㅍ 3 ㅍ —	ㅍ — ㅍ 4 ㅍ —	ㅍ — ㅍ 1 ㅍ —	ㅍ — ㅍ 2 ㅍ —
큰사전	어두	—	—	—	—	—
	비어두	—	—	—	—	ㅍ — ㅍ 1 ㅍ —

/p/와 /b/의 예시는 다른 음소의 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다. 『문세영』은 일본어의 /p/를 위치에 상관없이 된소리 /ㅍ/로 표기하였지만(44),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로 표기한 예외가 하나씩 존재한다(46a, b). 『큰사전』에서는 비

어두 /p/만 2건 확인되고, 모두 된소리로 표기되었다(45). 『문세영』과 『큰사전』 모두 일본어의 /b/는 예사소리 /ㅂ/로 표기하지만, 『문세영』에서 /b/를 된소리 /ㅃ/로 표기한 예외가 하나 존재한다(46c).

(44) 일본어 /p, b/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a. 어두 /p/: 펜키 ‘**뽕**끼’
- b. 비어두 /p/: テンプラ ‘텐**뿌**라’, スリッパ ‘스리**प्**파’
- c. 어두 /b/: バケツ ‘바**게**쓰’, ベンガラ ‘**뽕**가라’
- d. 비어두 /b/: カバン ‘가**방**’, マハフビン ‘마호**빙**’, コブン ‘고**분**’,
ヘアリベツチ ‘헤아리**베**찌’, アカボウ ‘아까**보**’

(45) 일본어 /p, b/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a. 비어두 /p/: テンプラ ‘템-**뿌**라’, ユタンポ ‘유담**뽕**’
- b. 비어두 /b/: カマボコ ‘가마-**보**꼬’

(46) 일본어 /p, b/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 a. 『문세영』 어두 /p/ -> /ㅃ/: ポント ‘**뽕**토’
- b. 『문세영』 비어두 /p/ -> /ㅍ/: ユタンポ ‘유단**포**’
- c. 『문세영』 어두 /b/ -> /ㅃ/: ビール ‘**뽕**루’

3.2.2. 마찰음

일본어의 /s, z/는 후행하는 모음의 음가에 따라 표 18 및 표 19와 같은 한글 표기 양상을 보인다. 『문세영』과 『큰사전』 모두 일본어의 /s/를 /ㅅ/로 표기하지만(47, 48), 『문세영』은 비어두 /su/에 대해 /쓰/로 표기하는 빈도가 더 높다(49). 또한 『문세영』과 『큰사전』 모두 /za, zu/는 /ㅈ/을 사용해서, /zi, ze/는 /ㅊ/을 사용해서 표기하고 있다(47, 48).

[표 18] 일본어 /s/의 한글 표기

		sa	si	su	se	so
문세영	어두	ㅅ - ㅅ 6	ㅅ - ㅅ 5	ㅅ - ㅅ 5	ㅅ - ㅅ 2	-
	비어두	ㅅ - ㅅ 4	ㅅ - ㅅ 27	ㅅ 4 ㅅ 3	ㅅ - ㅅ 2	-
큰사전	어두	ㅅ - ㅅ 1	ㅅ - ㅅ 1	ㅅ - ㅅ 1	ㅅ - ㅅ 1	-

	비어두	ㄴ - ㄴ 1	-	-	ㄴ - ㄴ 1	-
--	-----	------------	---	---	------------	---

[표 19] 일본어 /z/의 한글 표기

		za	zi	zu	ze	zo
문세영	어두	-	-	ㄴ 1 ㄴ -	ㄴ - ㄴ 1 ㄴ -	-
	비어두	ㄴ - ㄴ 1	ㄴ - ㄴ 7 ㄴ -	-	-	-
큰사전	어두	-	-	-	-	-
	비어두	-	ㄴ - ㄴ 1 ㄴ -	ㄴ 1 ㄴ -	-	-

(47) 일본어 /s, z/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어두 /s/: サクラ ‘사구라’, シトロソ ‘시도롱’, スマフ ‘스모’, セビロ ‘세비로’
- 비어두 /s/: キサミ ‘기사미’, ミダシ ‘미다시’, マスク ‘마스쿠’, カハセ ‘가와세’
- 어두 /z/: ズツク ‘쓰꾸’, セチタク ‘제이다꾸’
- 비어두 /z/: ヨザクラ ‘요-사구라’, コジキ ‘고지끼’

(48) 일본어 /s, z/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어두 /s/: サイ ‘사이’, シガラ ‘시가라’, ステッキ ‘스테끼’, セキイタ ‘세끼-이다’
- 비어두 /s/: キサミ ‘지사미’, ニセアカシャ ‘니세-아까시야’
- 비어두 /z/: チジミ ‘지지미’, カンズメ ‘간쓰메’

(49) 일본어 /s/에 대한 『문세영』의 불규칙 표기

『문세영』 비어두 /su/ -> /쓰/: メリヤス ‘메리야쓰’

3.2.3. 탄음

일본어의 /r/은 후행하는 모음의 음가에 따라 표 20과 같은 한글 표기 양상을 보인다.

[표 20] 일본어 /r/의 한글 표기

		ra	ri	ru	re	ro
문세영	어두	—	ㄹ 1	—	ㄹ 1	—
	비어두	ㄹ 18	ㄹ 23	ㄹ 12	ㄹ 2	ㄹ 7
큰사전	어두	—	—	—	—	—
	비어두	ㄹ 2	ㄹ 2	ㄹ 2	—	—

표 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세영』과 『큰사전』 모두 일본어의 /r/을 /ㄹ/로 표기하고 있다(50, 51).

(50) 일본어 /r/에 대한 『문세영』의 한글 표기

- a. 어두 /r/: リウマチス ‘류마지쓰’, レール ‘레루’
- b. 비어두 /r/: カステラ ‘가스테라’, カカリ ‘가까리’, カルタ ‘가루다’, コレラ ‘고레라’, ハترون ‘하도롱’

(51) 일본어 /r/에 대한 『큰사전』의 한글 표기

- 비어두 /r/: テンプラ ‘템-뿌라’, ツメエリ ‘쓰메-에리’, クルマ ‘구루마’

4. 논의

『문세영』과 『큰사전』은 어두 파열음의 표기 문제, 자음이 후행하는 양순 파열음의 모음 삽입 문제, 접근음 /r/의 표기 반영 문제에서 태도를 달리한다.

『문세영』과 『큰사전』이 외래어 자음의 한글 표기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영어의 어두 /g, d, b/에 대한 표기 방식이다. 『문세영』은 자음군에 있지 않은 어두 /g/를 된소리 /ㄱ/으로 표기하고 자음군에 있는 어두 /g/은 예사소리로 표기했지만, /d, b/는 자음군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된소리만으로 표기하였다. 『큰사전』은 어두에서는 자음군 유무에 상관없이 /g/를 예사소리 /ㄱ/으로만 표기하였다. 이는 『문세영』은 ‘들리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지향하는 반면, 『큰사전』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따르기 때문이다.

영어의 어두 파열음 /g/는 /d/나 /b/에 비해 기식성이 강하다. 2.2에서 언급하였듯이, 영어의 어두 파열음 /g/는 평균적으로 21ms의 성대 진동 개시 시간을 보인다. 반면 /d/와 /b/는 그보다 짧은 5ms, 1ms의 성대 진동 개시 시간을 가진다(Lisker & Leigh 1964 : 394). 그리고 한국어 어두 파열음 /ㄱ/의 성대 진동 개시 시간은 19ms이고 /ㄷ/와 /ㅃ/의 성대 진동 개시 시간

은 각각 11ms와 7ms이므로(Lisker & Leigh 1964 : 397), 영어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어의 /ㄱ/가 영어의 /g/보다 평균 성대 진동 개시 시간이 짧고, 이는 영어의 어두 /g/가 예사소리로 들릴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영어의 자음을 들리는 대로만 적는다면 /d/나 /b/보다 /g/를 예사소리로 전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한국어의 어두 /ㄷ, ㅃ/는 영어의 어두 /d, b/보다 평균 성대 진동 개시 시간이 기므로, 어두 /d, b/가 항상 된소리만으로 표기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일본어의 어두 파열음 /g, d, b/은 『문세영』과 『큰사전』에서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ㅃ/로 표기된다. 이는 일본어의 어두 파열음과 영어의 어두 파열음이 보이는 대립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어의 어두 파열음은 약한 기식-강한 기식의 대립을 가지는 반면(Homma 1980), 영어의 어두 파열음은 유기-무기 대립을 보인다. 즉, 일본어의 탁음(濁音) /g, d, b/는 어두에 위치할 때 한국어의 예사소리와 비슷하게 들린다. 따라서 표음주의를 따른다면 일본어의 어두 파열음 /g, d, b/을 예사소리로 표기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세영』은 영어의 양순 파열음 /p, b/에 자음이 후행할 때 모음으로 /ㅍ/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큰사전』은 같은 환경에서 대부분 /ㅡ/를 삽입하여 표기한다. 『문세영』에서 모음 /p, b/ 뒤에 /ㅡ/가 아닌 /ㅍ/를 삽입하는 경향은 영어의 /p, b/가 가지는 성질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문세영』이 보이는 이러한 경향은 한글 표기에 사용되었던 양순음에 후행하는 /ㅡ/의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어에서 양순음 /ㅍ, ㅂ, ㅃ/에 후행하는 모음 /ㅡ/는 17세기부터 원순모음화를 겪어 /ㅍ/로 변화하였고, 어두 음절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넓은 범위로 확산되었다(오종갑 1987). 그리고 『문세영』이 작성되었던 20세기에는 이미 원순모음화가 한국어의 보편적인 음운 현상이 되어 있었다. 『문세영』뿐만 아니라 표준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시기에 작성되었던 다른 사전이나 문헌들 또한 이 원순모음화를 외래어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52).¹¹⁾

(52) 원순모음화를 반영하는 외래어 표기(김수현 2003 : 49).

- a. 『모던조선어외래어사전』
 double ‘따~~ㅍ~~블/떠~~ㅍ~~블’
 spring ‘스~~ㅍ~~링’
 cable ‘케-~~ㅍ~~블’

11) 다만 김수현(2023 : 49)은 원순모음화가 반영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동일한 문헌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원순모음화 반영과 관련한 표기의 혼란상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b. 『조선일보』

Proletariat ‘푸로레타리아’ (1923. 4. 26.)

Program ‘푸로크람’ (1928. 1. 2.)

『문세영』에서 원순모음화를 반영하는 모습은 수정 및 증보되기 이전 판본인 『조선어사전』(1938)에서도 동일하다. 그러나 『큰사전』은 (7c)에 나타나는 두 용례 ‘Ivory black [아이버리-블랙], ‘Air brush [에어-부라쉬]’를 제외하면 원순모음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현행 외래어 표기 규정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문세영』은 영어의 후치경 접근음 /r/이 비어두 위치에서 자음 앞에 올 경우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큰사전』은 이를 장음 표시로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는 『문세영』에서 외래어에 장음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음 기호로 ‘-’를 쓸 수도 있지만, 『문세영』은 ‘-’를 형태소 경계 기호로 사용한다. 다만 『문세영』에서는 (35b)와 같이 자음에 선행하는 어중 /r/을 받침 /ㄹ/로 반영한 예시도 5건 존재한다.

또한 『문세영』과 『큰사전』에서 모두 영어의 어두 /r/을 /으ㄹ/로 표기한 예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하게 /ㄹ/로 표기되는 /l/과의 구분을 위해 /ㄹ/ 앞에 모음을 첨가한 것이다(김수현 2003 : 43). 원순모음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r/의 한글 표기 역시 동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53). 그러나 이러한 표기는 당대에도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외래어 표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어의 어두 /r/에 대해선 『문세영』과 『큰사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한 용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53) 영어의 어두 /r/을 /으ㄹ/로 표기한 예시(김수현 2003 : 44)

a. 『아학편』 (1908)

rice ‘으라이쓰’

right ‘으라이트’

b. 『청춘』 (1914-1918)

romance ‘으로맨쓰’ (8.96)

5. 결론

본 연구는 『문세영』과 『큰사전』에 수록된 외래어 올림말의 한글 표기에 대

한 통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였고, 특히 영어와 일본어에서 기원된 외래어의 자음의 한글 표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전에서 영어 기원 외래어와 일본어 기원 외래어를 추출하였고, 영어 자음을 파열음·마찰음·파찰음·접근음으로, 일본어 자음을 파열음·마찰음·탄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자음이 나타나는 위치를 다시 구분하여 위치에 따른 표기 차이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세영』과 『큰사전』의 외래어 자음 한글 표기가 보이는 주요한 차이점을 찾아 이를 고찰하였다.

상술한 일련의 과정으로 확인한 『문세영』과 『큰사전』의 외래어 자음 한글 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문세영』은 전신인 『조선어사전』의 ‘표음주의’ 원칙을 대체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큰사전』은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지키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큰사전』은 『문세영』에 비해 된소리를 영어 기원 외래어 자음 표기에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어휘의 자음에는 여전히 된소리 표기를 사용하였고 일본어 기원 외래어 자음 표기에는 『문세영』과 마찬가지로 된소리를 표기에 사용하였다.

『문세영』과 『큰사전』은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문세영』은 모음이 후행하는 어두 /g/를 /ㄱ/로 표기하고 나머지 어두 /g/는 /ㄱ/으로 표기하였지만, 『큰사전』은 모든 어두 /g/를 예사소리 /ㄱ/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문세영』은 자음이 후행하는 양순 파열음에 대한 한글 표기에서 양순음 뒤 원순모음화를 반영하여 모음 /ɯ/를 삽입한 형태를 사용하였지만, 『큰사전』은 원순모음화를 반영하지 않고 모음 /ㅡ/를 삽입하여 표기하였다. 그리고 『문세영』은 외래어 올림말에 장음 기호를 표기하지 않았기에 비어두의 접근음 /r/도 생략하거나 /ㄹ/로 표현하였지만, 장음 기호를 사용하는 『큰사전』은 다수의 비어두의 접근음 /r/을 장음 기호로 반영하였다.

외래어는 사용 빈도가 줄어들어 자국어 어휘가 아닌 완전한 ‘외국어’로 남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보하여 언중의 언어 의식 속으로 편입되기도 한다. 『문세영』과 『큰사전』은 외래어가 본격적으로 한국어에 들어오던 시기에 편찬된 최초의 한국어 어휘 사전으로, 이들 사전에 나타나는 외래어 표기는 당대의 한국인들이 외래어 어휘를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사전의 외래어 자음의 한글 표기를 탐구하여, 그 태도의 일면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외래어에 대한 당대 한국어 언중의 태도를 더욱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선, 후속 연구에서 영어와 일본어 이외의 언어에서 기원한 외래어의 자음 표기뿐만 아니라, 외래어 모음의 표기 또한 확인하여 이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수현(2003), 「외래어 표기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규(2011),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259-300.
- 박창원·김수현(2004), 「외래어 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 59-102.
- 조재수(2021), 『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 우리말 거두기와 정리의 역사』, 서울: 한글학회.
- 오종갑(1987), 「국어의 원순모음화 현상」, 『영남어문학』 14, 69-85.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서울: 태학사.
-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서울: 한글학회.
- 황용주(2014), 「문세영의 『수정증보 조선어사전』의 계량적 분석 연구」, 한국사전학회 제 25차 전국학술대회.
- 高田三枝子(2004), 「日本語の語頭の有声歯茎破裂音/d/における+VOT化と世代差」, 『音声研究』 8(3), 57-66.
- 高田三枝子(2011), 『日本語の語頭閉鎖音の研究: VOTの共時的分布と通時的変化』, くろしお出版.
- Byun, H. (2023). Aggressive Reduplication in Japanese high vowel devoicing, M.A.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T., Jun, S. A., & Ladefoged, P. (2002). Acoustic and aerodynamic correlates of Korean stops and fricatives. *Journal of phonetics*, 30(2), 193-228.
- Homma, Y. (1980). Voice onset time in Japanese stops, *Bulletin of the Phonetic Society of Japan*, 163, 7-9.
- Homma, Y. (1981). Durational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stops and vowels. *Journal of Phonetics*, 9(3), 273-281.
- Jongman, A. (1989). Duration of frication noise required for identification of English fricativ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85(4), 1718-1725.
- Kong, E. J., Beckman, M. E., & Edwards, J. (2012). Voice onset time is necessary but not always sufficient to describe acquisition of voiced stops: The cases of Greek and Japanese. *Journal of Phonetics*, 40(6), 725-744.
- Lisker, L., & Abramson, A. S. (1964). A Cross-Language Study of Voicing in Initial Stops: Acoustical Measurements. *WORD*, 20(3), 384-422.
- Martin, Samuel E. (1958). *Essential Japanese: An Introduction to the Standard Colloquial Language*, Rutland/Vermont: Charles E. Tuttle.
- Martin, Samuel E.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Rutland/VT/Tokyo: Charles E. Tuttle.
- Riney, T. J., Takagi, N., Ota, K., & Uchida, Y. (2007). The intermediate degree of VOT in Japanese initial voiceless stops. *Journal of Phonetics*, 35(3), 439-443.

- Smith, B. (2013). An Acoustic Analysis of Voicing in American English Dental Fricatives [Working Paper]. Ohio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 Whang, J. (2018). Recoverability-driven coarticulation: Acoustic evidence from Japanese high vowel devoicing.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43(2), 1159–1172.
- You, H. Y. (1979). An acoustic and perceptual study of English fricatives, M.A. Thesis, University of Edmonton.
- Python Software Foundation, Python Language Reference, version 2.7. Available at <http://www.python.org>
- eng-to-ipa – PyPI. Python Software Foundation, ver. 0.0.2, Available at <https://pypi.org/project/eng-to-ipa/>
- YaleKorean – PyPI. Python Software Foundation, ver. 1.0.2, Available at <https://pypi.org/project/YaleKorean/>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2부 주제 발표

국어사전의 의성어·의태어 미시 정보 제시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

박동근

대진대학교 교수
muse13@hanmail.net

1. 머리말

이 연구는 『큰사전』 이후 주요 국어사전에서 흉내말(의성어·의태어)에 대한 미시 정보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사전학적 관점에서 비교·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의 체재는 크게 독립된 텍스트로서의 ‘거시 구조’(또는 ‘최대 구조’)와 각 표제항의 내부 구성 요소를 가리키는 ‘미시 구조’로 구분한다. 미시 구조는 표제어의 표기, 형태 분석, 발음, 동형어 표식, 품사 및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의미 관계 및 기타 관련어 정보로 구성된다.¹⁾ 홍종선 외(2009 : 117)에서는 사전의 미시 구조를 크게 <표 1>과 같이 형식적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 항목’과 표제어의 의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1) 이병근(1990)에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표제화된 표제항들의 전체 구조”를 거시구조로, “각 표제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항의 구조”, 미시구조로 구분하였다.

<표 1> 국어사전 표제항의 미시 구조(홍종선 2009 : 118)

형식 항목(왼쪽 항목)					내용 항목(오른쪽 항목)				
표제어	원어	발음	품사	전문어	논항틀	뜻풀이	용례	관련어	참고어
형태분석 및 어깨번호 포함	어원 포함	표준 발음 및 허용 발음	고유명, 불규칙 활용 포함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과학	주술 주목술 주부술 주목 부술	기본의미 + 부가의미	출전 포함	준-본, 큰-작은, 센-거센- 여린 등	유의어, 반의어, 상하위어 등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모두 순우리말로 음운·형태·의미면에서 고유한 특징을 공유하여 독자적인 어휘 범주를 형성한다. 통상 국어사전에 수록된 의성어·의태어(표준어)는 약 5천 여개에 이르며 ‘-하다, -대다, -거리다, -이다’ 등과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형성하는 파생어까지 고려하면 15,000여 개에 이른다. 이는 사전에 수록된 약 6만여 개의 순우리말 가운데 약 4분에 1에 해당하는 수이다. 즉 순우리말 4개 중 하나는 의성어·의태어나 그 파생어인 셈이다. 이에 국어사전 편찬 시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²⁾ 사전의 의성어·의태어 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적지 않았다.

국어사전에서 의성어·의태어 문제를 본격적으로 처음 거론한 것은 조남호(1993)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금성판』 외 모두 6개의 사전을 비교 검토하여 표제어 선정, 뜻풀이, 용례, 참고 어휘 등의 수록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하고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홍범(1998, 2000, 2007, 2019)의 일련에 연구에서는 기존의 상징어 국어사전을 검토하여, 표제어 선정의 객관성 문제, 동형어 다의어 구분 문제, 형태소 분석의 문제, 파생어 형성과 품사 분류 및 의미 기술의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동근(2000)은 《한국어 흥내말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로, 국어사전에서 웃음표현 흥내말의 기술 방법을 검토하고, 보다 정밀한 의미 기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박동근(2014)에서는 국어사전에서 흥내말의 다의어·동형어 처리 시 모방 대상에 따른 구분보다 소리에 대한 언중들의 인식이 더 중요한 판별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손달임(2016)은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을 대상으로 관련어의 유형과 범주, 관련어의 뜻풀이 정보 제시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의미 기술의 일관성, 관련어 정보의 체계성, 사용자 편

2) 국립국어연구원(2000)의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에는 의성어·의태어의 표제어, 뜻풀이(문법정보, 뜻풀이 방식)에 대해 362-382에 걸쳐 자세히 편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의성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대상으로 분석한 신중진(2000)은 대체로 사전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일관된 원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원칙의 완고함 때문에 기술에 융통성이 없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³⁾

이 연구는 『큰사전』(1957)과 이후 출판된 대사전 중 『국어대사전』(이희승, 1961), 『금성판국어대사전』(김민수 외, 1991),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 등의 국어사전에서 의성어·의태어의 미시 정보가 어떻게 제공하였는지 비교·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⁴⁾ 본고에서는 의성어·의태어에의 특징을 고려하여 국어사전의 미시 정보 중 ‘형태 분석, 품사, 뜻풀이, 관련어·참고어’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의성어·의태어 미시 정보 제공 방식 비교

2.1. 형태 분석

국어의 의성어·의태어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형을 취하여 외현상 ‘합성어’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합성어나 파생어에 대한 형태 정보는 통상 사전의 표제어에 ‘-’로 직접 표시한다. 예를 들어 ‘깡충’의 반복 합성형인 ‘깡충깡충’은 사전 표제어로 ‘깡충-깡충’처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깡충깡충’에서 ‘깡충’을 (어근)형태소로 보는 분석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흉내말의 전형적인 구조인 ‘반복 형식’은 표면적으로 두 개의 어근 형태소가 결합한 합성으로 보이지만 반복 형식의 흉내말은 구성 요소의 자립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⁵⁾

<표 2> 반복형 흉내말 어근의

유형	반복형	단순형	-거리다 파생	예시
제1형	덩실덩실	덩실	덩실-거리다	깡충깡충, 반짝반짝, 펄럭펄럭, 빙글빙글
제2형	반들반들	*반들	반들-거리다	더듬더듬, 두근두근, 부들부들, 비실비실
제3형	살금살금	*살금	*살금-거리다	주렁주렁, 무럭무럭, 토실토실, 피동피동

3) 이 밖에 조남호(2017)에서는 『한국어 시늉말』을 분석하여 그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 바 있다.

4) 앞으로 이들은 『큰사전』, 『대사전』, 『금성판』, 『우리말』, 『표준』, 『고려대』 등으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

5) 이에 대한 문제는 박동근(1997)에서 처음 제기한 바 있다.

<표 2>에서 ‘덩실덩실’, ‘반들반들’, ‘살금살금’은 각각 ‘덩실’, ‘반들’, ‘살금’의 반복형이다 여기서 ‘덩실’, ‘반들’, ‘살금’의 형태론적 지위는 모두 다르다.

(1) ㄱ. 덩실덩실/덩실 춤을 춘다.

ㄴ. 책상이 반들반들/*반들 빛나다. (반들-거리다, 반들-대다)

ㄷ. 살금살금/*살금 다가간다. (*살금-거리다)

‘덩실덩실’에서 ‘덩실’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쓸 수 있는 단어이므로 ‘덩실-덩실’로 형태를 구분하고 합성어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반들반들’에서 ‘반들’은 ‘덩실’과 달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거리다’, ‘-대다’와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하는 등 형태소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결합관계와 통합관계를 충족하므로 이들 유형의 흉내말 역시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살금살금’에서 ‘살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복형을 취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도 않아, 형태소로서의 자격이 불투명하다.⁶⁾

이에 ‘abab형’ 이음절 반복형의 의성어·의태어를 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abab형’ 의성어·의태어의 형태 분석 비교

큰사전	대사전	금성판	우리말	표준	고려대
덩실-덩실	덩실-덩실	덩실-덩실	덩실-덩실	덩실-덩실	+ 덩실+ 덩실
반들-반들	반들-반들	반들-반들	반들-반들	반들-반들	±반들±반들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살금

『큰사전』에서 『고려대』에 이르기까지 ab-ab형 흉내말에 대해서는 모든 사전이 형태소 분석을 하고 있다. 또 『큰사전』에서 『표준』까지는 모두 ‘-’로 형태소 표시를 하고 있는 데 반해 『고려대』에서는 ‘덩실덩실’은 ‘+’로, ‘반들반들’과 ‘살금살금’은 ‘±’로 구별해 형태 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는 해당 형태가 ‘완전 어근/자립어’라는 표지이며 ‘±’는 ‘불완전어근/비자립어’임을 표시한다. 이에 자립어인 ‘덩실’은 그 앞에 ‘+’ 표지를 붙이고 ‘반

6) 김홍범(1995)에서는 흉내말의 반복 형식의 유형을 구성 요소의 자립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1. 단순 형태가 자립 형식인 유형 : 반짝/반짝반짝
2. 단순 형태가 구속 형식인 유형 : *북적/북적북적/북적거리다.
3. 단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 : *술/술술 [불다]
4. 되풀이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 : 췌/*췌췌 [금이 가다]

들-거리다’, ‘반들-대다’와 같이 접사와 결합이 가능하나 자립성이 없는 ‘반들-’은 불완전어근 또는 비자립어로 보아 ‘ㅅ’ 표지를 붙인 것이다. 실제 『고려대』에는 ‘반들’이 어근의 자격으로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살금살금’에서 ‘살금’은 단독으로 자립성이 없으며 ‘살금살금’ 이외에 다른 말과 결합하지 않아, ‘살금살금’이 형태소 자격을 갖는 ‘살금’과 ‘살금’이 결합한 합성어인지 단지 음운의 중첩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반들’과 달리 『고려대』에 ‘살금’을 어근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반들’과는 차원이 다른 형식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어사전에서 ‘ab-ab형’의 의성어·의태어는 단순형의 ‘ab’의 자립성 또는 어근으로서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고 있다.⁷⁾

이와 달리 ‘aa’와 같은 1음절의 반복 형식의 의성어·의태어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 ‘aa형’ 의성어·의태어의 형태 분석 비교

큰사전	대사전	금성판	우리말	표준	고려대	단순형의 자립성	뜻
꽁꽁	꽁꽁	꽁꽁	꽁꽁	꽁꽁		×	[얼다]
멍멍	멍멍	멍-멍	멍멍	멍멍		×	[짓다]
벌벌	벌벌	벌벌	벌벌	벌벌		×	[떨다]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	[움직이다]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	[웃다]
둥둥	둥둥	둥둥	둥-둥	둥-둥	[+ 둥+ 둥]	둥	[복소리]
빙빙	빙빙	빙-빙	빙-빙	빙-빙	[+ 빙+ 빙]	빙	[돌다]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	[비다]
핑핑	핑-핑	핑-핑	핑-핑	핑-핑		핑	[터지다]
푹-푹	푹-푹	푹-푹	푹-푹	푹-푹		푹	[삶다]
해해	해해	해-해	해-해	해-해		해	[웃다]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호		호	[웃다]

일음절의 반복형인 ‘aa’형 흉내말의 형태 정보는 사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ab’형 흉내말과 달리 일음절의 ‘a’형 흉내말은 ‘-거리다’, ‘-대다’와 예외 없이 결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aa’형 흉내말에서 ‘a’의 형태소 자격은 ‘a’가 자립성을 갖는 낱말이나 아니냐에 달려 있다.

‘꽁꽁’, ‘멍멍’, ‘벌벌’, ‘살살’, ‘하하’에서 단순형인 ‘꽁’, ‘멍’, ‘벌’, ‘살’, ‘하’가 자립성이 없다. 그러므로 『큰사전』에서 『고려대』까지 모든 사전이 이들을 형태소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전수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대체로 일음절 반복형

7) ‘달가닥-달가닥’과 같은 3음절 의태어의 반복형도 마찬가지이다.

(aa)의 형식을 취하는 흉내말의 경우 단음절 ‘a’가 자립할 수 없는 경우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을 삼은 것 같다.⁸⁾

반면에 단순형이 자립성을 갖는 ‘둥둥’, ‘빙빙’, ‘텅텅’, ‘평평’, ‘폭폭’, ‘해해’, ‘호호’의 경우 사전에 따라 처리가 다르다. 『큰사전』에서는 ‘텅-텅’만 형태소 분석을 표시하였다. 『금성관』에서는 ‘해-해’에 대해서는 형태소 표시를 하였으나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호호’는 형태소로 분석하지 않았다.

『우리말』과 『표준』은 일음절 반복형의 형태소 분석에 일관된 원칙이 있어 보인다. ‘둥둥’, ‘빙빙’, ‘텅텅’, ‘평평’, ‘폭폭’, ‘해해’, ‘호호’에 대해 두 사전은 모두 형태소 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둥, 빙, 텅, 평, 폭, 해, 호’ 등이 모두 자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세밀한 형태 정보를 제공하는 『고려대』의 경우 ‘둥-둥’과 ‘빙-빙’에 대해서만 형태 분석을 하고 있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

문제의 핵심은 이음절어의 반복형인 ‘살금-살금’은 형태소로 분석한 데 대해 ‘꽂꽂’ 등은 형태소 분석하지 않은 것이 음절 수 외에 어떤 언어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2. 뜻풀이

[1] 의성어·의태어 뜻풀이 기본 구조

뜻풀이는 사전의 미시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사전의 뜻풀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표제어와 같은 품사 또는 성분으로 끝을 맺는 것이 원칙이다.⁹⁾

- | | |
|---------------|-----------------------------|
| (2) ㄱ. 빈틈[명사] | 비어 있는 <u>사이</u> .(명사) |
| ㄴ. 빈틈없다[형용사] | 비어 있는 사이가 <u>없다</u> .(형용사) |
| ㄷ. 빈틈없이[부사] | 비어 있는 사이가 <u>없이</u> . (부사형) |

전형적인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대체로 부사로 보고 있으므로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따른다면 흉내말의 뜻이는 ‘~게’와 같은 부사형이나 부사로 끝맺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큰사전』 이래 국어사전에서 의성어·의태어의 뜻풀이는 일괄적되게 ‘명사’로 끝맺고 있다.¹⁰⁾ 이때 뜻풀이를 마무리

8) 다만 『금성관』에서 ‘멍-멍’에 대해 형태소 표시를 하였는데,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9)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는 모든 품사의 뜻풀이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끝맺고 있다.

10) 이는 한국어에서 의성어·의태어가 다른 어휘와 구분되는 독립된 범주임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구체적 방식은 사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표 5> ‘살금살금’의 뜻풀이 형식 비교

사전	뜻풀이
큰사전	남이 모르도록 눈치를 보아 가만가만 <u>하는 모양</u> .
대사전	남이 모르도록 눈치를 보아 가만가만 <u>하는 모양</u> .
금성판	남이 모르게 눈치를 보아가며 살그머니 자꾸 <u>행동하는 모양</u> .
우리말	남이 모르도록 살그머니 자꾸 <u>행동하는 꼴</u> .
표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 가면서 살며시 <u>행동하는 모양</u> .
고려대	눈치를 보아 가며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 남들이 모르게 살며시 자꾸 <u>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u>

『큰사전』부터 『고려대』까지는 뜻풀이에 공통적으로 ‘~하는 X’의 형식을, 『고려대』의 경우 “~하는 X를 나타내는 말”의 형식을 취한다. 이때 의성어는 ‘X’ 자리에 ‘소리’를 의태어는 ‘~ 하는 모양’, 의성어 의태어를 겸하고 있을 때는 ‘~하는 소리. 또는 모양’의 방식으로 뜻풀이를 한다.¹¹⁾

우리말 흉내말 가운데에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겸하는 말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소리가 나는 상황에서 그에 수반되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이에 속한다. 사전에 따라 의성어나 의태어 처리에도 차이를 보인다. 다른 사전에 비해 『우리말』과 『표준』의 경우 특히 의성어·의태어를 겸하는 말로 뜻풀이한 것이 많아 보인다.¹²⁾

<표 6> ‘종알종알’의 의성어·의태어 처리 비교

사전	뜻풀이	범주
큰사전	종알거리는 꼴.	의태어
대사전	(뜻풀이 없음)	
금성판	종알거리는 모양	의태어
우리말	종알거리는 소리. 또는, 그 꼴.	의성어·의태어
표준	주로 여자나 아이들이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자꾸 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의성어·의태어
고려대	사람이 남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자꾸 혼잣말을 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의성어

11) 의성어와 의태어를 ‘~하는 소리, ~하는 모양’으로 풀이하는 방식은 ‘심익린’(1930)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펄펄 : 바람에 날리는 모양.

평평 : 물이만이 쏘다지는 소리.

12) 이는 글쓴이의 경험적인 판단이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국어사전에서 의성어는 ‘~ 하는 소리’(또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의 형식으로 만 뜻풀이를 의태어([-소리])의 경우 속성에 따라 ‘~하는 느낌’ ~하는 상태’ 등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2] 뜻풀이 제시 방식

뜻풀이는 각 표제어마다 독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의성어·의태어의 경우 사전 편찬의 경제성이나 지면의 제약 등의 문제로 뜻풀이를 관련 형태의 말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3) 『큰사전』

- ① 반짝-반짝 : 반짝거리는 꼴.
- ② 반짝-거리다 : 자꾸 반짝이다.
- ③ 반짝-이다 : 빛이 잠깐 나타난다.

(4) 『우리말』

- ① 반짝-반짝 : 반짝거리는 꼴.
- ② 반짝-거리다 : 작은 빛이 잠깐 줌 세계 자꾸 나타난다.
- ③ 반짝-이다 : 작은 빛이 잠깐 줌 세계 나타난다.

『큰사전』은 흥내말이 ‘-거리다’ 파생형을 가질 때 ‘X-거리는 꼴(소리)’로 뜻풀이하여 해당 흥내말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리다’ 파생형으로 가서 풀이를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뜻풀이를 다른 표제어로 돌리는 방식은 『우리말』도 같다.

(5) 『금성판』

- ① 반짝-반짝 : ‘반작반작’의 센말.
- ② 반작-반작 : 반작거리는 모양.
- ③ 반작-거리다 : 잇달아 반작이다.
- ④ 반작-이다: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또는, 그리 되게 하다.

『금성판』에서는 ‘반짝반짝’을 찾으면 기본형(예사소리)에 기대어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짝반짝’의 뜻을 찾으려면 다시 기본형으로 처리한 ‘반작반작’으로 가야한다.¹³⁾ 이때 ‘반작반작’에 대해 ‘-거리다’ 파생형이 있을

13) 흥내말의 자모음 교체형 중 어느 것이 기본형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우 다시 뜻을 확인하기 위해 ‘반작-거리다’를 찾아야 한다. 또 이 말이 대응하는 ‘-이다’ 파생형이 있을 때 ‘반작-이다’로 가서 뜻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반짝반짝-반작반작-반작거리다-반작이다’의 의미 관계가 완전히 투명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6) 『표준』

반짝-반작 : 작은 빛이 잇따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7) 『고려대』

반짝-반작 : 작은 빛이 잇따라 잠깐씩 조금 세게 빛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조사 대상 사전 중 가장 최근에 출판된 『표준』과 『고려대』는 표제어마다 독립된 뜻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전 이용자 입장에서 앞선 사전과 같은 수고로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¹⁴⁾

사전에서 뜻을 확인하는 과정을 한 자리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큰사전』 : 반짝반짝 → 반작거리다 → 반작이다.
『우리말』 : 반짝반짝 → 반작거리다 → 반작이다.
『금성판』 : 반짝반짝 → 반박반작 → 반작거리다 → 반작이다.
『표준』 : 반짝-반작
『고려대』 : 반짝-반작

<그림 1> 국어사전의 뜻풀이 확인 과정

2.3. 관련어와 참고어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에 의성어·의태어가 발달한 것은 대응하는 자음과 모음의 교체, 어말 자음 교체, 내적 확장, 반복 등에 의해서 하나의 기저형이 음운·형태·의미적으로 관련을 맺는 다수의 의성어·의태어를 파생한 결과이다.¹⁵⁾ ‘반짝-뵤짝-번쩍-뵤쩍 / 반작반작-뵤작뵤작-번쩍번쩍-뵤쩍뵤쩍’의 8개 어휘 항목은 모두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기저형(대표형)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대사전』의 경우 ‘반짝반짝’이 ‘반작-거리다’ 부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통상 국어사전에서 파생어가 부표제어가 되는 일반적인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의성어·의태어 처리에서 『대사전』의 미시 구조는 특이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15) 조남호(1993)에서는 “국어에서 의성 의태어가 풍부하게 된 중요한 이유로 연관되는 어휘를 생산하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잘 발달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의성어·의태어의 뜻은 관련어들과의 관계 속에서 뚜렷해지므로 의성어·의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뜻풀이 외에 관련어들 사이에서 해당 어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⁶⁾

국어사전마다 의성어·의태어의 관련어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큰사전』의 관련어 정보 제공 방식

표제어	관련어·참고어 정보	뜻풀이
반작	센말: 반작. 뽀작. 뽀작. <번적	
반작	"반작"의 센말. 센말: 뽀작. 뽀작. <번적	
뽀작	"반작"의 센말. 센말: 뽀작. <뽀작.	
뽀작	"반작", "반작", "뽀작" 들의 센말. <뽀작.	

‘반작’의 자음 대응쌍으로는 ‘반작, 뽀작, 뽀작’이 있다. 『큰사전』에서는 ‘반작’에서 된소리 대응쌍인 ‘반작, 뽀작, 뽀작’을 ‘관련어로 제시하고 ‘<’ 기호를 사용하여 모음의 대응쌍을 보이고 있다. 『큰사전』에서 ‘반작’은 센말로 ‘반작’과 ‘뽀작’을 제시하고, ‘뽀작’의 센말은 ‘뽀작’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세기의 정도를 ‘반작 - 반작 - 뽀작 - 뽀작’ 순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작’, ‘뽀작’, ‘뽀작’에 대해 ‘반작’을 (여린말)로 제시할 법한데, “반작, 반작, 뽀작들의 센말“처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뽀작’에 대해 ‘반작, 반작, 뽀작’은 상대적으로 여린 어휘로 보고 있다.

<표 8> 『대사전』의 관련어 정보 제공 방식

표제어	관련어·참고어 정보	뜻풀이
반작	ii 반작·뽀작·뽀작 <번적.	
반작	(표제어 없음)	
뽀작	i 반작. ii 뽀작 <뽀작.	
뽀작	i 반작·반작·뽀작. <뽀작	

16) 흥내말의 뜻풀이는 이극로(1938)에서 지적했듯이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갖는 관계말이 복잡하게 얹혀 있어 매우 어렵다.

우리가 이런 유사어를 주해할 때에는 마땅히 관련된 말을 전부 한 곳에 모아 놓고 그 서로 사이의 뜻에 차이점을 발견하여야 한다. 만일 그리 아니하고 흩어 놓고 주해를 한다면 뜻이 모두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또는 서로 바꾸일 수도 있다. (이극로 1938)

흥내말의 의미는 결국 관련어 속에서 정밀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흥내말의 미시 정보로 관련어 정보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대사전』은 관련어 정보 표지로 ‘i’는 어감이 보통인 말 앞에, ‘ii’는 어감이 센 말 앞에, ‘iii’는 어감이 거센말 앞에 표시한다.¹⁷⁾ ‘반작’에 대해 어감이 센 말로 ‘반작, 반작, 반작’을 제시하고 있으며, ‘뽀작’에 대해 어감이 어린말로 ‘반작, 반작, 반작’을 제시하고 있어 ‘반작’과 ‘뽀작’은 ‘반작’에서는 ‘센말’로 ‘뽀작’에서는 ‘어린말’로 표시되는 등 관련어는 표제어와 상대하여 센말도 되고 어린말도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의성어·의태어의 관련어 정보는 관련어 네트워크 전체 차원에서 초성이 예사소리냐 된소리냐 거센소리냐에 따라 절대적 어감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표 9> 『금성판』의 관련어 정보 제공 방식

표제어	관련어·참고어 정보	뜻풀이
반작	(큰)번적. (센)반작·뽀작·뽀작	
반작	(큰)번적. (센)뽀작.	‘반작’의 센말
뽀작	(큰)뽀작. (센)뽀작.	‘반작’의 센말
뽀작	‘반작’, ‘반작’, ‘뽀작’의 센말 (큰)뽀작.	

『금성판』에서는 ‘반작’과 ‘뽀작’에 대해 센 말로 ‘뽀작’을 관련어로 제시하고 있다. 어린 말은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고 뜻풀이 ”‘반작’의 센말“을 통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관련어 정보로 볼 때 ‘반작’과 ‘뽀작’ 중 어느 말을 더 센말로 보는지는 알 수 없다.

<표 10> 『우리말』의 관련어 정보 제공 방식

표제어	관련어·참고어 정보	뜻풀이
반작	(센)뽀작. (큰)번적	
반작	(큰)번적	
뽀작	(큰)뽀작.	
뽀작	(어린)반작. (큰)뽀작.	

‘반작’의 실제적인 자음 관련어는 ‘반작, 반작, 뽀작, 뽀작’ 네 가지인데 『우리말』에서는 ‘반작’과 ‘뽀작’만 상호 관련만 맺고 있고 ‘반작’과 ‘뽀작’과의 관련성은 끊겨 있다. 사전 이용자 입장에서 ‘반작’을 찾아 볼 경우 이 어휘가 ‘반작’, ‘뽀작’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17) 컴퓨터 입력 문제로 i, ii, iii는 원래 종이 사전의 기호를 대신한 것이다.

18) 이러한 방식은 관련어와 뜻풀이의 차이를 모호하게 한다.

<표 11> 『표준』의 관련어 정보 제공

표제어	관련어·참고어 정보	뜻풀이
반작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짝’보다 어린 느낌을 준다.
반짝	(참) 반작; 뵈작; 뵈작; 번쩍.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뵈작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짝’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
뵈작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반짝보다 센 느낌을 준다.

『표준』의 관련어 정보 제공 방식은 앞서의 사전과 확연히 구분된다. 『표준』에서는 ‘반작, 반짝, 뵈작, 뵈작’의 네 관련어 중 ‘반짝’에만 관련어 정보가 있다. 네 어휘의 기본 뜻풀이는 모두 동일한데, ‘반짝’을 의미상 무표형으로 보고 “반작보다 어린, 반작보다 조금 센, 반작 보다 센“처럼 부가적인 뜻풀이 부분에서 관련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표 12> 『고려대』의 관련어 정보

표제어	관련어·참고어 정보	
반작	(큰말)번쩍, (센말)반짝·뵈작, 뵈작.	
반짝	(큰말)번쩍, (센말)뵈작	
뵈작	(큰말)뵈쩍, (센말)뵈작, (어린)반작	
뵈작	(어린)반짝·반작·뵈작, (큰)뵈쩍	

『고려대』는 분석 대상 사전 중 관련어 정보가 가장 충실하다. 큰말, 센말, 어린말, 등의 구분 표지가 명확하고 각 표제어마다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대사전』과 마찬가지로 ‘어린말’과 ‘센말’을 절대적인 어감 속성으로 표시하지 않고, 표제어에 따라 어린말, 세말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련어 제공 방식은 흥내말이 된소리 대응쌍 외에 거센소리 대응쌍을 가질 경우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해 진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8) 『고려대』 ‘털걱’의 관련어 정보

- 어린말 : 털걱, **덜걱**, 털걱
- 센말 : 떨걱, 덜걱, 떨걱, **떨걱**.

‘덜걱’이나 ‘털걱’이 ‘털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말일 수는 있으나 된소

리의 절대 어감을 고려할 때 거센소리를 갖는 ‘덜컹’과 예사소리의 ‘덜걱’을 같은 여린말로 묶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표 13> 달가닥(달가닥)의 관련어 정보

사전	관련어·참고어
큰사전	준말: 달각달각. 센말: 딸가닥딸가닥. <덜거덕덜거덕.
대사전	(준)달각. ii 딸가닥. <덜거덕.
금성판	(준)달각. (큰)덜거덕. (센)달까닥·딸가닥·딸까닥. (거)달카닥.
우리말	(거센)탈가닥. (센)딸까닥. (큰)덜거덕.
표준	(준)달각. (참)달까닥; 달카닥; 딸가닥; 딸까닥; 딸카닥; 탈가닥; 탈각닥; 덜거덕. ¹⁹⁾
고려대	(참)달각. (거센)달카닥. (큰)덜거덕, (센말) 달까닥, 딸가닥, 딸까닥.

‘달각’과 ‘달가닥’은 음절 수에 차이가 있지만 형태·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관련어로 처리할 수 있다. ‘철컹-처커덕’ 등을 포함해 이러한 관계를 보이는 말은 국어에 적지 않다. 그런데 『큰사전』 이래 국어사전에서는 ‘달가닥’ 쪽을 본말로 ‘달각’ 쪽을 준말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이문규(1996: 11)은 ‘달가닥’을 ‘달각’의 확장 형태로 보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흥내말’의 준말-본말 처리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앞 사전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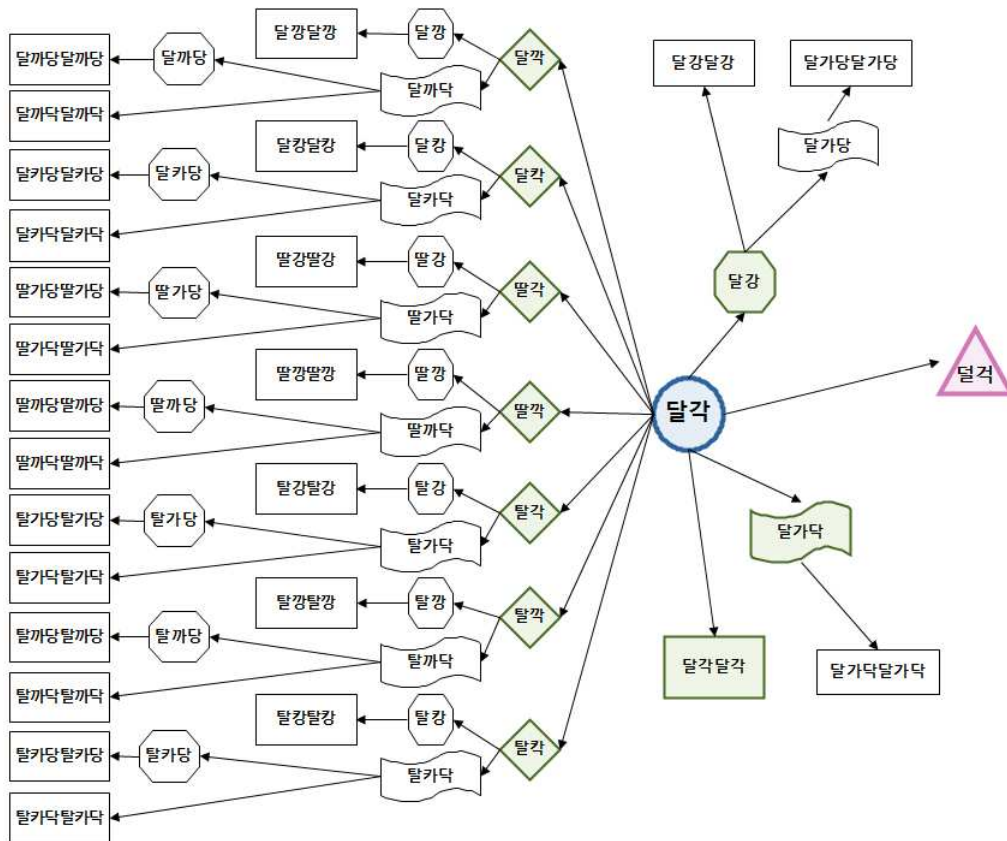
다른 사전이 ‘달각’을 ‘달각닥’의 준말로 처리한 데 반해 『고려대』에서는 ‘참조어’로 처리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려대』 편찬 시 관여했던 연구자의 말을 빌리면, ‘달각’을 참고어로 처리한 것은 ‘달각’과 ‘달가닥’이 원초적으로 준말-본말의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 반영되었다 한다. 사전에서 ‘본말’과 ‘준말’의 관계는 이들이 동의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도상성의 원리에 따르면 의성어·의태어에서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보이는 말들은 뜻풀이를 달리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흥내말의 관련어는 자음 교체와 모음 교체로 어감의 차이를 갖는 어휘에

19) 다른 사전들이 자음 교체에 따른 관련어를 제시할 때 (센), (여린)등의 표지로 구분한 데 반해 『표준』에서는 이러한 구별없이 (참)으로 묶어 관련어를 제시하고 있다. 조남호(1993)은 (거), (센) 등 분류 기호를 이용하면 각 표제어 사이의 관련을 잘 드러낼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잘까닥’은 ‘잘가닥’의 센말이지 ‘찰까닥’의 센말이 아니므로 ‘찰까닥’에 대해서 ‘잘까닥’을 ‘(센)’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의성어·의태어의 관련어를 절대 음감이 아닌 표제어에 상대해서 규정하는 입장을 따라는 것으로 본다.

20) 『큰사전』과 『대사전』에서는 ‘살살’을 살금-살금의 ‘둥실’을 ‘둥실둥실’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본말-준말의 관계가 아니라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한국어 흉내말이 형태·의미적으로 관련을 맺는 방식은 좀더 다양하다. 흉내말 ‘달각’은 자모대응, 어말자음 교체, 형태 확장, 반복 등으로 어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144개의 관련어 쌍을 갖는다.



<그림 2> ‘달각’의 관련어망

여기서 ‘달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흉내말로는 ‘달각, 달각..류’의 자음 교체형과 ‘덜걱’의 모음 교체형, 그리고 ‘달가닥’의 확장형과 ‘달강’의 어말자음 교체형 있다. 이중 흉내말에서 어말 자음 교체형은 관련어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의성어·의태어에 중 어말 형태·의미상 관련을 맺으면서 어말 자음 교체만으로 어감의 차이를 분화하는 대응쌍이 적지 않으며 의미의 관계 역시 대체로 투명하여 흉내말의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9) 흉내말의 어말 자음 교체에 따른 대응 유형(박동근, 2014)

- ① ㄱ - ㄹ / 반득반득 : 반들반들
- ② ㄱ - ㅁ / 자축자축 : 자춤자춤
- ③ ㄱ - ㅂ / 느직느직 : 느깃느깃

- ④ ㄱ - ㅇ / 달각달각 : 달강달강
 ⑤ ㄴ - ㄹ / 굽신굽신 : 굽실굽실
 ⑥ ㄴ - ㅁ / 시큰시큰 : 시큼시큼
 ⑦ ㄴ - ㅂ / 가뿐가뿐 : 가뽏가뽏
 ⑧ ㄹ - ㅂ / 방글방글 : 방긱방긱
 ⑨ ㅁ : ㅂ / 흘끔흘끔 : 흘끗흘끗
 ⑩ ㅁ : ㅇ / 찰람찰람 : 찰랑찰랑²¹⁾

2.4. 품사 정보

사전에서 흉내말의 품사 문제를 처음 거론 한 것은 송문준(1986)에서다. 송문준(1986)은 『큰사전』(1957)에서 ‘꼬끼오, 음매, 야옹’을 감탄사로, ‘꿀꿀’, ‘멍멍’은 부사로 처리한 데 반해, 『우리말 역순사전』에서는 “야옹‘과 ’음매‘를, 『국어대사전』(이희승, 1986)에서는 “야옹‘만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어 사전마다 흉내말(특히 의성어)의 품사 처리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의태어를 부사로 처리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므로 의성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어휘를 더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사전에 따른 흉내말의 품사 처리 비교

		큰사전	대사전	금성판	우리말	표준	고려대
동물 소리	까옥	감	감	부	부	부	부
	꼬끼오	감	감	부	부	부	부
	야옹	감	감	부	부	부	부
	음매	감	감	부	부	부	부
	멍멍	부	부	부	부	부	부
	뽀악	부	부	부	부	부	부
웃음 소리	하하	부.감	부.감	부	부	부	부
	헤헤	부.감	부.감	부	부	부	부
	이히히	감	감	감	부	부	부
	낄낄 ²²⁾	부	부	부	부	부	부
	허허	부	부	부	부	부	부
	호호	부	부	부	부	부	부
울음 소리	흑흑	부	부	부	부	부	부
	엉엉	부	부	부	부	부	부
	응애응애	감	감	감	감	부	부

21) 손달임(2016)에서 의성의태어 중에는 ‘노글노글/노근노근(북한어)/노긱노긱’처럼 형태나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표준』, 『고려대』, 『연세』에서 이들을 관련어로 다루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덜컹’, ‘덜컹’ 등이 기본 의미를 공유하면서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금성판』 이전 특히 『큰사전』과 『대사전』에서는 최근 사전에서 부사로 처리하고 있는 몇몇 의성어를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다.²³⁾ 그런데 여기에 어떤 확실한 원칙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동물 소리 흉내말 중 '까옥, 꼬끼오, 야옹, 음매'는 『큰사전』과 『대사전』은 감탄사로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멍멍'과 '삐악'은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들은 『금성판』 이후 사전에서 모두 부사로 일괄 처리하고 있다.

'하하'와 '헤헤'는 『큰사전』과 『대사전』에서 '부사'와 '감탄사'의 통용어로 처리하고 있으나 부사로만 처리하고 있는 '허허'나 '호호'와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들 역시 『금성판』 이후 모두 부사로 통일되었다. '이히히'는 『금성판』까지 감탄사로 처리되다 『우리말』 이후 부사로 통일되었다. 울음소리 가운데 '흑흑, 엉엉'은 줄곧 부사로 처리되었으나 '응애응애'는 『우리말』까지 감탄사로 처리되다 『표준』 이후에 부사로 처리 되었다. <표 13>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우리말』 이전까지는 의성어 개별어휘에 대한 품사 처리에 고민이 있었다고 보는데, 『표준』 이후에는 일괄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²⁴⁾

이에 대해 송문준(1986)에서는 우리말의 의성어가 의태어와 달리 독립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일괄 감탄사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10) 아뽕싸, 순서가 뒤바뀌었네 (느낌씨)

덜커덩,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리 흉내말)

와당탕 통탕, 무엇인가 굴러내렸다. (소리 흉내말)

(11) 아차! (느낌씨)

쨍그랑! (소리 흉내말)

음매! (소리 흉내말)

(10)에서 '덜커덩'과 '와당탕'은 감탄사 '아뽕사'와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문장의 성분이 아니다. (11)의 '쨍그랑'이나 '음매'는 감탄사 '아차'의 사용과 비교해 볼 때 뒤에 어떤 문장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 이후 사전에서 의성어는 의태어와 일괄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송문준(1986)에서 의성어 품사 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22) '쨍쨍'(참새가 우는 소리)는 『큰사전』에 명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오류로 보인다. 『대사전』도 이 오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23) 예시로 든 흉내말에서 『큰사전』과 『대사전』의 품사는 전부 일치하는 데 의성어·의태어의 품사에 있어 『대사전』이 『큰사전』의 처리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 의성어·의태어를 '상징부사'라 통칭할 만큼 연구자들이 의성어·의태어의 전형적인 품사를 '부사'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감탄사로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품사를 '부사'로 통일했다는 점에 일관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연구원(2000)에서는 의성어와 감탄사가 모두 소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의성어가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것이라면 감탄사는 어떠한 의도나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박주원(2011)에서도 의성어를 감탄사와 구분하여 부사로 처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국어연구원(2000)이나 박주원(2011)에서의 논의는 의성어가 '감탄사'가 아니라는 데에 초점이 놓여있지 한국어 의성어 가운데 주로 독립어로 사용되는 것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12) ㄱ. 쟁그랑, 무엇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먼그대)

ㄴ. 칼을 쟁그랑 떨어뜨렸다. (머나먼 송바강)²⁵⁾

(12ㄱ)에서 '쟁그랑'은 후행하는 문장의 성분으로 보기 어렵다. (12ㄴ)의 '쟁그랑'은 서술어 앞에 와서 마치 '떨어뜨렸다'를 수식하는 것 같으나, '쟁그랑'이 의성어로 움직임이나 나타내는 동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사어가 아닌 독립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²⁶⁾ 그런데 '쟁그랑'을 감탄사로 처리하는 데는 우리말 품사 체계상 제약이 있다. 독립어 기능을 특징으로 분류한 품사가 '감탄사'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탄사'가 의미 그대로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라는 점에서 말하는 이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동물의 울음소리나, 사물의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를 감탄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12)에서 '쟁그랑'이나 '음매' 외에 '어흥', '꼬끼오' 등과 같은 동물의 의성어는 실제 독립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사'가 기능상 '독립어'로 기능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품사 분류는 단어의 고유한 기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마무리

이 연구는 『큰사전』 이후 국어사전에서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미시정보가

25) 용례는 연세 말뭉치 검색 시스템에서 찾은 것임. (<https://ilis.yonsei.ac.kr/corpus/#/>)

26) 전형적인 의성어는 주로 소리와 관련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음매음매 울다

어떻게 제시되어는지 사전학적 관점에서 비교·고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사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큰사전』, 『대사전』, 『금성판』, 『우리말』, 『표준』, 『고려대』의 6개 사전을 대상으로 의성어·의태어의 미시 정보 제공 방식을 비교·검토하였다.

먼저, 국어사전의 형태 정보는 표제어에 ‘-’로 표시하는데, 이음절의 반복형(abab) 흉내말은 사전에서 일괄적으로 ‘ab-ab’처럼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이음절의 반복인 ‘aa’ 형의 흉내말은 단순형 ‘a’가 자립성을 가질 때 ‘a-a’와 같이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말』과 『표준』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에 일관성이 없다. 무엇보다 이음절의 반복형과 이음절의 반복형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언어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어사전의 의성어·의태어의 형태 분석은 철저히 형태소 분석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즉 ‘살금살금’ 같이 이음절 형의 흉내말에서 그 단독형인 ‘살금’이 자립성이 없으며 ‘살금살금’ 외에 다른 형태와 결합하지 않을 때는 형태소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언어 사실에 부합한다.

둘째, 의성어·의태어는 『큰사전』 이래 ‘~하는 모양/소리’의 형태를 기본 뜻풀이 구조로 삼아 왔다. 『고려대』에서는 ‘~하는 소리/모양을 나타내는 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앞 사전과의 차별을 고려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표준』과 『우리말』은 특히 ‘~하는 소리, 또는 모양’과 같이 의성어·의태어를 겸하는 풀이가 많은데, 사전마다 의성어, 의태어, 의성/의태어를 구분하는 차이가 적지 않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는 것은 흉내말 분석의 첫 단계인 만큼 좀더 정확한 판별 기준을 마련하여 흉내말 전체를 대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전 편찬의 편의나 지면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의성어·의태어는 뜻풀이를 각 표제어에서 하지 않고 관련어 중 특정한 형태에 몰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사전 이용자가 원하는 뜻을 찾기 위해 이 단어 저 단어로 옮겨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형태·의미적으로 관련된 흉내말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으나 사전 이용자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특히 ‘~의 센말’, ‘~의 준말’ 등은 사전의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단어의 개념을 풀이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넷째, 의성어·의태어의 관련어·참고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사전 편찬자 입장에서 매우 어렵고 많은 품을 들어가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성어·의태어의 뜻은 관련어 속에서 파악되니만큼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사전 편찬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존의 관련어 정보가 초성의 자음 대응과 모음의 대응, 원말-준말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관

련어의 범위를 어말의 대응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룬 각각의 미시 구조는 하나하나를 연구 주제로 삼을 만한 것들이다. 이를 한 자리에서 다루다 보니 충분한 사례와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좀더 정밀한 분석은 후일의 과제로 미룬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 II.
김홍범(1995),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 형태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글』 228, 한글학회, 219-257쪽.
김홍범(1998), 한국어 상징어 사전의 편찬 방안, 『한글학회』 137, 한글학회, 137-160쪽.
김홍범(2000), 국어사전 의미 정보 기술의 실제와 문제 - 상징 부사류를 중심으로, 『한말 연구』 7, 한말연구학회, 135-147쪽.
김홍범(2007),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 연구,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141-366쪽.
김홍범(2019), 상징어 표제어 의미 기술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 『한말연구』 2019, 한말연구학회, 33-59쪽.
김홍범·박동근(2001), 한국어 상징어 사전 편찬의 실제, 『사전편찬학연구』 11-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도원영·박주원(2011), 『고려대학교 한국어 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박나영(2023), 한국어의 음운변동과 음소배열제약의 관계 탐구, 『한말연구』 64권 35호, 한말연구학회, 1-32쪽.
박동근(1997), 한국어 흥내말의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동근(2000), ‘웃음표현 흥내말’의 의미 기술, 『한글』 159~189
박동근(2014ㄱ), 국어사전에서 흥내말의 다의어, 동형어 판별에 대한 연구,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5-26쪽.
박동근(2014ㄴ), 흥내말의 어말 자음 교체에 대한 기능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7, 한민족문화학회, 159-193쪽.
박동근(2021), 남북간 국어사전의 흥내말 비교 연구, 『한말연구』 60, 한말연구학회,
박주원(2011ㄱ), 의성의태 용언의 특성과 사전 처리 방향, 『고려대학교 한국어 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121-161쪽.
박주원(2011ㄴ), 감탄사와 부사의 범주 구분과 처리, 『고려대학교 한국어 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449-465쪽.
손달임(2016),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 -관련어의 유형과 정보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42,
송문준(1986), 소리 흥내말의 씨가름에 대하여, 『한글』 200, 한글학회, 139-163쪽.
신중진(2000),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와 그 방향 -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

- 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65-291쪽.
- 엄태경(2013), 국어사전의 미시 구조 연구 -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역락.
- 이극로(1938), 사전 주해난, 『한글』 58, 한글학회.
- 이문규(1996ㄱ), 현대국어 상징어의 음운·형태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문규(1996ㄴ), 상징어의 형태 확장, 『한글』 234, 한글학회, 35-68쪽.
- 이병근(1990), 사전 및 사전학,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조남호(1993), 국어사전에서의 의성의태어 처리,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73-92쪽.
- 조남호(2017), 의성의태어 사전 편찬의 성과와 개선점, 『한국사전학』 29, 한국사전학회, 191-222쪽.
- 조재수(2021), 『한국어 사전 편찬의 발자취』, 한글학회.
- 홍종선 외(2009), 『국어 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제3부 연구 발표

한국어 ‘ㄴ ㄹ’ 연쇄의 발음과 그 원리/ 김수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연구/ 박진희

초등 학습자의 문법 인식 연구/ 정지현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 ~ 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주제 발표

한국어 ‘ㄴㄹ’ 연쇄의 발음과 그 원리

김수영

한신대학교 교수
soojulia1217@gmail.com

1. 서론

이 글은 한국어에서, 형태소 내부 또는 형태소 경계에서 ‘ㄴㄹ’ 연쇄를 보이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발음의 양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어 내부에서의 ‘ㄴㄹ’ 연쇄는 한자어 또는 외래어에서만 확인되며 역행적 유음화 또는 치조비음화를 겪게 되는데,¹⁾ 역행적유음화란 후행하는 ‘ㄹ’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ㄴ’이 ‘ㄹ’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 예에는 ‘신라[실라]’, ‘윤리[율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치조비음화는 ‘ㄹ’의 비음화라고도 하며, ‘ㄹ’앞에 ‘ㄹ’이 아닌 자음이 올 때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섭리[섬니]’, ‘궁리[궁니]’, ‘결단력[결판녁]’ 등이 그 예이다.

‘ㄴㄹ’ 연쇄에서 이 두 가지 현상 중 어떤 현상이 선택되는지는 화자의 세대 및 지역 또는 사용 빈도와 같은 언어 외적 요인이 관여하기도 하며 언어 내적으로는 단어의 어종, 역행적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음운론적 특징 및 단어의 형태론적 구성 등이 작용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ㄴㄹ’ 연쇄에서 역행적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선택과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

1) ‘ㄴㄹ’ 연쇄는 단어 내부뿐만 아니라 단어 경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예: 무슨 라면 [무슨나면]) 이 글에서는 단어 내부에서의 ‘ㄴㄹ’ 연쇄에 초점을 둔다.

지 살펴보고, 이들 발음의 선택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의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그 발음 선택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언어 내적 요인(음운론적 요인·형태론적 요인) 및 언어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한국어 ‘ㄴㄹ’ 연쇄의 발음

한국어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에 대하여는 선행 연구(참고문헌 참조) 및 국립국어원(2001, 2002, 2003, 2015, 2016, 2022) 등에서 꾸준히 검토되었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ㄱ. 어종

a. 한자어

- 2음절: 역행적 유음화 실현이 우세(예: 권력[꺄력], 난리[날리])
- 3음절: 어근의 기능을 하는 2음절 한자어와 접미사적인 기능을 하는 1음절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치조비음화가 잘 일어남(예: 결단력[결판녁], 음운론[음운논]).

b. 외래어: 치조비음화 실현이 우세(예: 다운로드[다운노드], 온라인[온나인]).

ㄴ. 세대: 치조비음화 실현이 우세한 환경이더라도 10-20대의 경우 역행적유음화가 우세하고, ‘ㄴ’과 ‘ㄹ’을 모두 발음하는 경향도 나타남.

위의 (1)을 보면 ‘ㄴㄹ’ 연쇄의 발음은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역행적 유음화가 실현된 유형, 치조비음화가 실현된 유형, ‘ㄴ’과 ‘ㄹ’을 모두 발음하는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단어의 어종이나 음절 수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언어 외적 요인으로는 세대 변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²⁾ 다음 3장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지역에 따라서는 남부 방언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강하며 중부 방언에서는 치조비음화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바(이진호 1998 : 102-103), 대구 및 경북에서도 역행적유음화의 실현율이 높다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권순미 2008), 부산에서는 10대에서 역행적 유음화를, 4-50대에서 치조비음화를 선호하며(이하영 2016 : 47-48), 전북에서는 20대 이하에서 역행적 유음화를, 30대 이상에서 치조비음화를 선호하므로(박시균 2019 : 572), 지역 차이보다는 세대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ㄴㄹ’ 연쇄의 언어 외적 요인에 있어 지역 변인은 고려하지 않고 세대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고자 한다.

3. 발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ㄴㄹ’ 연쇄의 발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 내적 요인과 언어 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3.1에서는 언어 내적 요인을, 3.2에서는 언어 외적 요인을 다루고자 한다.

3.1 언어 내적 요인

‘ㄴㄹ’ 연쇄의 발음 선택에 작용하는 언어 내적 요인에 대해서는 음운론적 요인과 형태론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1 음운론적 요인

먼저 역행적유음화는 역행 동화의 일종이다. 역행 동화는 후행하는 음의 조음을 예측하여 발생하는 예측 동화로, 순행 동화보다 범언어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Bybee 2001 : 18-24, 26). 이 점은 한국어에서 치조비음화보다 역행적유음화가 먼저 일어난 것보다 맥을 같이한다(이진호 1998).

다음으로 치조비음화는 비음을 포함한 폐쇄음(ㄱ, ㄴ, ㄷ, ㄹ, ㅁ, ㅂ, ㅇ)과 ‘ㄹ’의 연쇄에서 ‘ㄹ’이 ‘ㄴ’로 바뀌는 것으로, ‘ㄹ’ 앞에는 ‘ㄹ’ 이외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강도와 관련된 제약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음운론적 강도에 의한 제약으로 왜 ‘ㄹ’이 ‘ㄴ’로 바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현상의 성격 또한 명확히 논의되지 않았다. 논의에 따라서는 이를 동화 현상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정확히 폐쇄음들의 어떤 특징에 의해 ‘ㄹ’이 ‘ㄴ’로 동화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므로 동화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신승용 2013 : 160).

이 대치 현상의 까닭에 대하여, 김경아(2004 : 25)에서는 음절말에서의 필수적 미파화라고 하는 국어의 조음적 특징이 외파음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을 보이는 서승완(2019 : 84)에서는 종성에 위치하는 자음의 폐쇄 때문에 기류의 흐름이 필요한 탄설음의 조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비음은 폐쇄음이기는 하지만 비강에서의 공기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ㄹ’보다는 폐쇄음에서의 연결이 가능하여 ‘ㄹ’이 동일한 조음 위치의 ‘ㄴ’로 교체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제까지 한국어에서 치조비음화는 필수적인 음운 현상인 것처럼 여겨져 왔지만, 범언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영어를 포함한 인구어에서는 폐쇄음과 유음의 연쇄가 자연스럽다. 또한 일본어 유음 ‘/r/’은 한국어와 유사한 탄설음이지만, ‘n-r’의 연쇄가 가능하다(예: 新郎(しんろう)[finro:]).³⁾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한국어에서도 치조비음화의 실현은 언제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립국어원(2002 : 22-23)의 조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ㄱ, ㅇ, ㄴ’에 후행하는 ‘ㄹ’을 가진 외래어의 발음을 조사하였는데, 7-80%가 ‘ㄹ’을 ‘ㄴ’으로 교체하여 발음하였으나 ‘ㄱㄹ’ 연쇄에서 각각을 모두 발음한 경우는 7.15%에 불과한 데에 비해 ‘ㅇㄹ’ 또는 ‘ㄴㄹ’ 연쇄에서 각각을 모두 발음한 경우는 16.19%, 21.43%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⁴⁾ 즉 선행음의 폐쇄성이 영향을 주어 ‘ㄹ’이 ‘ㄴ’으로 교체되는 것이라면, ‘ㄹ’과 조음 위치가 가까운 양순음(‘ㄱ’)이 거리가 먼 연구개음(‘ㅇ[n]’, ‘ㄴ’)보다 ‘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또한 ‘ㄴㄹ’ 연쇄의 발음에서 ‘ㄴ’과 ‘ㄹ’ 각각을 발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어의 영향인 것처럼 여겨져 왔으나, 이처럼 치조비음화 현상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이는 치조비음화가 필수적이지 않은 음운 현상인 데에서 비롯된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역행적유음화는 일어나기 쉬운 동화 현상이므로, 음운론적으로는 ‘ㄴㄹ’ 연쇄에서 치조비음화보다는 역행적유음화가 우선적으로 선택된다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발음 양상 가운데, 2음절 한자어에서는 대체로 역행적 유음화가 실현된다는 점도 그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치조비음화의 실현에는 어떤 요인이 보다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까? 3.1.2에서는 이에 답하기 위해 형태론적 요인을 고려할 것이다.

3.1.2 형태론적 요인

‘ㄴㄹ’ 연쇄를 가진 단어에 치조비음화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현상과 관련한 대부분의 논의가 분리 가능성

3) 高秀晚(2004 : 10)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어의 치조비음화나 역행적유음화 현상 때문에 일본어를 처음 접하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나 독학으로 학습한 사람 중에서 ‘>[n]’ 뒤에 ‘ら行’이 올 때 >[n]을 한국어의 받침 ㄹ과 같이 발음하거나, ‘ら行’의 자음을 [n]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4) 이때 조사 대상이 된 단어는 외래어 ‘크렘린 궁전, 이슬람력, 동로마, 장르, 블랙리스트’이고, 해당 조사에서 청취 판단만으로 ‘ㅇㄹ’ 연쇄와 ‘ㄴㄹ’ 연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ㄴㄹ’ 연쇄 또한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함하였다.

또는 형태론적 경계에 초점을 두었다. 즉 ‘ㄴ’을 종성으로 갖는 선행 요소와 ‘ㄹ’을 초성으로 갖는 후행 요소에 ‘어근+어근’ 또는 ‘어근+접사’의 형태론적 경계가 있거나, 명확한 형태론적 경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리 가능성이 있으면 치조비음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예: 판단력[판단녁]).

그런데 분리 가능성이 있을 때 치조비음화가 실현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적 핵과 관련된 것이다. ‘판단력[판단녁]’에서 의미적 핵은 ‘판단’일 것이며 ‘판단’과 ‘-력’의 분리 가능성이 높다. 즉 의미적 핵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치조비음화가 적용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복합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적 핵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의미적 핵이 선행 요소가 아니더라도 선행 요소의 형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즉 치조비음화를 적용시켜 발음하는 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외래어에서 그러한데, ‘원룸’을 예로 들면 국립국어원(2001)과 국립국어원(2015)의 조사에서 모두 ‘[원눔]’으로 응답한 비율이 ‘[월룸]’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다(국립국어원 2001 : [원눔] 50.4%, [월룸] 25.07%, [원룸] 24.52%, 국립국어원 2015 : [원눔] 57%, [월룸] 24.3%, [원룸] 18.67%). 그러나 ‘원룸’에서 의미적 핵은 ‘원’보다는 ‘룸’일 가능성이 높고, 또는 의미적 핵을 변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더욱 역행적 유음화가 실현된 비율이 높아야 할 듯하다.

이에 대해 박선우(2007)에서는 치조비음화가 적용된 예들을 유추 변화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즉 ‘ㄴㄹ’ 연쇄가 아니더라도 선행 요소가 장애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의 초성이 ‘ㄹ’인 경우 치조비음화를 겪게 되므로 이를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패러다임 동일성에 의해 ‘ㄴㄹ’ 연쇄를 가진 단어들의 경우에도 저빈도 단어일수록 치조비음화를 실현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한자어 접미사가 결합된 예들에 한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에도 동일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외래어의 경우 이처럼 패러다임을 만들 만한 단어들로는 ‘X룸’이나 ‘X라인’, ‘X라이스’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듯한데,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이를 가진 단어들이 매우 적고 대체로 빈도도 낮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형성할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⁵⁾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설명을 적용할 수 있을까? 복합어의 구성에 있어

5)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X룸’에 속할 단어들은 ‘원룸’, ‘선룸’, ‘블룸’ 등이 있고, ‘X라인’의 경우는 ‘핫라인’, ‘인라인’, ‘온라인’ 등이 보인다. ‘X라이스’로는 ‘햄라이스’가 확인된다.

선행 요소의 형태 보존을 하고자 하는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지룡(1992 : 183)에서는 합성어의 형성에 있어 ‘나 먼저 원리(Me First Principle)’를 들어 화자에게 가까운 것이 합성어 구성에 있어 선행 요소가 된다고 한 바 있다.⁶⁾ 이를 우리의 논의에 적용한다면, 치조비음화를 선택하는 까닭은 의미적 핵과 관계없이 복합어의 선행 요소를 화자 자신에게 가까운 것으로 여겨 전달하고자 하는 기제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저빈도 단어 혹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유추와 관계없이 새로 형성되었거나 그 쓰임이 적은 단어일수록 복합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긴밀성이 낮고, 그 때문에 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의 형태를 우선 발음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익숙하지 않거나 빈도가 낮은 단어들에서 그렇지 않은 단어들보다 치조비음화가 실현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래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단어의 사용도와 함께 응답자가 사용하는 발음을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이므로 발음 확인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단점은 있으나, 그 경향은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 설문 조사는 Google Forms를 활용하여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정보 및 조사에 활용한 외래어 목록은 각각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성별	남	41
	여	50
	응답하고 싶지 않음	1
	합계	92
세대	20대	39
	30대	30
	60대	23
	합계	92
출생지	강원	2
	충청	3
	전라	7
	경상	12
	제주	0
	서울 및 경기	67

6) Cooper&Ross(1975 : 65-67, 93) 참조.

	해외	1
	합계	92

<표 1> 응답자 정보

	2음절	3음절 이상
외래어	원룸, 곤로, 선룸	선루프, 팬레터, 온라인, 커튼레일, 다운로드, 그린라운드, 스테인리스 ⁷⁾

<표 2> 조사 단어 목록

조사에 활용한 설문지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의 예(‘선루프’)

1. ‘선루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사진 제시)
 - (1) 옛날부터 쓰던 말이고, 지금도 자주 쓴다.
 - (2) 옛날부터 쓰던 말이고, 지금은 거의 안 쓴다.
 - (3) 최근에 알게 된 말이고, 자주 쓴다.
 - (4) 최근에 알게 된 말이고, 거의 안 쓴다.
 - (5) 처음 듣는다.
2. ‘선루프’의 다음 두 발음 중에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발음을 골라 주십시오. 보기 중에 없다면, ‘기타’에 직접 적어 주십시오.
 - (1) 설루프(썰루프)
 - (2) 선누프(썬누프)
 - (3) 기타(직접 기입)

<표 3> 설문지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단어에 익숙한 정도와 발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번의 단어 사용도 질문에서 (1)과 (3) 즉 ‘옛날부터 쓰던 말이고, 지금도 자주 쓴다.’와 ‘최근에 알게 된 말이고, 자주 쓴다.’에 응답한 비율을 합하여 그 순위에 따른 발음 선택 양상을 다음 <표 4>에 정리하였다.

7) ‘스테인리스’는 ‘스텔리스/스텐니스’ 또한 선택지에 넣었고 ‘스탱’으로 발음하는 경우를 제외해 달라고 하였다.

사용도 순위	응답형 조사 항목	ㄹㄹ	ㄴㄴ	ㄴㄹ	합계
1	온라인(100%)	65(71%)	22(24%)	5(5%)	92
1	다운로드(100%)	31(34%)	53(57%)	8(9%)	92
3	원룸(98%)	61(66%)	27(30%)	4(4%)	92
3	스테인리스(96%)	28(30%)	57(62%)	7(8%)	92
5	선루프(76%)	25(27%)	54(59%)	13(14%)	92
6	팬레터(40%)	37(40%)	47(51%)	8(9%)	92
7	커튼레일(26%)	26(28%)	58(63%)	8(9%)	92
8	선룸(10%)	36(40%)	49(53%)	7(7%)	92
9	곤로(7%)	48(52%)	42(46%)	2(2%)	92
10	그린라운드(2%)	27(29%)	55(60%)	10(11%)	92

〈표 4〉 단어 사용도 순위에 따른 응답형 선택 빈도 및 비율

이를 통하여 사용도 순위가 낮은 ‘팬레터, 커튼레일, 선룸, 그린라운드’의 경우 치조비음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용도가 높은 ‘온라인’, ‘원룸’의 경우 치조비음화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은 편임이 확인되었다. 다만 ‘다운로드’는 사용도가 높았음에도 치조비음화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형태론적 경계와 관련한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다운로드’에서의 의미적 핵은 ‘다운’일 가능성이 높기에 그 형태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치조비음화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곤로’는 사용도가 낮았음에도 역행적 유음화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여기에는 이 단어가 외래어가 아니라 ‘난로’와 유사한 2음절 한자어로 인식되었을 가능성과, 이 때문에 단어가 유입되던 초기부터 이 단어의 기저형이 ‘골로’였을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ㄴㄹ’ 연쇄의 발음에 작용하는 언어 내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3.2에서는 언어 외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3.2 언어 외적 요인

앞서 ‘ㄴㄹ’ 연쇄의 발음에 대해 언어 외적 요인으로 세대 변인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제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세대 차이에 따라 ‘ㄴㄹ’ 연쇄를 가진 단어들에서 역행적유음화와 치조비음화 중 어느 현상이 많이 실현되는지 설명한 논의들에는 이진호(1998), 권순미(2008), 임수록(2013), 이하영(2016), 박시균(2019) 등이 있다. 이진호

(1998 : 102-103)에서는 청년층에서 치조비음화, 노년층에서 역행적유음화가 주로 나타난다고 언급하였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20대 이하의 제보자들에게서는 역행적유음화가 우세한 양상이 보고되고 있다(이하영 2016 : 47-48, 박시균 2019 : 572, 웅연 2019).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별로 우세한 현상이 다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전국 단위의 조사인 국립국어원(2022)에서 확인해 보면, 해당 연구에서는 ‘ㄴ르’ 연쇄를 포함한 단어로 ‘원룸’의 발음을 조사하고 다음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를 보면 20대에서는 다른 세대와 달리 역행적 유음화를 적용한 발음을 주로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조비음화를 선택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원룸’의 발음(국립국어원 2022)

그렇다면 이처럼 세대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언어 현상이 세대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언어 태도 또는 표준어에 대한 의식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어떤 세대에서 선호되는 현상인 이유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장년층에서 치조비음화를 선호하는 것이 형태 분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동일한 단어에 대해 중·장년층에서는 형태 경계를 고려하고 청년층은 다시 형태 경계를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는 언어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김경아(2004 : 26-28)에서는 외래어에서 대체로 치조비음화가 우세한데, 비음화를 실현하는 경향이 강한 단어일수록 최근에 소개된 어휘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면 외래어에서 치조비음화가 선호되었던 까닭은 앞서 밝힌 ‘선행 요소의 형태 보존’을 하려는 경향이 새롭고 덜 익숙

한 단어에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ㄴㄹ’을 포함한 단어 가운데서 현재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속하는 ‘원룸, 다운로드, 온라인’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단어	예시
원룸	- 붙박이 가구와 소가구의 다목적 쓰임새가 창안되고 원룸 시스템으로 넓은 홀을 쓰임새에 따라 나누고...(1970. 8. 17. 동아일보) - 이처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日本에서와 같은 「원룸」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1989. 10. 11. 매일경제)
다운로드	PC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다운로드) 동안은 그밖의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91. 9. 3. 조선일보)
온라인	미국의 큰 은행들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결, 예금자는 전국 어디서나 은행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1969. 3. 26. 경향신문)

<표 5> ‘원룸, 다운로드, 온라인’의 사용 예

이를 통해 1970년대부터 이들 단어의 사용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970년대 이후의 청년층에서는 이 단어들을 치조비음화를 적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치조비음화가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의 세대에서는 이들 단어에 익숙하므로, 현재는 젊은 세대일수록 역행적 유음화를 적용한 발음을 선택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제까지 단어 내부에 ‘ㄴ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들의 발음 양상을 살펴보고 그 선택에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ㄴㄹ’ 연쇄를 포함한 단어들은 어종, 세대 등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이 단어들에서 치조비음화 및 역행적유음화 등의 음운 현상이 선택되는 까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ㄴㄹ’ 연쇄에서 실현 가능한 두 가지 음운 현상 가운데 역행적유음화는 역

행 동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치조비음화에 비하여 발생하기 쉬운 음운 현상이라는 점, 역사적으로도 치조비음화보다 역행적유음화가 먼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역행적유음화의 실현에는 음운론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달리 치조비음화의 선택에는 복합어를 구성하는 선행 요소의 형태를 보존하기 위한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이러한 기제는 복합어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 즉 복합어의 각 요소가 긴밀하지 않을 때에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여, 각 요소가 긴밀하게 결합되어 형태론적 경계가 무의미할 때에는 역행적 유음화가 보다 잘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단어 경계 즉 구 내부에 존재하는 단어들 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의미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보충하는 작업 및 이처럼 서로 다른 음운현상의 실현에 있어서 형태론적 정보가 작용하는 예들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고성연(2000), 비음화와 유음화의 선택적 교체 현상, 언어연구 22.
- 高秀晚(2004), 日本語「ㄴ」發音의 音韻論的 考察, 일본학보 59, 한국일본학회, 1-15.
- 국립국어원(2001), 『외래어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2),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5), 『대도시 지역 사회 방언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6), 『한국어의 발음 현황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22), 『2022년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권순미(2008), 현대국어 ㄴ-ㄹ 연쇄의 변이 양상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경아(2004), 유음화와 비음화의 선택적 교체에 대하여, 인문논총 1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5-37.
- 김태경(2000), 비음화와 유음화의 적용 기제에 대하여, 한국어학 11, 한국어학회, 75-90.
- 박선우(2007), 한국어 /nl/의 변이에 대한 분석, 한국어학 36, 한국어학회, 2-22.
- 박시균(2019), ㄴ-ㄹ가 연이어 오는 환경에서의 유음화-비음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전북 지역 화자를 중심으로-, 언어 44-3, 한국언어학회, 559-585.
- 서승완(2019), ㄹ의 분포 제약에 대하여, 어문연구 4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5-99.
- 신승용(2013), 『국어 음운론』, 역락.
- 웅연(2019), 현대 한국어 ‘ㄴㄹ’ 연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진호(1998), 국어 유음화에 대한 종합적 고찰, 국어학 31, 국어학회, 81-120.

이하영(2016), 부산지역 세대 간 발음 변이에 대한 연구 : /ㄴ-ㄹ/ 연쇄를 중심으로, 부산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임수록(2013), /ㄴ+ㄹ/ /ㄹ+ㄴ/ 연결형 발음 실태 연구 : 창원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장혜진(2021), 자연발화에 나타난 ㄴ+ㄹ 및 ㄹ+ㄴ 연쇄의 발음 실현 양상, 영주어문 48, 영주어문학회, 33-59.

한명숙(2018), 신어에서 나타나는 /ㄴㄹ/ 연쇄의 발음 양상 연구, 한말연구 50, 한말연구 학회, 231-258.

Bybee(2015),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oper, W.E & J. H. Ross(1975), Word Order, CLS Functionalism.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 ~ 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주제 발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연구

— 오보(誤報)에 나타난 ‘의견의 사실화’
전략과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박진희

서울대학교 연구원
intensivejh@snu.ac.kr

I. 서론

- 매체가 우리 삶과 국어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문식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영역을 신설하여 “매체 및 매체 소통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 “매체 자료의 주체적인 수용과 생산” 등을 매체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로 선정하였음.
- 언어 환경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교육적 수용은 ‘매체’라는 특정 영역의 신설을 통해서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님.⁸⁾ 국어의 내용과 형식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법 영역에서도 ‘매체에 따른 언어’를 탐구의 대상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국어의 실천 양상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와 매체’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신설됨에 따라 문법 교육과 매체 언어의 관계를 검토하거나 문법 교육에서 매체 언어의 수용 방안을 구체화한 논의(김은성, 2010; 양영희, 2016; 이관규, 2017; 강보선, 2019 등)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통해 “언어가 자아 및 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자원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함. 특히 이 연구에서는 정정보도를 통해 오보(誤報)임이 밝혀진 인터넷 포털 기사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문제적 현상에 주목하여 정정 보도 전 기사에 대한 사실성을 대중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문식력 함양을 위한 문법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중에서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최근의 선행 연구로는 박찬 외(2023), 옥현진 외(2022), 노들 외(2022), 강동훈(2022), 송보라 외(2022), 임혜원(2022), 양길석 외(2021), 김정은(2021) 등을 들 수 있음. 대부분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대상 학년군에 맞추어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임. 예컨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고찰한 노들 외(2022)에서는 ‘뉴스의 개념 및 특징 이해하기, 뉴스의 형식 이해하기, 뉴스 생태계의 변화 이해하기, 뉴스의 공정보도 판단하기, 뉴스 만들기’의 5가지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분석한 송보라 외(2022)에서는 교과서에서 뉴스의 비판적 수용과 생산 활동이 강조가 되고 있어도 그것이 생산된 맥락에 대한 이해 활동은 부족함을 지적하였음. 이처럼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 내용은 뉴스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생산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뉴스의 비판적 수용과 생산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 뉴스 혹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 주목한 연구들에 또한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김윤경 외(2017)에서는 인터넷 포털 뉴스의 제목, 기사, 댓글, 대댓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디어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양상 및 담화구조를 분석하였고, 최근에 이루어진 박찬 외(2023)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속성의제’ 개념을 매체 교육에 접목하여 뉴스 기사와 댓글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뉴스의 속성의제가 댓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이들 연구는 이른바 ‘실천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표방하면서 미디어

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주체들의 반응 및 역할에 주목하여 이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고찰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앞서 살핀 것처럼 미디어 그 자체의 내용과 형식을 비판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들 연구는 그러한 미디어를 수용하는 주체들의 반응까지를 비판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임.

○ 이러한 선행 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볼 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함양해야 할 능력은 비판적 리터러시에 있음은 여전히 자명한 사실이며, 그 능력 함양을 위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 즉 교육 내용의 범위가 미디어 텍스트 그 자체에서 그것을 수용 및 생산하는 사용자의 역할로까지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뉴스의 속성의제 분석의 실례를 보여 준 박찬 외(2023)는 ‘무엇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비판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비판적 리터러시의 교육 내용을 구체화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 요컨대, 인터넷 포털 뉴스를 분석 및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어진 텍스트에서 ‘근거의 타당성’, ‘정보의 균형성’, ‘관점의 공정성’ 등을 따져 봄으로써 비판적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다고 논의하는 데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그러한 고려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이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을 문법 교육의 측면에서 구체화한 최선희 외(2022)의 논의임.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의 구인을 ‘양적·질적 균형성’, ‘표현적·맥락적 중립성’, ‘표면적·심층적 다양성’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 각각의 구인에서 주목해야 할 언어 형식(수식어, 인용 동사, 태도 어휘, 접속 표지 등)을 언급함으로써 ‘공정성’을 ‘특정한 언어 형식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다만, 특정한 언어 형식에 주목하는 것이 주어진 텍스트가 공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첫걸음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공정성’이라는 것이 절

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가치’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어 형식에 주목하는 일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해당 텍스트가 생산 및 공유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맥락 속 언어 공동체에 대한 이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즉, 그러한 언어 형식을 선택한 언어 사용 주체의 의도 및 관점에 대한 파악과 그러한 언어 형식의 선택이 언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잘 이해되고, 혹은 잘못 이해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수반되어야 함.
- 이 연구에서 오보(誤報)임이 밝혀지기 전 인터넷 포털 기사문의 내용을 대상으로 기자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기정사실화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기사문의 내용을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대중은 기사문의 어느 부분에 주목하여 사실성을 판단하는가 하는 점을 조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10대 학습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이 인터넷 포털 기사문의 어떤 부분에 이끌려 사실성을 판단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냄으로써 성취기준 수준에서 선언적으로 제시되었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 상세화 차원에서, 특히 문법 교육 내용의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함.

II.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 오보(誤報)에 나타난 언어 형식적 특징에 대한 분석 및 기사문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대한 선행 연구들(남재일, 2004; 송용희, 2005; 이영희, 2009; 김창숙, 2010; 김창숙, 2019 등)을 검토하여 기사문에 나타나는 사실적·객관적 보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첫째는 ‘인용’, 그중에서도 직접 인용(큰따옴표와 같은 인용 부호의 사용)은 사실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기제임.

- 둘째는 통계 수치와 같은 숫자 및 그래프의 사용임. 특히, 이러한 통계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가 함께 제시될 경우, 다시 말해 “사례가 통계 수치를 대변하는 모델로 사용될 경우(남재일, 2004 : 190)” 기사문의 사실성은 높아진다고 분석된 바 있음.
- 셋째는 3인칭 관점에서 직접 관찰의 서술 방식을 취하는 것임. 즉, 기자가 보도 대상 당사자의 행동을 직접 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사건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러한 현장성이 사실성 획득 기제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음.
- 넷째는 피동형 문장의 사용임. 예컨대, “양양 조도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된다.”와 같은 피동형 문장은 “해양 수산청이 양양 조도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와 같은 능동형 문장에 비해 객관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됨. 이는 피동형 문장이 탈동작성과 상황 의존성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과 관련됨. 한편, 피동형 문장은 보도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표현으로 지적되기도 함. ‘어떠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해졌다’와 같은 피동형 문장은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이 연구에서는 정정 보도문이 존재하는 오보(誤報) 기사 중 특히 위의 네 가지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함.

[사례1]⁹⁾

경향신문

[단독] 임신 사실 알리니 해고 통보한 법조윤리협의회

2019.02.16 17:43

류인하 기자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여성 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시간 30분 만에 인사책임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당한 변호사는 며칠 뒤 유산했다. 인사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변호사가 아이를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해당 변호사와의 근로계약 해지는 임신과는 관계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2년 단임제 임기이므로 함께 일하는 사무국장 역시 위원장 임기에 맞춰 2년 단위로 새로 뽑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첨부된 내부 규정 어디에도 상근직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 (이하 생략)...

9) 기사 원문: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2161743001#c2b>

경향신문

‘[단독] 임신 사실 알리니 해고 통보한 법조윤리협의회’ 관련 정정 보도문

2021.03.26 16:15 입력 2021.03.26 16:16 수정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9년 2월 1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에 <[단독] 임신 사실 알리니 해고 통보한 법조윤리협의회>라는 제목으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상근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여성 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시간 30분 만에 인사책임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변호사의 근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2019년 3월 5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법조윤리협의회는 사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재계약 없이 근로 계약이 2019년 3월 5일 그대로 종료됨을 알려준 것으로 해고 통보가 아니고, 해당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은 법조윤리협의회가 해당 변호사에게 근로 계약이 2019년 3월 5일 종료됨을 알려준 이후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사례1’은 2017년 3월부터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여성 변호사가 2018년에는 재계약을 하였지만 2019년에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을 다룬 기사문임. 문제는 해당 변호사가 임신 중이었고, 임신 사실을 알리자 2시간 30분 만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으로, 여성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은 차별임을 고발하는 기사임.
- 다만, 정정 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해당 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은 2019년 3월 계약이 종료됨을 법조위로부터 들은 이후임. 따라서 임신 사실을 알리자 해고당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
- ‘사례1’은 기자가 보도 대상자인 여성 변호사의 상황을 직접 본 것처럼 전달하고 있는 유형에 해당함(대개의 문장이 ‘여성 변호사는’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첫 문단에는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당한 변호사는’으로 여성 변호사가 차별을 받은 피해자임을 드러내고 있음). 즉, 기자는 여성 변호사를 주된 취재원으로 하여 그녀에게 들은 내용을 위주로 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음. 물론, 기사문에는 인사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인터뷰 내용도 실려 있지만 그러한 사무총장의 발화는 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행동이라는 내용이 그의 발화 내용 다음에 기술되고 있음(사무총장의 발화가 끝난 다음 문장은 대개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음).
- 또한 ‘사례1’에는 여성 변호사의 발화, 사무총장의 발화가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는 노무법인의 발화가 역시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음.

[사례2]¹⁰⁾

Break news

인천경제청, 특정 업체 밀어주나? 공모사업 연이은 논란

김민성 기자 | 기사 입력 2023-08-07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모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본지는 7월 13일자 '송도 워터프런트 수변공간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 RFP 사전유출' 기사를 통해 공모지침서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이미 특정 기업에 유출됐으며 이 건을 놓고 경제청 간부회의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정보를 미리 주고선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참여시키려는 의도가 농후하다는 지적이었다.

또한 최근 시끄러운 송도R2부지 역시 인천경제청과 땅 주인인 iH가 해당 부지를 특정 업체 A사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넘기는 것을 검토했다는 소식에 특혜 우려가 제기됐다. ... (이하 생략)...

Break news

[정정 보도] <인천경제청, 특정 업체 밀어주나? 공모사업 연이은 논란> 관련

기사 입력 시간 : 2023/08/24 [15:18:00]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8월 7일 <인천경제청, 특정 업체 밀어주나? 공모사업 연이은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A공무원이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중 1인과 돈독한 관계로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데 대한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A공무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확인되지 않은 승진 여부에 관하여서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선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기자가 언급한 심사위원은 기존 풀에 등재되어 있던 전문가이며, A공무원의 승진 여부에 관하여서도 전혀 밝혀진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A공무원이 인천경제청의 공모지침서 사전 유출과 관련된 자인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례2’는 인천경제청의 비리를 세 가지 사례를 들어 기사화하고 있음.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공간 개발을 위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 지침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특정 기

10) 기사 원문: <https://m.breaknews.com/980536>

업에 유출하였다는 내용을 이전 일자 기사문에서 다룬 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음. 이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이번에는 송도 부지를 제안 공모의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의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넘기는 것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인천경제청에서 공모한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에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부실 심사로 선정되었으며,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이렇게 볼 때, 해당 기사문은 연속 보도로서 인천경제청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고발하는 기사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다만, 정정 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해당 기사문의 세 번째 단락에서 다룬 청라영상문화단지 사업에서의 부실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당한 지적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음. 즉, 사실 확인 결과 36명의 심사위원의 우선 선출은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사례2’는 인천경제청의 비리를 구체적인 여러 사례를 들어 고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한 유형에 해당함. 이와 더불어 ‘사례2’는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동형의 문장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함.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공모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와 같은 문장을 기사문의 첫 번째 문장으로 배치한 것에서부터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외에도 ‘특혜 우려가 제기됐다, 부실 심사 논란이 여러 매체에서 제기된 것, 업계에서는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기관은 공모 사업 심사위원 선출 방식을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 피동형 문장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사례3]¹¹⁾

서울신문

[단독] 폐기율 6배... ‘헌혈 피’가 버려졌다

입력: 2023.06.25. 23:50 수정: 2023.08.08. 17:00

한마음혈액원, 작년 제주서 행사
수혈용 제조할 군포로 이송 지연
복지부 “몰랐다” 관리 감독 허술

11) 기사 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626001005>

혈액원 “제조 기간 넘겨 폐기 아냐”

한마음혈액원 ‘제주 특별헌혈’ 폐기 현황

일시	2022년 11~12월
장소	제주시청, 한라대 등 7곳
채혈건수	285건
폐기건수	10건(폐기율 3.5%)
폐기사유	수혈용 제조기간 초과(추정)

지난해 말 제주에서 진행된 특별 헌혈 행사 이후 일부 혈액이 ‘성분별 분리 작업’(제조)을 하기도 전에 폐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채혈과 혈액 보관 방법 등을 모두 민간에 위탁하고 일일 혈액 보유액을 보고 받고 있는데, ‘헌혈 피’가 버려져도 사후 보고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생략)...

서울신문

[정정 보도] <[단독] 폐기율 6배…‘헌혈 피’가 버려졌다>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3년 6월 26일자 위 제목의 기사 등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 한마음혈액원이 제주에서 채혈한 혈액에 대하여 제품 제조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채혈분 10건을 폐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혈액원은 제주에서 채혈한 혈액을 법정 기한 이내에 모두 제조시설로 이송하여 제조를 마쳤고, 제조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폐기된 혈액은 전혀 없었으며, 폐기된 10건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폐기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사례3’은 혈액원이 헌혈 행사를 통해 채혈한 285건의 혈액 중 혈액 10건이 폐기되었는데, 이 폐기율이 통상 발생하는 폐기율의 약 6배에 이르는 사실을 고발한 기사임. 이 기사에서는 혈액이 폐기된 가장 큰 이유로 혈액원이 제조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채혈 장소와 제조 장소 간 거리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서 혈액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고하고 있음.
- 다만, 정정 보도문의 내용을 보면 혈액 10건이 폐기된 것은 사실이나 그 폐기 이유가 제조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혈액관리법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폐기된 것이었음.
- ‘사례3’은 숫자와 그래프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인 유형에 해당함. 또한, ‘사례3’은 헤드라인 다음에 부제(sub-headline)를 통해 혈액원과 복지부의 발화를 압축 요약하여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해당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 본문에는 0.59%와 같은 통계 수치가 언급되어 있고, 그래프를 제시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있음.

다만, 폐기 사유에는 “(추정)”이라는 표기를 함. 이와 더불어 이 기사문에도 취재원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의혹이 제기됐다”, “채혈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와 같은 피동형 문장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한 사례들의 사실성 정도를 기사문의 내용에만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사, 신문기자, 기사 입력을 비롯한 수정 일자 및 시간은 삭제함. 또한, 내용 파악의 용이성을 위해 사실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불필요한 수식어구나 명사구 등은 삭제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사문의 분량을 줄였고, 사례 1의 경우 ‘ㄱ 사무총장, ㄴ 변호사’와 같은 취재원을 나타내는 기호는 ‘변호사 A씨, 사무총장 B씨’로 가시성을 높임.

사 례	기사 원문	실험 상황에서 제시한 기사문
1	- 총 두 문단에 걸쳐 법조윤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 총 한 문단에 걸쳐 법조윤리위원회에 파견 나온 검사가 저지른 만행과 그에 대해 여성 변호사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혈한 내용에 대한 기술 - 총 두 문단에 걸쳐 여성 변호사가 사무총장과 파견 검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내용 기술	- 법조윤리위에 대한 설명과 파견 나온 검사의 파행은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함 - 사무총장과 여성 변호사가 갈등을 빚은 구체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두 사람이 파견 검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기술만 제시하여 분량을 줄임
	총 글자 수 2,709자	총 글자 수 1,322자
2	- 심사위원으로 선출된 J씨가 인천경제청 담당자 B씨와 친분이 있으며, 따라서 의혹이 제기되기 충분하고, B씨는 공모 지침서 사전 유출에도 책임이 있는 직책이었으나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내용, B씨는 과장 내정설이 돈다는 내용 기술	- 앞선 단락에서도 계속해서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피동형 문장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문의 마지막 내용 역시 형식상 반복되는 유형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함
	총 글자 수 1,464자	총 글자 수 744자
3	- 총 한 문단에 걸쳐 헌혈자로부터 채혈된 전혈에 대한 설명과 제조 기간 내에 제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기술 - 총 한 문단에 걸쳐 혈액원에 대한 소개 기술 - 혈액원이 제주시에 헌혈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내용	- 전혈에 대한 설명과 혈액원에 대한 소개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함 - 해당 기사문에서 사실성에 문제가 되는 핵심 내용은 혈액원의 제조 기간 준수 여부임. 따라서 제주시에 헌혈 행사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함
	총 글자 수 1,688자	총 글자 수 1,157자

- 설문은 총 세 섹션으로 구분함. 첫 섹션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체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섹션에서 상기한 사례 1, 2, 3 기사문을 차례로 제시하여 읽게 한 후, 각 기사문마다 사실성의 정도를 0-5점 척도로 체크하게 함.

	0	1	2	3	4	5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며, 전혀 믿을 수 없다(사실성이 전혀 없다)	☐	☐	☐	☐	☐	☐	매우 객관적이며, 매우 믿을 만하다(사실성이 매우 높다)

- 이 연구에서는 ‘사실성’을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 후 피험자들에게 안내함. 또한, 주어진 기사문의 내용을 읽고 사실성의 정도를 0-5 척도로 평가한 다음에는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함.

사실성 정도 파악하기

질문 응답 173 설정

3 중 2 섹션

기사문 읽고 사실성 평가하기

- 지금부터 3개의 기사문이 제시될 것입니다.
- 주어진 기사문을 읽고, 기사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얼마나 사실이라고 느꼈는지에 대한 정도성을 자유롭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0~5점 척도 평가)
- 여기서 '사실성'이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 사실성에 대한 척도 평가 후에는 그렇게 평가한 이유(근거)를 간단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점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1] 다음 기사문의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느끼십니까? (기사문만 읽고 판단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은 불가합니다.)

[단독] 임신 사실 알리니 해고 통보한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계약직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여성 변호사 A씨가 임신 사실을 알린 지 2시간 30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계약 연장 요청을 거부당한 A씨는 며칠 뒤 유산했다. 책임자인 사무총장 B씨는 "A 변호사가 아이를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근로 계약 해지는 임신과는 관계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 단위로 새로 뽑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계약직 임기는 2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2018년 3월에 2년차 계약
변호사 A씨는 2017년 3월 법조윤리협의회에 사무국

3 ☐

4 ☐

5 ☐

매우 객관적이며, 매우 믿을 만하다(사실성이 매우 높다)

위 기사문의 사실성 정도를 위와 같이 * 평가한 이유나 근거를 작성해 주세요. (낮다면 낮게 평가한 이유, 높다면 높게 평가한 이유, 보통이라면 보통이라고 평가한 이유) (*그냥, 모르겠다' 등의 답변은 이유나 근거가 아닙니다.)

B I U G X

장문형 텍스트

[그림 1] 휴대폰상의 설문 화면(섹션2)

- 마지막 섹션에서는 앞서 읽은 기사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정정보도를 낸 기사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세 기사문 중 가장 사실성이 높다고 느꼈던 사례가 무엇인지(1),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2)를 기술하도록 안내함. 또한 평소 인터넷 기사문을 읽을 때 사실성을 얼마나 고려하며 읽는지(3), 그리고 사실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나열(4)하도록 함.

1. 세 기사문 중 어떤 기사문이 가장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다(즉, 사실성이 높다)고 느끼셨습니까? 혹시 없었더라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임신 사실 알리니 해고 통보한 법조윤리협의회

☐ 인천경제청, 특정업체 밀어주나? 공모사업 연이...

☐ 폐기물 6배... '현월 피'가 버려졌다

사실성 정도 파악하기

질문 응답 173 설정

3. 평소 인터넷 기사문을 읽을 때 사실성을 얼마나 고려하며 읽으십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0 ☐

1 ☐

2 ☐

3 ☐

4 ☐

5 ☐

매우 고려한다

4. 평소 인터넷 기사문을 읽을 때 해당 기사문의 사실성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1)~(8)을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세요.
(예: (8)-(1)-(4)-(5)-(6)-(2)-(3)-(7))

(1) **신문사**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 및 인지도

(2) **기자**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도

(3) 기사문에서 밝히고 있는 **취재원**이나 **출처**의 정확성

(4) 기사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분야에 대한 개인적인 **배경지식**의 여부

(5) 동일한 내용을 다룬 **다른 기사문**과의 비교

(6) 기사문에 달린 **댓글**의 반응

(7) 기사문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 (예컨대, '정치나 경제' 분야는 '문화, 연예' 분야보다 사실성이 높다고 느낌)

(8) 기사문에서 **통계 자료나 그래프** 등 객관적인 수치의 활용 여부

2. 1번에서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택한 기사문이 그나마 나머지 두 기사문에 비해 사실성이 높다고 느꼈던 이유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모르겠다' 등의 답변은 이유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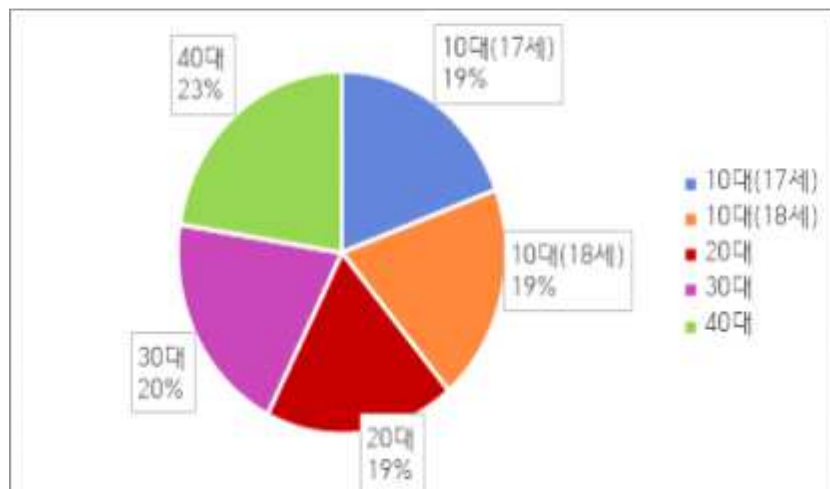
장문형 텍스트

[그림 2] 휴대폰상의 설문 화면(섹션3)

2. 연구 대상

○ 피험자는 10대부터 40대 남녀로 선정하였으며, 총 163명이 참여하여 응답함. 단, 문법 교육의 대상이 될 10대의 경우는 나이별로 참여 인원을 구별함. 피험자 구성은 다음과 같음.

연령대(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총 인원
참여 인원	31(17세)	30	32	36	163
	31(18세)				
	62				



[그림 3] 설문 조사 참여 인원

3.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설문 양식은 google docs를 활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피험자들에게 앞서 제시한 설문 양식 링크를 공유하고 각자 편한 시간에 편한 장소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안내함.
- 설문 조사 및 회수 기간은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총 15일간이며, 각 연령대별 최소 30명 이상이 참여할 때까지 조사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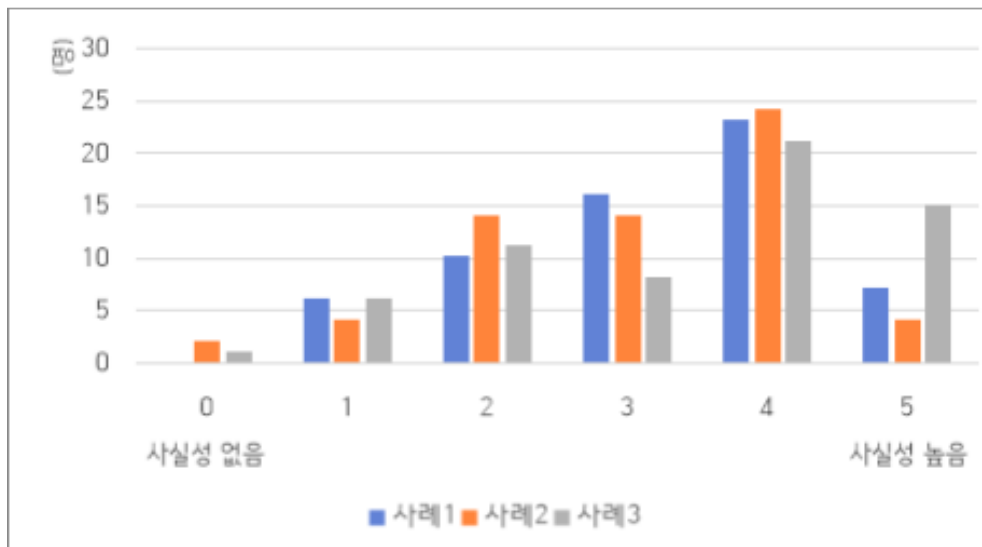
III. 연구 결과

- 각 사례에 대한 피험자들의 사실성 정도 평가는 리커트척도 기준 4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그림 4] 참조)¹²⁾. 이는 10대들만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함([그림 5] 참조). 피험자들은 사실성의 정도를 점수로 평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평가에 대한 근거도 기술해야 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 기사문을 읽을 때보다도 사실성을 의심하면서 기사문을 읽었을 가능성이 큼.
- 이러한 실험 상황을 고려하면, 세 사례 모두에서 사실성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든 기사화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중(피험자)에게는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그림 4] '사례1~3'의 사실성 정도에 대한 판단 결과(전 연령대)(1)

12) 이 경우에서와 같이 연령대별 통계를 내는 경우 각 연령대별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10대는 17세 집단과 18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통계 결과를 산출함. [그림 4]는 10대 중 18세 집단(3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제시한 것임. 17세 집단(3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리커트척도 기준 4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른 항목에서도 전체적인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함.



[그림 5] ‘사례 1~3’의 사실성 정도에 대한 판단 결과(10대)

○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 ‘사실성’을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정도’라고 정의하여 안내했지만 피험자들은 해당 기사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나 ‘(많이 들어서) 익숙한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음.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M17-10	1	4	양측의 입장이 다 드러나 있고 정확한 시간과 발생한 사건들이 자세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 기사와 같은 사건이 <u>실제로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u>
W18-1 2	1	4	<u>실제로도 위와 같은 사례가 많고</u> 전문가의 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W20-0 4	1	4	<u>요즘 현실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u> 이어서
M30-03	1	5	시간별로 해당 기사에 사건이 정리가 되고, 결과가 이해가 되는부분이다. 또한 <u>실제로 임신 여부로 인한 계약직의 해고는 있을수 있을 법한 일이다.</u>
M40-07	1	4	기사 내용이 <u>있을 법한 일</u> 이라 생각됨
M17-02	2	4	위 기사문의 경우 나는 이런 내용을 살면서 들어본적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지만, 구체적인 지명, 기업의 이름과 소송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M18-01	2	4	가족들에게서 <u>평가조작에 대한 사례를 많이 들었어서</u>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다.
M20-05	2	4	각종 비리들이 난무하는 <u>현대사회에서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u> 생각한다. 물론 정말 더 이엔엠이 뛰어나서 뽑혔을 수도 있지만 선출 방식 근거를 못 대는 걸로 보아 난 이것이 비리라고 생각한다.
M30-19	2	4	먼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비리는 <u>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u> 생각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듯 합니다. 때문에 공기관 비리사건은 좀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듯하며 해당 건의 경우 타 도시에서는 심사위원 선출 방식까지 모두 공개했으나 본 경제청은 공개하지 않은 점까지 이유로 적은 점이 좀 더 신뢰 주는 느낌입니다.
W40-03	2	3	기사가 사실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성에 좀 더 높이 평가한 이유는 <u>어떠한 공모사업을 할 때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 기하는 방식이 예전부터 있었고</u> 선출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부분에서 논란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성을 기반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M30-20	3	4	<u>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u> 이라고 판단됨. 최근 챔버리 사태와 같이 공무원들 잦은 실수와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기존 폐기율이 0.59%인 경우 실수로 인해 6배 정도의 폐기율 수치는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
M40-07	3	4	<u>충분히 있을법한 내용</u> 이며 현혈하는 당사자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기사에서 다루는 사건이 대중에게 익숙한 내용이거나 사회·문화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인 경우, 혹은 시의성이 있는 사건으로 여겨지는 내용인 경우 사실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사례 1’에서 사실성 정도가 높다고 판단한 사람들(리커트척도 4, 5에 해당)은 해당 기사문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제시”하고 있고, “사례가 구체적”이며, “실제 대화”를 제시하고 있고,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음.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M17-04	1	5	<u>양쪽 모두의 의견</u> 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W18-01	1	5	<u>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u> 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감정을 배제한 사실들의 나열으로 작성된 기사라고 느낀다. <u>변호사 등의 발언</u> 을 통해 <임신 사실로 인한 차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긴 하나, 충분히 갑과 을의 상황에 이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사실성, 객관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W18-02	1	5	높게 평가한 이유는 <u>구체적인 사례로 예시</u> 를 들며 어떤 사례인지 <u>자세하고 또한, 여러 사례를 제시</u> 했으며 글에 대한 근거도 많았고 평소에 읽었던 뉴스와도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사실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평가하였다
M20-01	1	5	관련 있는 인물 중 한 사람만을 선택하여 취재하지 않고 <u>A씨와 B씨의 의견을 모두 듣고</u> 기사를 썼다. 또한 <u>제3의 전문가의 의견까지 사용</u> 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 글은 객관적이며 필자의 의견이 들어간 부분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5점을 주었다.
M30-03	1	5	<u>시간별로 해당 기사에 사건이 정리</u> 가 되고, 결과가 이해가 되는부분이다. 또한 실제로 임신 여부로 인한 계약직의 해고는 있을수 있을 법한 일이다.
M30-07	1	4	<u>A와 B씨에 대한 각자의 입장</u> 을 작성한 것과 <u>노무법인의 답변</u> 까지 가져온 점에서 그렇습니다.
M40-02	1	4	사건 발생의 <u>기간을 명시</u> 하고 있고, <u>인터뷰의 출처</u> , 문제되는 사실의 대한 <u>구체적 진술</u> 이 보인다. 또한 <u>양측의 의견을 인터뷰</u> 하여 이견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서 편향되지 않게 한다.
M40-05	1	4	법조문에 대한 예시나 <u>구체적인 상황</u> 설명

○ 반면, ‘사례 1’이 사실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람들(리커트척도 0~2에 해당)은 기사문에 기술된 내용의 인과관계를 따지거나(“앞뒤 내용이 다르다”), 기술된 내용이 거짓되지 않은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인지(“남편이 임신 통보를 아내 회사에 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를 따져 보면서 “근거가 부족”, “해고 당한 사람 편에서 쓰인 글”로 평가함.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W17-01	1	1	<u>A씨 측에 기울어진 기사</u> 라고 생각했다.
M18-01	1	2	임신이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에 대한 <u>근거가 빈약</u> 하여 믿기 힘들다
M18-02	1	2	회사와 개인의 입장을 같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만, 마지막에 사무총장과의 갈등 내용과 <u>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독자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 할 여지</u> 가 있던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 문단을 확인하면, <u>주로 임신 사실과 상관 관계가 없다</u> 는 것을 강조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W18-05	1	2	기사에서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 당사자의 배우자, 그리고 당사자의 직장 상사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고 그들의 관계 또한 적절히 진술하며 사건의 개요를 밝혔다고 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첫 번째 단 락에서는 A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했지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는 A씨의 남편이 알렸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u>앞뒤 말이 다르다고 생 각해 신뢰도를 잃었다</u> . 또한 세 번째 단락에서 A 씨의 업무 성과가 낮았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뒤에 '변호사 A씨는 ~~업무도 사무총장의 명령에 따라 반기별로 5건 씩 담당해왔다.'라고 나와있어 '이를 입증할 근거 는 없다.'라는 말에 대한 <u>충분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u> 다고 생각한다. 또한 A씨와 B씨 사이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달라 사실확인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u>A씨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u> 에서 총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렵 다고 느꼈다. 따라서 최종 2점을 부여했다.
M20-02	1	2	<u>해고당한 사람의 편에서 쓰인 글</u> 같다. 글쓴이가 객관적인 태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느껴짐. (...중 략...) 기사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적었다면 인과관계를 과 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W20-08	1	2	법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당일에 받았다는 것과 개인적인 인터뷰와 같은 내용으로 <u>근거가 부족</u> 하다고 느껴졌다.
M40-02	1	1	이슈 사항에 대하여 <u>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듣고 받아쓰는 수준에서 내용이 작성</u> 되었으며 그 가운 데 전반적으로 <u>A씨의 입장에서 상세 의견을 개진</u>

		하고 있으며 B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기사 내 논쟁 이슈(부당해고 문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A씨의 유산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이 A씨에 대하여 보다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사를 읽도록 유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중립을 벗어나 A씨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에 낮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	--	--

○ ‘사례 2’에서는 “구체적인 일자, 기업의 이름, 소송의 내용”이 있고, “부실 심사 논란의 요소와 근거가 명확”하여 사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다수임. ‘의혹이 제기되었다’와 같이 취재원이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어도 그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명확”하고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성이 높다고 평가함.

○ 특히, [W18-10]의 경우는 ‘의혹이 제기되었다’와 같은 기술이 “매우 객관적인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는 사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면서도 그것이 ‘누가’ 제기한 의혹인지, 이러한 의혹을 기사에서 밝힌 기자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주목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M17-02	2	4	위 기사문의 경우 나는 이런 내용을 살면서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지만, <u>구체적인 지명, 기업의 이름과 소송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u>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M17-17	2	4	<u>지역, 인물, 관련 기업 등 여러 정보가 자세히 나왔으며</u> 최근 여러 정부 부서 등지에서 비리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어 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M18-05	2	5	<u>논리적인 근거들이 많아</u>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W18-10	2	5	<u>"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u>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객관적인 입장으로 기사문을 작성했다고 느껴졌다.
W18-14	2	4	본 신문의 과거 기사를 언급함으로써 독자로 하

			여금 정확한 정보와 긴밀한 조사를 토대로 쓴 기사라는 인식을 준다. <u>“이야기가 나온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필자의 주관 강조하는 글이 아니라는 생각</u> 이 든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혹시 모를 정보의 오류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도 느껴진다.
W20-01	2	4	의혹이 제기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다 등의 언어적 표현 때문에 기사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으나 <u>논란이 된 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어</u> 높은 점수를 선택했다.
W20-12	2	5	<u>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것</u> 같이 느껴져 사실성이 높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 혹은 얼마나 많은 매체에서 부실심사 의혹이 제시되었는지 제시되어있으면 더 사실성이 높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M30-16	2	5	내용에 <u>모순이 없음</u>
M40-06	2	5	초반 논쟁의 내용을 보도 후에 추가로 기사를 작성한 부분과 <u>부실 심사 논란의 요소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u> 하여 사실성이 높다고 판단됨.
W40-04	2	4	문제제기가 <u>구체적이고 사례가 믿을만</u> 해 보인다.

○ 반면, ‘사례 2’가 사실성이 낮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은 출처”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근거나 사례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의 인터뷰,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였다면 사실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도 있음.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M18-03	2	0	이 기사는 <u>그저 심사위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이 의혹을 작성하였고 더이엔엠에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u> 하다. 더이엔엠이 왜 약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u>근거가 있어야 하는데</u> 그런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단기간 사이에 투자를 받고 성장할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았다. 물론 단기간에 성장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런 작은 가능성이라도 없애야 제대로 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M17-07	2	1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u>그런 의혹이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왜 제기되었는지, A사의 과거 개</u>

			<u>발 제안을 유지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더이엔엠이 재무, 역량이 모두 떨어진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건지 설명하지 않은 채</u> 단순히 경쟁업체들이 대기업이라 더이엔엠이 역량이 떨어진다고만 언급한다. 업계에서 그렇게 여긴다면 <u>전문가의 인터뷰라든지, 객관적인 지표 같은 것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할</u> 필요가 있다. 자료들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은 기사에서는 결국 기자의 마음대로 내용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W20-02	2	2	결과 자체는 의문을 가질 법 하나, 그에 대한 <u>타당한 근거 없이</u> 문제제기만 하고 있다. <u>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u> 기사 작성자의 추측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W20-20	2	2	주장에 대한 <u>근거나 사례가 불충분</u> 하여 사실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됨.
W30-03	2	2	<u>근거의 신뢰도</u>
M40-17	2	2	특정업체가 최약체로 평가받을만한 <u>근거가 부족함</u> .

- ‘사례 3’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인용”, “수치가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사실성을 높게 평가함. 이와 더불어 이 사례에서도 ‘사건 기술의 구체성’, ‘근거의 제시’가 사실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M17-07	3	5	의혹의 대상인 보건복지부와 혈액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주었고 <u>여러가지 통계와 자료를 인용</u> 하였으며 의혹의 주제인 혈액의 폐기에 대해 <u>여러 이유를 들며 혈액원이 해명한 그대로의 내용</u> 이 나온다. 기사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중립적인 어투를 취한 것도 신뢰성에 기여한다.
M18-03	3	5	<u>도표를 보여줌으로써 근거</u> 에 더 강한 믿음을 심어주고 복지부와의 <u>대화를 통해</u> 위 기사문에 대한 사실을 더욱 더 보태고 있다. <u>인터뷰를 통한 정보</u> 가 이 기사를 믿을 수 있게 한다.
W20-08	3	5	<u>수치로 나타나 있는 구체적 자료</u> 와 예전 기사로 현혈한 혈액이 많이 버려진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 근거가 높다고 평가했다.
M30-05	3	5	<u>표를 통해 직관적</u> 으로 볼 수 있음

W30-12	3	4	<u>수치가 뒷따른 주장</u> 이기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느껴지네요.
M40-20	3	5	<u>정확한 수치나 근거</u> 등을 기반으로 내용이 작성되었으며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견의 개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문제와 관련 <u>혈액원과 함께 복지부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함께 작성함</u> 으로서 객관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반면, ‘사례 3’이 사실성이 낮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도표에 기재된 ‘추정’에 주목하여 해당 기사문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사례 3’이 사실성이 낮다고 평가한 사람들 역시 ‘근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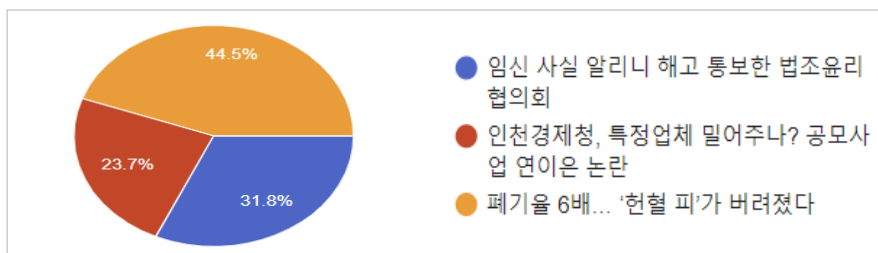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M17-05	3	1	제조기한을 넘겨 혈액을 폐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u>근거가 명확하지 않다</u> . 그에 반해 복지부는 혈액 폐기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므로 객관적인 내용이라 볼 수 없다. 혈액원의 보고가 <u>내부 전산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므로 그 내용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u> .
W20-30	3	1	1. 통상의 채혈건수와 폐기건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폐기율(0.59%)로만 비교하여 <u>제주 행사의 폐기율이 심각하게 커 보이게 만들었다</u> . 신뢰도가 떨어진다. 2. 근거 나열에만 급급하여 <u>논지를 알 수 없다</u> . (혈액원 비판? 복지부 비판?)
W30-10	3	1	<u>폐기 건수가 10건으로 적어</u> 기사가 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폐기 사유 역시 <u>객관적 사실 입증 없이 추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서</u> 다른 기사보다 사실성 정도가 낮다고 생각함
M40-06	3	1	행사 이후 반년이 지난 후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u>정확한 조사와 확인 없이 폐기 사유가 '추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u> 이 아닌 추측의 기사이기에 사실성이 낮다고 판단됨

○ 또한 기사문에 기술된 내용 중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납득이 어려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기호	사 례	사실성 정도 (리커트척도)	평가 근거
M17-14	3	0	국민이 직접 자진해서 피를 뽑은 사람도 있고 자진은 아니지만 자신의 피를 내어준 사람도 있을 텐데 <u>그걸 그냥 버렸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을 것</u> 같습니다.
W20-01	3	1	의혹에서 시작된 기사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혈액 확보를 위해 직접 시에 요청하여 행사를 주최해 얻은 혈액을, 단지 제조 기한 경과 라는 <u>다소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폐기된 수가 통상 폐기율의 6배나 된다는 내용이 터무니 없다고</u> 생각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 문제 제기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 객관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W30-02	3	1	헌혈자가 없어 헌혈 유도를 하면서 혈액을 폐기하고 <u>그 이유도 정확지가 않다는 건 말이 안 된다.</u>
M40-19	3	1	제주에서 헌혈 행사를 해서 <u>군포로 이송하기 하는 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u> 거리가 너무 멀다. 이송 과정 이슈로 행사 의미가 있는 건지 의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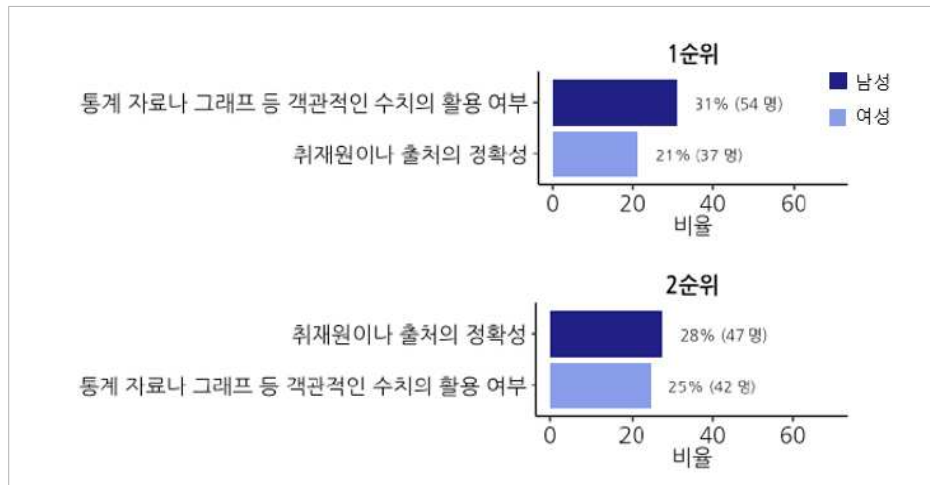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실성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성(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사건에 대한 ‘친밀성(자주 접해 보았는가)’과 더불어 ‘근거의 타당성’,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출처의 명확성’과 ‘도표 및 수치 자료의 제시’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도표 및 수치 자료의 제시’는 세 개 기사문 중 ‘사례 3’의 사실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대다수임을 보여 주는 다음 [그림 6], [그림 7]의 결과¹³⁾와도 관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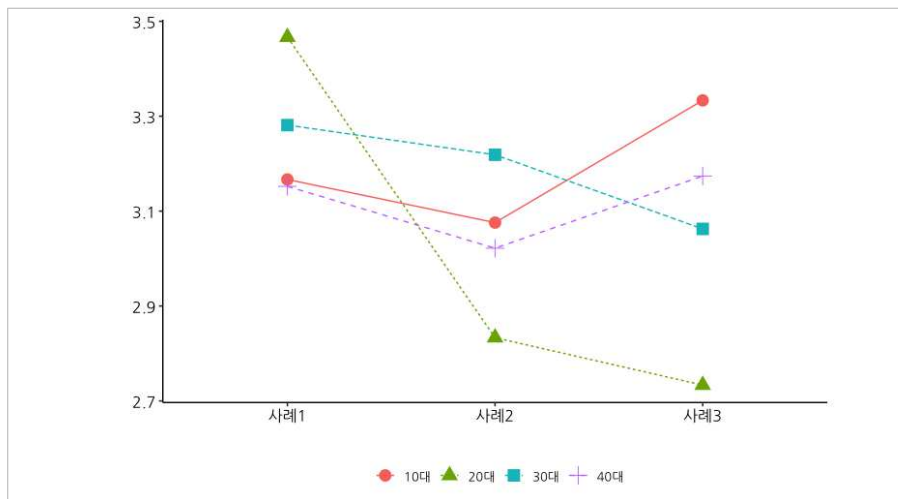
[그림 6] 가장 사실성이 높은 기사문의 선택 결과(전 연령대)

13) [그림 4]와 마찬가지로 [그림 6], [그림 7]은 10대 중 18세 집단(31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제시한 것임.



[그림 7] 사실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인(전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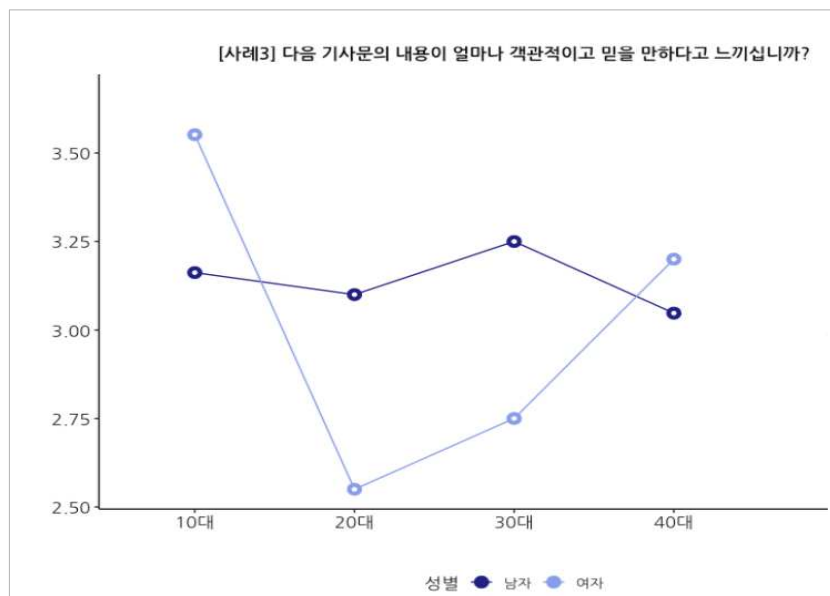
○ 이에 더하여, [그림 8], [그림 9]의 결과는 10대 집단, 특히 여학생 집단에서 ‘사례 3’의 사실성 정도를 가장 높게 판단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음. 이는 10대 집단이 ‘통계 자료와 수치’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 사실성을 높게 판단하는 경향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시사함.



[그림 8] ‘사례 1~3’의 사실성 정도에 대한 판단 결과(전 연령대)(2)

- 【W17-02】 현황 도표와 혈액의 폐기율 등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다른 두 기사보다 사실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 【M17-13】 표 자료와 글쓴이의 태도가 셋 중 가장 객관적이었다
- 【M17-22】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서
- 【M18-03】 3번째가 더 많은 정보와 수치가 있었다.

- 【W18-11】 다른 기사문들과 다르게 어투와 객관성 있는 자료들을 통해 신뢰성을 높인 거 같다. 무작정 진술만 읊거나, 믿지 못할 어투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아서 더 사실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W18-13】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이 중심 내용을 수치화함으로써 눈에 띄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사실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 【W18-16】 수치와 표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나머지의 두 기사문에 비해 객관적인 정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성이 높아 보였다.
- 【W18-18】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고 공식기관의 잦은 언급으로 신뢰성이 있어 보였다.
- 【W18-23】 표 같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그림 9] ‘사례 3’의 사실성에 대한 판단 결과

○ [그림 8], [그림 9]에서 또한 두드러지는 특징은 20대의 판단인데, 20대들은 다른 연령대보다 ‘사례 1’에서 사실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사례 3’에서 특히 사실성을 가장 낮게 평가함. 특히 [그림 9]에서는 20대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사실성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사례 1~3’에 대한 20대 여성 집단의 평가 근거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20대 여성 집단은 ‘사건 기술의 구체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즉, 구체적인 날짜, 시간, 전화 인터뷰 등이 사례 1에서는 발견되지만, 사례 2나 특히 사례 3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

○ ‘사례 1’이 구체적이라는 평가는 10대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적인 의견이었는데, 이러한 판단이 ‘사례 3’에서는 도표와 통계 자료의 제시, 출처의 분명함 등의 이유로 20대와 판단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 역시 10대 학습자들이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따지는 일보다 통계 자료가 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우선적으로 주목한다는 특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편향성’ 역시 사실성 판단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다만, 기자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지라도 ‘양쪽 입장’을 모두 제시하기만 하면 편향되지 않은, 사실성이 높은 기사문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즉, 각 입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일보다 ‘양쪽 입장’이 제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경향은 앞선 통계 자료의 제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M17-03】 객관적으로 법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어 객관적이라 생각한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잘 드러난 기사이기 때문이다

【M17-05】 변호사 A씨와 사무총장 B씨 양측의 입장이 모두 드러나 있고, 백도현 고문이라는 제3자의 의견도 나와 있으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A씨의 유산이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확실히 나오지 않았으므로 1점 깎았다.

【W17-16】 양측의 사실관계와 타당한 근거를 들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해 사실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A씨의 입장으로 조금 편향된 부분이 보였다.

【W18-01】 양측의 입장을 모두 전달하여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감정을 배제한 사실들의 나열으로 작성된 기사라고 느낀다. 변호사 등의 발언을 통해 <임신 사실로 인한 차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긴 하나, 충분히 갑과 을의 상황에 이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사실성, 객관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IV. 논의 및 제언

1. 정보의 원천 관련: ‘누구’의 입장에서 사실인가

○ III장에서 살핀 결과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시사점은 기사문에서 ‘취재원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더불어 사건 전달의 주체인 기자가 ‘누구의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

는 것을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임.

- ‘사실과 의견 구별하기’는 초등학교 ‘읽기’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오고 있는 교육 내용 중의 하나임. 초등 단계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 있으면 ‘의견’으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로 구별하게 하지만 중등 단계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내용은 특히 기사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사례 1’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기자는 ‘임신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여성’의 입장에서 그녀의 관점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었음. 이는 기자가 그녀 바라본 사건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임. 그러한 자신의 믿음이 독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사례 1’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사실상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면, ‘누구’의 입장에서 사실인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해당 문장에 필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나타나 있는가를 하나하나 따지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임.
- 이와 관련하여 취재원이 밝혀져 있어도 그 취재원이 특정 입장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기자에 의해 ‘취사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학습자 보다는 사건에 관계된 양쪽의 입장이 제시만 되어 있으면 사실성이 높다고 인식한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사실도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임.

2. 내용의 신뢰성 관련: ‘누구’의 발언이 ‘어떤 맥락(위치)’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 1에서 논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누구’의 발언이 ‘어떤 맥락(위치)’에서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해 보게 하는 교육 내용과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누군가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만으로 사실성이 담보될 수는 없음. 상론한 바대로 그 발언이 기자에 의해 취사 선택된 것이라면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선

적으로 살펴야 하며, 그러한 발언이 또한 기사문의 전체 내용에서 어떤 내용 다음에 제시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야 함.

○ ‘사례 1’에서 기사문의 마지막에 전문가의 인터뷰가 실렸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의 발언이 기자가 지지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의 상황을 말미에 ‘차별’로 공식화하고 있다는 사실임.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발언을 신뢰하며 기자가 의도한 대로 해당 사건을 ‘차별’로 인식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1-3학년의 ‘문법’ 영역 성취기준 고려 사항에서도 “표현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정보의 원천을 따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사태에 대한 필자의 입장과 태도를 읽어 내는 비판적 문식성과 민주시민 의식”을 강조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3. 내용의 타당성 관련: 일관된 관점으로 특정 입장을 동조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 이 연구에서 다룬 ‘사례 1~3’은 ‘비리를 폭로’한다는 ‘명분’ 아래 독자의 초점을 좁히고 있음. 즉, 독자가 그러한 명분에 설득되어 다른 관점이나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음.

○ 실제 대중들 역시 기사문의 사실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일관되는가, 일목요연하게 기술되고 있는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가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는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글의 일관된 논조에 얼마나 쉽게 설득될 수 있는지를 시사하는 것임. 그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임에도 일관된 관점으로 사건을 전달하면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사실로 인식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증명되었음.

4. 사실 왜곡 및 진실 호도 관련: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적 담론에 편승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거의 타당성을 따지며 사실성을 판단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사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일인가, 주변에서 들어 봤고,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사실성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음. 따라서 해당 기사문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다루면서 그러한 분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는 전략, 즉 의견을 사실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강동훈(2022), “초등 국어과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과 지향점 탐구”, 한국초등국어교육 2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7-31.
- 강보선(2019), “문법교육에서의 국어과 교과 역량 함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와 매체’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81, 한국문학언어학회, pp.9-37.
- 김은성(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문법교육과 매체 언어 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pp.5-39.
- 김정은(2021), “카드뉴스를 활용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활동: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27, 한국국어교육학회, pp.309-335.
- 김창숙(2010), “한국 신문 스트레이트 기사에 나타나는 의견에 관한 연구 1970-2009: 조선, 중앙, 한겨레신문 1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숙(2019), “사실 확인인가, 사실 만들기인가: 한국 신문 사실 확인 관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재일(2004), “한국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들·옥현진(2022),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뉴스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와 융합 44(2), 한국문화융합학회, pp.1-26.
- 박찬·최예영·신효진·권순희(2023), “속성의제 분석을 통한 뉴스 리터러시 교육: ‘조유나 양 실종’ 사건 인터넷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93, 청람어문교육학회, pp.29-65.
- 송보라·최숙기(2022),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내용 요소 분석”, 우리말 글 93, 우리말글학회, pp.143-178.
- 송용희(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3), 한국언론학회, pp.80-104.
- 양길석·서수현·옥현진(2021), “우리나라 성인들의 뉴스 리터러시 수준 분석: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뉴스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5), 한국디지털정책학회, pp.23-30.

- 양영희(2016), “문법교육에서 매체(언어)의 수용 방안”, *우리말 글 70*, 우리말글학회, pp.131-154.
- 옥현진 외(2022),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뉴스 리터러시 특성 분석: 학년, 성별, 지역, 포털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7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57-179.
- 이관규(2017), “매체 언어와 문법 교육”, *한글 318*, 한글학회, pp.169-197.
- 이영희(2009), “뉴스 보도에 나타난 보도자의 개입 양상: 뉴욕타임스 1면 기사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혜원(2022), “프레임과 뉴스 리터러시를 활용한 의사소통 수업 방안 연구”, *사고와표현 15(1)*, 한국사고와표현학회, pp.133-158.
- 최선희 · 김정은(2022),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문법 교육적 탐색: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7(3)*, 국어교육학회, pp.235-271.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주제: 『큰사전』의 종합적 조명
2023년 10월 6일 (금) 10:00 ~ 16:40 / 한글학회 강당

□ 제3부 주제 발표

초등 학습자의 언어 인식 연구

정지현

고려대학교 강사
hyjh1987@korea.ac.kr

초등 학습자의 언어 인식 연구

정지현(고려대학교)

초등학습자의 언어 인식 연구

1. 서론
2. 이론적 전제 및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Presentation Title

2



서론

-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학생들의 부족한 언어능력에 대해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 SBS 스페셜 <난독시대(560회, 2019.7.21.)>
- EBS 다큐프라임 <교육대기획 다시, 학교 10부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2020.1.27.)>

3



서론

- 본고는 이를 언어 발달의 특정 시기에 교육 공백 등의 이유로 지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존의 언어 발달 이론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이미 인간의 언어 발달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측면이 있다.
-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 초등 학생의 언어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관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서론

- Fang(2012)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일상적 언어(everyday language), 추상적 언어(abstract language), 은유적 언어(metaphoric language)로 구분한다.
- 이렇게 언어의 유형을 구분하면,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으로 '언어'를 볼 수 있게 된다.

5

언어 발달의 세 가지 유형: Fang(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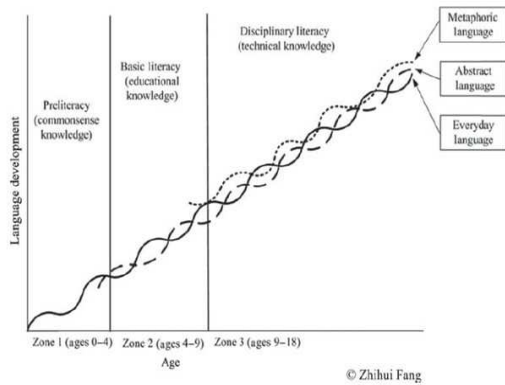


Figure 1. Literacy development represented as the braiding of three language strands. (Copyright, Zhihui Fang, 2012, shared by permission of author.)

- Fang(2012)의 관점에서는 초등학생 시기에 추상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는 계속 발달하고 있다.
- 유아동기에 언어 발달이 완성된다고 보는 관점에서의 '언어'는 일상적 언어에 국한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본고는 초등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언어 발달을, 어느 정도 완성된 '일상적 언어'가 보완적으로 발달하며, '추상적 언어'가 성숙해지고, '은유적 언어'가 발아한다는 측면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6

2. 이론적 전제 및 연구방법

Subtitle

2.1. 이론적 전제: Fang(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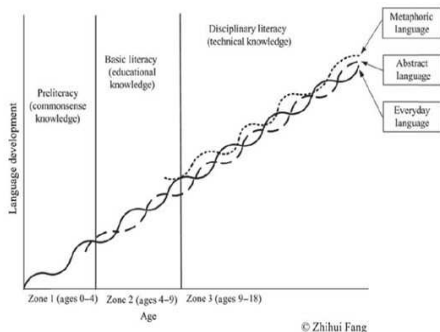


Figure 1. Literacy development represented as the braiding of three language strands. (Copyright, Zhiliu Fang, 2012, shared by permission of author.)

언어 발달의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은 Halliday(200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개의 연속적인 에너지 물결로” 특징지어진다. 각각의 물결은 아동의 의미 잠재성을 확장하고, 동시에 그들을 일반적인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한 발짝 이동시킨다. 아동이 한 물결로부터 다른 물결로 이동할 때, 그들은 이전에 학습된 문법을 버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세 종류의 문법이 합쳐지고 “텍스트의 문법 구조에서 소중히 간직된다”(p.46). 문식성 이전 단계(태어나서 4세까지) 동안에, 아동은 상식적 지식을 해석하기 위해 모어(즉, 일상의 구어)를 습득한다. 이 언어 발달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주로 형성된다.

기본적인, 또는 기능적인 문식성 단계(4세에서 9세까지) 동안에, 아동은 문어에 숙달되게 되고 그들을 인쇄-문식 문화에 기능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의미의 추상적인 양식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언어 발달은 주로 유치원에서부터 3학년까지 일어나는데, 가족이나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는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고급, 또는 교과 문식성 단계 동안(9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은 문법적 은유에 기초한 담화를 만나기 시작한다. 이런 유형의 담화는 전형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에 기초한다. 이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공부의 초점이 되는 시기이다. 교과 문식성은 문식성 이전 단계와 기본 문식성 단계 동안 발달되어 왔고, 교과 문식성 단계에서도 발달을 지속하고 있는 언어 기능(일반화, 추상화)과 지식(상식, 교육적)을 배제하기보다는 개발한다(Fang, 2012:21).

2.1. 이론적 전제: Chall(1996)

단계	단계명	학년	특징
0단계	읽기 전 단계		
1단계	초기읽기/해독 단계	1-2학년	
2단계	강화하는 읽기 단계	2-3학년	1단계에 읽었던 글 유창하게 읽기, 프린트에 비교작된 읽기
3-초기 단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읽기 단계1	4-6학년	자기중심적 읽기에서 벗어나 세계의 관습적인 지식에 대한 읽기 능력이 발달하는 첫 단계
3-후기 단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읽기 단계2	7-9학년	일반적인 성인의 읽기 능력에 가까워지는 단계
4단계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단계	고등학생	이 시기의 교과서들은 이전 교과서와 달리 더 다양한 관점을 담고 있다.
5단계	지식의 구성/재구성 위한 읽기 단계	대학생	다른 사람의 견해가 담긴 읽기를 통해서 자신을 위한 지식을 구성한다.

[표] Chall의 읽기 능력 발달 단계(Chall, 1996:15-24 정리)

2.1. 이론적 전제

- 언어 인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언어 인식을 학습자가 언어에 대해 가지는 메타 언어적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 학습자의 언어 또한 발달해 나가고 있다는 발달적 관점을 따르는 것이다.
- 기본적인 언어 형식에 대한 숙달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인 학령기 초기에 다 다르면 아동은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언어 형식과 내용에 대한 상위 언어적 수준의 인식을 갖게 된다(Owens, 2005; 최미숙 외(2016)에서 재인용).
- 본고는 이러한 메타 언어적 인식 능력이 발달될 때 다양한 맥락에서의 의사소통에 더욱 민감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Andrews, 2006(이관규 외 역 (2008:29))

Presentation Title

10

2.2. 연구방법

- 초등 언어 발달을 연구한 국내 연구 30편 분석
- 국어교육계에서 초등 언어의 어휘, 문법적 발달을 살피는 연구가 미흡한 편.
- 언어 치료 분야 및 아동 언어 발달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초등 언어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초등 언어 발달을 '언어 인식'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의 연구를 30여 편으로 선별하여 선정함.
- 선별된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초등 언어 인식을 유형화함.

Presentation Title

11

2.2. 연구방법

No.	논문	유형
1	강종렬. (1999). 초등학교 1-6 학년 아동의 기초 어휘 이해 발달 상황. <i>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al</i> , 12(2), 1-10.	어휘
2	이필영, & 김정선. (2008). 초등학생의 표현 어휘 능력 연구. <i>청람어문교육</i> , (38), 219-237.	어휘
3	신희성. (2022). 초등학교 5 학년 학생의 설득하는 글에 나타난 양태 표현 사용 양상-주장과 근거를 담은 문장을 중심으로. <i>국어교육연구</i> , 80, 95-137.	문법-결속
4	김정선. (2020). 초등학생의 읽기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 표지에 대한 종적 연구. <i>한국언어문화</i> , (73), 125-152.	문법-결속
5	정부자(2016). <i>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년 일반아동의 파생어 형태인식 발달 및 예측 변인 탐색</i>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어휘-인식
6	정부자, & 김영태. (2020). 초등학생의 어휘지식 수준에 따른 파생어 형태인식 발달 연구. <i>언어치료연구</i> , 29(3), 81-89.	어휘-인식
7	정부자. (2017). 초등학교 1-2 학년 아동의 어휘력에 따른 형태인식 특성. <i>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i> , 17(9), 541-552.	어휘-인식
8	정부자, & 심승은. (2019). 초등 1~4 학년 아동의 형태인식 유형에 따른 어휘, 구문 및 읽기 특성. <i>언어치료연구</i> , 28(3), 51-59.	문법-인식
9	김가은, & 정부자. (2017). 초등학교 1-2 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연결어미 형태인식 특성. <i>언어치료연구</i> , 26(2), 77-88.	문법-인식
10	김순자, & 이필영. (2005). 담화 표지의 습득과 발달. <i>국어교육</i> , (118), 148-180.	문법-결속
11	이필영, & 임유종. (2004). 한국 초·중·고등학생의 발화에 나타난 연결 표현의 발달 단계. <i>텍스트언어학</i> , (17), 173-200.	문법-결속
12	안정아, & 남경원. (2016). 초등학생 읽기 텍스트의 접속 표지 연구. <i>어문논집</i> , (77), 177-207.	문법-결속
13	안정아, & 남경원. (2011). 초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읽기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 현상 연구-‘그리고’, ‘그래서’, ‘그런데’를 중심으로. <i>우리어문연구</i> , (41), 197-223.	문법-결속
14	이성영. (2000). 글쓰기 능력 발달 단계 연구-초등 학생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i>국어국문학</i> , 126, 27-50.	문법-결속
15	유경, & 정은희. (2006). 초등학교 3-4 학년 아동의 접속부사 사용 특성. <i>언어치료연구</i> , 15(2), 167-180.	문법-결속

12

2.2. 연구방법

No.	논문	유형
16	배희숙. (2023). 학령기 아동의 담화 능력 발달 연구: 설명담화의 의미표지와 결속표지를 중심으로. <i>언어</i> , 48(1), 99-128.	문법-결속
17	배희숙. (2022). 이야기 쓰기를 통해 살펴본 학령기 아동의 내러티브 기술 발달. <i>언어치료연구</i> , 31(2), 71-86.	문법-결속
18	배희숙. (2021). 학령기 아동의 인물 묘사에 나타난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 요소 사용 능력. <i>언어</i> , 46(1), 189-214.	문법-결속
19	배희숙. (2020). 초등 저학년 아동의 담화에 나타난 인물 묘사 문법 요소 및 특성. <i>언어치료연구</i> , 29(2), 83-95.	문법-결속
20	배희숙. (2017). 학령기 아동의 기술 텍스트에 나타난 행동사 빈도 및 의미범주 분석. <i>언어</i> , 42(1), 25-44.	어휘
21	배희숙. (2016). 초등 저학년 아동의 기술담화에 나타난 미시구조 발달 특성 분석. <i>담화와인지</i> , 23(3), 21-43.	문법-결속
22	배희숙. (2016). 학령기 아동의 쓰기 발달 분석: 형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i>언어</i> , 41(1), 21-40.	문법-결속
23	배희숙. (2016). 학령기 아동의 묘사적 글쓰기에 나타난 의미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발달 특성 분석. <i>언어</i> , 41(3), 407-429.	문법-결속
24	배희숙. (2016). 서사담화 쓰기를 통한 학령기 아동의 이야기문법 및 결속표지 연구. <i>언어치료연구</i> , 25(3), 43-60.	문법-결속
25	배희숙. (2016). 학령기 아동의 담화 유형 특성 탐색을 위한 기술담화 및 서사담화의 미시구조 요소 사용 능력 분석. <i>언어치료연구</i> , 25(4), 77-96. Chicago	문법-결속
26	배희숙. (2015). 초등학교 2, 4, 6 학년 아동의 쓰기 발달. <i>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i> , 46-47.	문법-결속
27	배희숙. (2015). 문장완성형 쓰기 과제에 근거한 학령기 아동의 맞춤법, 형태론, 통사론적 발달 양상. <i>언어</i> , 40(3), 403-421.	문법-결속
28	김지성, & 김화수. (2013). 청소년의 정의하기 능력 발달. <i>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i> , 22-35.	학습언어
29	김인숙(2005). 학령기 아동의 보통명사와 추상명사 정의하기 능력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학습언어
30	김자성, & 김정미. (2011). 설명과 경험이야기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구문발달 특성. <i>언어청각장애연구</i> , 16(4), 540-558.	문법-결속

13

3. 연구결과

Subtitle

3.1. 어휘의 양적-질적 발달: 이필영.김정선(2020)

학 년	남 자		여 자		합 계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1학년	159.1	29.6	189.4	57.6	174.2	56.7
2학년	160.1	33.1	204.7	46.6	182.4	45.9
3학년	194.9	49.1	217.2	42.8	206.0	46.8
4학년	251.0	65.8	285.5	58.6	268.3	63.9
5학년	207.8	42.1	282.0	46.3	244.9	57.6
6학년	219.9	38.0	290.0	51.0	254.9	56.8
전 체	198.8	54.5	244.8	62.8	221.8	63.0

〈표 2〉 초등학생의 학년별·성별 NDW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 년	남 자		여 자		합 계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1학년	311.4	72.7	347.4	91.8	329.4	83.8
2학년	303.9	87.7	411.1	137.7	357.5	126.2
3학년	353.0	97.5	401.1	104.1	377.0	102.5
4학년	564.9	218.5	658.4	197.4	611.6	210.9
5학년	419.3	122.0	596.5	171.1	507.9	171.9
6학년	454.1	123.5	634.6	249.7	544.3	214.8
전체	401.1	156.2	508.2	206.4	454.6	190.3

〈표 4〉 초등학생의 학년별·성별 TNW의 평균과 표준편차

- 학년별 NDW의 경우는 1,2학년/3학년/4,5,6학년으로 집단 구분이 되었으며
- 학년별 TNW의 경우는 1,2,3학년/4,5,6학년으로 집단 구분이 되어 있다.

3.1. 어휘의 양적-질적 발달: 정부자(2017)

- 형태론적 인식(morphological awareness)과 관련해서는, 접사, 어근과 같은 형태론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어휘 습득이나 읽기 성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Anglin et al., 1993; Carlisle & Feldman, 1995; Carlisle, 2000; Nagy et al., 2003; Stahl & Nagy, 2007). 이때, 형태론적 인식은 단어를 접두사, 접미사, 어근으로 분석하고 그 공유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tahl & Nagy, 2007:160).
- 정부자(2017)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형태론적 인식과 어휘력 간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다. 어휘력을 상, 중, 하로 나누어 각 집단의 형태론적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니,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Presentation Title

16

3.1. 어휘의 양적-질적 발달: 정부자.김영태(202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vocabulary and morphological awareness ($n=246$)

	Mean	SD	Min.	Max.	Skew.	Kurt.
<u>Vocabulary (REV-R)</u>						
Low grade	85.85	16.32	55.00	146.00	.96	.71
Middle grade	114.70	18.37	68.00	182.00	.95	.36
Total	101.33	22.61	55.00	182.00	-.10	.32
<u>Morphological awareness</u>						
Low grade						
Low level (52)	20.21	7.72	1.00	32.00	-.31	-.71
Medium level (33)	23.45	7.79	7.00	33.00	-.53	-.65
High level (29)	23.55	8.24	6.00	40.00	-.08	-.43
Total (114)	22.00	7.97	1.00	40.00	-.29	-.54
Middle grade						
Low level (35)	27.77	4.53	18.00	34.00	-.92	-.39
Medium level (42)	30.12	3.47	25.00	38.00	-.49	.39
High level (55)	30.95	3.51	20.00	38.00	.91	-.49
Total (132)	29.84	3.98	18.00	38.00	.16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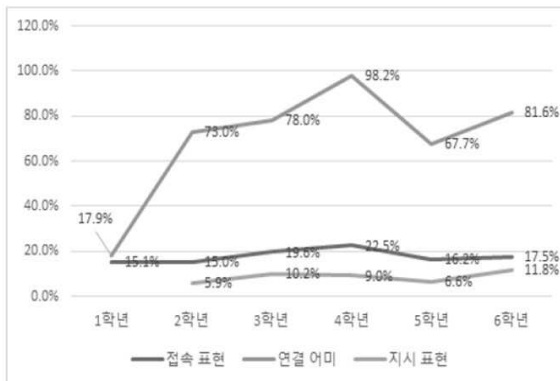
Note. REV-R=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subtest (Kim et al., 2009).

-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 저학년과 중학년으로 나눈 학년 집단에 따라 파생어 형태 인식 점수가 어떤 발달 추이를 보이는지 탐색.
-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파생어의 형태와 구조를 인식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형태 인식 능력이 증가하였다.
- 국내 연구들을 통해 초등학생의 어휘력 발달과 형태인식 발달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Presentation Title

17

3.2. 담화 형성을 위한 문법 발달: 김정선(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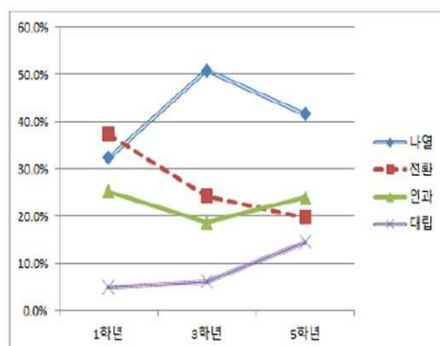


[그림] 접속 표지의 형태 발달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접속 표현, 연결어미, 지시 표현의 출현빈도가 증가한다.
-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지만 5학년 시기에 감소한 후 다시 6학년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를 초등 언어 발달 연구에서는 '5학년 슬럼프'로 언급하고 있다.

18

3.2. 담화 형성을 위한 문법 발달: 안정아, 남경원(2016)



- 초등학교 1,3,5학년의 일기문에 사용된 접속 표지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단순 나열 구조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며 증가하였다가 5학년으로 가면 감소하게 된다. 단순하게 사건 구조를 나열하는 방식이 차츰 줄어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으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체 문장수에 대비한 접속 표지의 사용 빈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텍스트 구성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단순 접속 기능의 접속 표지가 줄어들고 다른 접속 장치들을 통해 텍스트의 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3.2. 담화 형성을 위한 문법 발달: 배희숙(2016)

- 1-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토끼와 거북이" 쓰기에 나타난 이야기 문법 요소와 결속 표지를 학년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이다.
- 이야기 문법 요소와 결속 표지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 빈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건→배경→결과→시도→발단→결말→내적반응→내적계획

- 1학년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이야기 쓰기에 어려움이 있어 43.8%만 분석 자료로 채택되었다. '사건', '배경' 이 빈도가 높게 출현하였다. 2학년의 경우 '결과' 와 '시도' 의 언급이 좀더 뚜렷해지면서 '사건' 기술의 빈도가 높아졌다. 3학년부터는 '발단' 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다. 4학년에 이르면 아동은 '결말', '내적 반응', '내적 계획' 에 대한 기술이 다소 증가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5,6학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차도 줄어들었다.

Presentation Title

20

3.3. 학습을 위한 언어 기제 발달: 정의하기(김지성.김화수, 2013)

<표 III.3>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의 정의하기 능력 차이

단어	대상자	평균	평균차	t	유의확률
보통명사	중등	52	6.73	2.799	.006**
	초등	52	5.42		
추상명사	중등	52	4.77	3.197	.002**
	초등	52	3.62		
동사	중등	52	5.44	4.018	.000***
	초등	52	3.58		
형용사	중등	52	3.79	2.322	.022*
	초등	52	2.88		
정의하기	중등	52	20.73	4.128	.000***
총점	초등	52	15.50		

***p <.001, **p <.01, *p <.05

<표 III.4> 학년에 따른 중학생 집단의 정의하기 능력 차이

단어	대상자	평균	평균차	t	유의 확률	
보통명사	중3	23	7.57	1.50	2.605	.012*
	중2	29	6.07			
추상명사	중3	23	4.39	-0.68	-1.228	.225
	중2	29	5.07			
동사	중3	23	5.96	0.92	1.335	.118
	중2	29	5.03			
형용사	중3	23	3.74	-0.09	-.157	.876
	중2	29	3.83			
정의하기	중3	23	21.65	1.65	.904	.370
총점	중2	29	20.00			

***p <.001, **p <.01, *p <.05

Presentation Title

21

3.3. 학습을 위한 언어 기제 발달: 정의하기(김지성.김화수, 2013)

-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3학년 학생의 단어(보통명사, 추상명사, 동사, 형용사)에 대한 정의하기 능력을 비교하였다.
-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집단과 3학년 집단 사이에는 보통 명사를 제외하고는 추상명사, 동사, 형용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 정의하기에 미숙한 학습자들을 의미적으로는 잘 설명하나 사전에 나타나는 핵심적 의미 특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는 의미 표상이 학령기 동안 교육 경험을 통해 보다 일반화되고 객관적인 의미표상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resentation Title

22

4. 결론

“577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3년 10월 4일 박음

2023년 10월 6일 펴냄

위고 펴낸 이: **한글학회**
회장 김주원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738-2236~9.
전송: 02)738-2238.
누리집: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등록한 날: 1955. 2. 14.
등록 번호: 제1-440호.

* 이 책은 팔지 않음 *

“이 발표 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